

<2012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사업>

CIS 고려인 공동체 무형유산 전승실태 연구성과 발표회

일시: 2012년 11월 16일(금) 14:00-18:00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최 : 문화재청

주관 :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재외한인학회

◆ 인 사 말 씀 ◆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정체성의 밑바탕으로 삼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네스코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존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국가에서 우리 한민족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조사결과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각 분야 여러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문화재청장 김 찬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고려인사회는 다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되돌아가고, 또 남부 러시아(볼고그라드)와 우크라이나 등지로 떠났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50년 만에 회복한 설날과 단오, 추석명절을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있는 고려인 공동체가 급속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이주1세대와 사할린1세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와 러시아(연해주, 사할린) 한민족 사회가 전승해온 전통생활문화 학술조사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졌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옛 필름(카자흐스탄영상물 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는 2012년으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해외 한민족 극단 고려극장 및 고려극장에 전문 예인(藝人)을 공급해온 소인예술단의 존재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학계의 격려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이성학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장/재외한인학회장 임영상

◆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13:30~ 14:00	한국최초 해외극단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옛 필름 상연
14:00~ 14:20	개회사 및 인사말 : 김찬 (문화재청장) / 임영상 (한국외대/과제책임자)
	제1부 : 학술발표
	사회 :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14:20~ 15:30	1. 고려인사회의 전통공연예술: 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 발표자 : 임영상(한국외대) 토론자 :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허용호(동국대)
	2.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수집 성과에 대하여 발표자 : 이복규(서경대) 토론자 : 이영수(단국대)
15:30~ 15:40	중간휴식
15:40~ 16:40	3.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발표자 : 강현모(한남대), 이병조(한국외대) 토론자 : 김봉진(한국문화조사연구소)
	4.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발표자 : 안상경(충북대), 이병조(한국외대) 토론자 : 서종원(단국대)
16:40~ 17:00	중간휴식
	제2부 : 종합토론
17:00~ 18:00	사회 : 석대권 (대전보건대)
	고려인사회 무형문화유산,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토론자 :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허용호 (동국대), 장경희 (한서대)

- 목 차 -

1. CIS 고려인 사회의 전통 공연예술: <고려극장> 과 소인에술단
임영상(한국외대) 1

2.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수집 성과에 대하여
이복규(서경대) 17

3.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강현모·이병조(한양대·한국외대) 27

4.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안상경·이병조(충북대·한국외대) 59

CIS 고려인 사회의 전통 공연예술 <고려극장> 과 소인예술단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I. 해외전승 한민족 무형문화로서의 공연예술
- II. CIS 고려인사회의 문화예술[공연] 활동 현황
 - 1. 고려인의 공연예술 활동의 주요 특징 및 역사
 - 2. 고려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 III. '무형유산' 자료로서의 <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
 - 1. 카자흐스탄국립 <고려극장>
 - 2. 우즈베키스탄 소인예술단

I. 해외전승 한민족 무형문화로서의 공연예술

15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고려인동포사회가 한국사회에 묻고 그 대답을 구하는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러시아 연해주 시절부터 우리 한민족은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신문(『고려일보』의 전신 『선봉』, 1923년)과 극단(<고려극장>의 전신 <원동변강조선극장>, 1932년)을 만들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고려인사회의 문화중심을 이루어왔다. 특별히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한민족 전통공연예술을 지켜온 <고려극장>과 또 <고려극장>의 배우와 극작가를 배출해온 소인예술단의 역사는 한민족 전통문화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개혁개방과 소련의 해체 이후 한국사회의 발길이 이어지고 그나마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전승 한민족의 무형유산의 정수로서 <고려극장>과 소인예술단의 존재 가치와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중국 조선족의 농악무(상모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2008년), 무용분야에서 중국 내 유일
 - 조선족 농악무(상모춤) 제4대 전승인 길림성 연변주 왕청현 김명춘(55세)
 - 중국 조선족문화관¹⁾과 무형문화유산 등록:



[그림 1] 중국조선족 상모와 한국 상모의 차이를 설명하는 김명춘 전승인

1) 중국 지방정부 한 부서인 문화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각종 전시회, 강좌, 양성과정 등을 통해, 과학과 문화지식의 보급 및 사회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의 문화적 교양 향상과 현지의 문명건설을 추진한다. ② 다양한 대중적 문화행사의 개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예술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주민 예술전문가를 양성한다. ③ 주민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문화작업과 이론연구를 진행한다. ④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정리, 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사, 전시, 그리고 홍보활동 및 계승행사 개최 등의 역할을 한다. ⑤ 전국 문화정보자원 공유 기반 서비스공간을 조성하여 디지털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하급 문

요녕성 철령시조선족문화예술관의 사례

국가급무형문화재 등록: 《조선족농악무》(2008.6)와 《판소리》(2011.6)

요녕성무형문화재 등록: 《철령조선족민담》(2009.3)과 《조선족추석놀이》

- 해외 한인집거지의 전통생활문화, 지역민도 공유할 수 있는 무형유산으로
 - 중국 동북(집거 및 산재지구), 중앙아시아, 러시아(연해주, 사할린), 일본 오사카
 - 공동체모임(명절, 인생의례)과 공연, 공연문화

II. CIS 고려인사회의 문화예술[공연] 활동 현황²⁾

극동지역에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곳에서 독자적인 문화예술공연단체들(가무예술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1920년대 말에 연해주의 거의 모든 한인정착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인 예술공연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민족문화의 발전은 전문적인 한인극장의 필요성의 인식으로 이어져, 마침내 1930년 블라디보스톡에 한인 30여명을 구성된 ‘청년노동자극장(TPAM)’이 조직되었으며, 마침내 1932년 9월 9일 소비에트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려극장’이 탄생되었다. (...) 1937년 강제이주. 한인들은 모든 것을 남겨 둔 채 정든 고향 극동을 떠나야 했다. 콜호즈 조직과 함께 한인들은 민족문화 부흥에 곧바로 착수했다. 바로 한인극장(고려극장)의 부활이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탈드이-쿠르간 주의 우쉬토베, 다시 크즐오르다, 그리고 알마티로 이전한 고려극장은 한인관객들과 타민족들 간의 형제애를 강조하는 것을 극장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삼았으며, 따라서 러시아, 카자흐,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우즈벡, 그루지야 희곡 작품들이 고려극장의 무대에서 상연되기도 했다. 고려극장은 콜호즈 극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 콜호즈 순회공연을 자주 가졌다. 고려극장은 탐과 정성이 깃든 공연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터전 속에서 개척의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한민족의 민족문화를 부흥부활 시켜나가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³⁾

1. 고려인의 공연예술 활동의 주요 특징 및 역사

- 연해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됨.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음악 및 연극 **예술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현재까지 한국어로 공연을 진행한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고려일보』임.
 - 〈고려극장〉의 전신은 1932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만들어진 〈월동변강조선극장〉.

화관(문화소, 지역문화센터)의 업무지도 및 직원 양성에 힘쓰며, 하급문화관(문화소, 지역문화센터)에 문화자원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현지의 노인문화, 노인교육, 그리고 어린이문화 업무를 지도한다. ⑧ 대외 민간문화교류를 전개한다. <http://baike.baidu.com/view/493956.htm#1> 참고

2) 제II과 제III장의 주요 내용은 2011년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가 수행한 국립예술자료원 수탁과제, 『한민족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3) <http://kosa.culturecontent.com>

소인예술활동가들이 모여 구성한 이 극장은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춘향전’, ‘심청전’ 등과 같은 민족고전 작품과 소련의 작품 등을 번안하여 연극 작품을 공연. 또한 가수들과 오케스트라, 무용단의 공연도 함께 했음.

- 1937년 <고려극장>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 지역으로 이주. 1942년~1959년까지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에 위치. 1959년~1968년에는 다시 크즐오르다에 있었고, 1968년에 다시 알마티로 이주. 2012년 개관 80주년을 맞는 <고려극장>은 고려인의 역사 뿐 아니라 전 세계 극장 역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극장임.
- <고려극장>은 구소련 시기에 **고려인 집단농장을 위주로 순회공연**을 지속하여 **한국예술문화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교에 있는 농촌 주민의 말에 의하면 당시 <고려극장>의 배우들의 이름은 고려인들 사이에서 당대의 유명 가수보다 더욱 유명했으며, 고려극장 공연을 보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함.
- <고려극장>, 공연예술과 연극, 음악, 무용, 극본 등의 분야에서 종합예술을 발전시킴.
- 『고려일보』는 **고려인 문학의 등용문**. 고려일보는 1923년 발간된 『선봉』 신문에서 시작되었는데, 강제 이주 후 신문의 명칭이 『레닌기치』로 바뀜.
- 1938년부터 1978년까지 크즐오르다에서 간행되었고, 1978년부터 신문사가 알마티로 옮겨감. 1991년 지금의 『고려일보』로 명칭을 변경함. 강제이주 이후 『고려일보』는 처음에는 지역신문이었다가 이후 주(州)신문으로 격상되었고, 1954년부터 공화국 일간신문으로 발전함.
- 『고려일보』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소련의 사회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명절과 전통에 대한 소개, 고려인 인사와의 인터뷰** 등도 실었는데, 특히 **한국어로 된 시와 소설** 등을 지속적으로 실어서 고려인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함. 『고려일보』는 구소련 시기 모든 공화국의 고려인들에게 배달되었음.
- 『고려신문』은 『고려일보』의 우즈베키스탄 특파원이었던 김 부르트 기자가 1997년 9월 22일 창간. 한국어와 러시아어 병용, 고려인 사회의 동향과 고려인 문학 등이 소개되고 있음.

□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예술단체(소인예술 활동)가 함께 발전함

- 소인예술단은 구소련 시기 소비에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탄생. 생활현장을 단위로 하여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일반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의 기초도 연해주 지역에서 소인예술단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임. 소비에트 정부의 목적은 이들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마을 단위로 조직된 이들 소인예술단은 민족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
- 소인예술단은 노래, 춤, 악기, 연극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소인예술단에서 기량을 닦은 사람들이 후에 전문예술단체로 진출하거나 혹은 아마추어 소인예술단이 전문예술단체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었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 집단농장의 소인예술단이 후에 <가야금>, <청춘>, <진주> 등의 전문예술단체로 발전함.
- 고려인들의 소인예술단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 고려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가무단이나 합창단, 미니악단을 만들어 취미활동을 하며 명절에는 지역축제에 참가함.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

- 1920년대 연해주 신한촌에는 소인연극단과 다양한 연예부, <천도교 관현악단>과 같은 관현악단 등의 다양한 소인예술단이 활동함. 후에 이들을 바탕으로 창단된 극단들은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였고, 무용과 음악 등의 장르에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에 둔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함.
- 고려인으로 구성된 악단은 연해주에서부터 등장함. 러시아 혁명 이전 시기부터 연해주에서 활동한 <천도교 관현악단> 외에도 각종 지역별, 직종별로 다양한 소인악단이 등장하였으며, 고려인 극단에는 반드시 악단과 가수, 작곡가(및 편곡가)가 존재하였음. 이들의 활동은 중앙아시아 이주 후에도 이어짐. 현재에도 고려인들이 있는 마을에는 소규모의 악단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들은 잔치에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지만 장례식 때 장례행렬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으로 구성된 전문 관현악단이 존재하며, 음악가의 활동도 매우 활발함. 구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가장 큰 변화는 고려인 유명가수의 등장과 가수지망생들이 늘었다는 것. 중앙아시아 출신 최 아니타는 러시아에서 10대 가수에 손꼽히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훈가수 칭호를 받은 신 갈리나, 정 소피야 등이 활발한 해외 활동을 보이고 있음.
- 지역에서 만든 소인예술단에서도 무용단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공연을 주로 하는 전문적인 무용단이 강제이주 이후 계속 존재하여 왔으며,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고려인 마을에는 아마추어 무용단(겸 합창단)들이 조직되어 있음.

□ 독자적인 한민족 전통예술에 이주지역의 민족적 특색이 첨가됨.

- 고려인 연극의 초기 주제는 한국의 고전소설이나 설화에 기반한 창작극. 후에 러시아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번안극도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이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번안극으로 올려짐. 무용단과 합창단도 한국의 민요와 전통무용이 주요 레퍼토리였으나 차츰 현지 민족들의 민요와 전통무용도 포함시키게 되었음.

□ 구소련 시기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독립 이후 한국의 영향을 받음.

- 구소련 시대에는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춤이나 창법의 영향을 많이 보였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한국의 영향이 커짐. 현재 수도의 전문적인 공연단은 한국식 전통무용을 공연하고 있으나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아직도 예전에 배웠던 북한식 스타일의 전통무용과 민요 창법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음. 북한에서는 현재도 매년 꾸준히 무용가와 민요 가수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시킨다고 함.

□ 고려인 문화예술[공연]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고려인 문화예술 활동은 자발적인 예술활동. 물론 소련에서 정책적으로 소인예술단 활동을 장려하긴 하였으나 조직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음. 고려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고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부터 이루어짐. 물론 공연이나 극단 창단 등과 같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려면 당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했고 공연 내용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국가나 기관에서 조직을 선동한 것은 아님.
- 자발적인 예술 활동이기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전문예술단체나 아마추어예술단체 등이 모두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늘어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한국의 지원을 받는 일부 공연 조직만 유지되고 있음. 카자흐스

탄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고려인 경제가들의 지원과 한국으로부터의 지원도 늘어나면서 공연예술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고려인의 공연예술 활동 현황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공연예술 활동 관련 조직

- 우즈베키스탄의 공연예술 활동은 강제이주 후에 매우 활발하였음. 지방과 타슈켄트에 <고려극장>이 만들어졌고, 김병화, 폴릿단젤, 벡테미르 등 유명 집단농장에는 문화공전이 지어져서 소속 예술단들이 정기적인 공연을 가졌음. 1980년대 초까지 이들 집단농장은 매우 부유하여서 마을 하나가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정도였고, 그래서 직업적인 예술단에 대한 지원도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짐. 이들 집단농장의 공연단들은 구소련 전역과 북한 외에도 외국으로의 공연도 이루어질 정도였음.
-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집단농장의 경기가 악화되고, 고려인 거주민들의 수도 줄어들면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 조직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음. 이들 조직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현재 타슈켄트에서 소규모의 전문적인 공연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공연단의 규모가 10분의 1도 안됨.
- 고려인 공연단은 축소되었어도 소속 가수들이 독립하여 1인 공연을 하고 있고, 아마추어 공연단의 활동은 지역별로 지속되고 있음. 미술가들과 작가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한 편임.
- 아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등록된 고려인 문화단체인데,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아마추어 소인예술단들의 수는 3배 이상은 되리라고 추정됨.

<표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화예술단체 목록 및 활동 내용

	명칭	활동내역	대표자
1	고려문화협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전체 대표단체 지역별로 문화협회 분과를 만들었으며, 한민족의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대표성을 지니고 한국과 접촉하는 통로임	김 니콜라이
2	고려인 미술가협회	미술관련 단체, 고려문화협회 소속	신 이스크라
3	‘고려’	무용단체, 고려문화협회 소속	한 마르가리타
4	‘친선’	합창단, 고려문화협회 소속	이 로만
5	‘향복’	민요합창단	오 엘라
6	‘사랑’	타슈켄트 미로뱃구역의 민요합창단	장 옥사나
7	‘꽃봉오리’	어린이 무용단	주 라리사
8	‘황산’	타슈켄트 세르겔리 고려문화협회 소속 민요합창단	최 클라라
9	‘로토스’	타슈켄트 세르겔리 고려문화협회 소속 합창단	김 마야
10	‘임페리아’	타슈켄트 세르겔리 고려문화협회 소속 청년 가요 합창단	김 안나
11	‘안녕’	합창단. 청년 그룹과 어린이 그룹이 있음	정 빅토리아
12	‘모란봉’	무용단	

13	‘고려신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신문. 1997년 창간	김 부르트
14	‘친선’	고려인 TV프로그램. 1주일에 1시간 방송	박 마르가리타
15	김병화 박물관	김병화 콜호즈에 있는 김병화 기념 박물관.	
16	조명희 박물관	문학가 조명희 기념 박물관	박 릴라
17	나망간 고려문화협회	나망간주(州) 고려문화협회	이 라리사
18	‘아리랑’	나망간 고려문화협회 소속 민요합창단	허 에카테리나
19	페르가나 고려문화협회	페르가나주(州) 고려문화협회	양 빅토르
20	민족박물관	페르가나 고려문화협회 소속 고려인 관련 박물관	양 빅토르
21	‘진주’	페르가나 고려문화협회 소속 어린이무용단	김 엘레나
22	노인합창단	페르가나 고려문화협회 소속	
23	호레즘 고려문화협회	호레즘주(州) 고려문화협회	김 안토니나
24	민요합창단	호레즘 고려문화협회 소속	이 류드밀라
25	사마르칸드 고려문화협회	사마르칸드주(州) 고려문화협회	김 니콜라이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공연예술 활동 관련 조직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공연예술단체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것이 많음. <고려극장>(『고려일보』)의 경우 고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함. 구소련 시기 재능 있는 예인들은 <고려극장>으로 모여들어 민족예술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했음.
-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지역별 소인예술 활동이 활발하였고, 현재까지 아마추어 소인예술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도 독립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려인 예술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0년대 이후 경제부흥으로 현재는 현지 고려인들과 한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활동이 안정화되었음.

<표 2>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예술단체 목록 및 활동 내용

	명칭	활동내역	대표자
1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대표창구	김 로만
2	‘비단길’	합창단	박상원
3	창작가협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소속	
4	고려극장	1932년 연해주에서 설립되어 고려인 강제이주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에서 재조직됨. 현재까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함	이 류보브
5	사물놀이	고려극장 산하 단체	윤 게오르기
6	‘비둘기’	고려극장 소속 무용단	
7	고려일보	1923년 연해주에서 최초 발간됨.	박 미하일 외
8	‘우리 민족’	고려인 대상 TV 프로그램	최 엘라

9	한국어 라디오 방송	고려인들의 활동과 예술, 풍속,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됨	성 이리나
10	고려문화협회		팔라기나 라리사
11	알마티 고려민족센터		신 로니슬라브
12	제스카즈간 고려인협회	제스카즈간시(市)의 고려인협회	김 블라지미르
13	‘진달래’	합창 및 무용 공연단, 제스카즈간시 고려인협회 소속	김 블라지미르
14	사물놀이	제스카즈간시 고려인협회 소속	김 발렌티나
15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크즐오르다시(市)의 고려인협회	김 엘레나
16	‘알렉스’	무용학교	김 엘레나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고려인 공연예술 활동 관련 조직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구소련 시절에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인 수가 적었기에 눈에 띄는 전문예술가집단은 없었음.
- 다만 아마추어 소인예술활동은 이 지역에서도 활발하였다고 함.
- 현재 키르기스스탄에는 전문 공연집단은 부재하지만, 수도인 비쉬켅에서는 고려인 노인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악단이 연주를 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음. 연주되는 주요 레퍼토리는 과거에 인기 있었던 러시아 노래와 한국의 민요 및 가요.
-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해 고려인들이 거의 떠나 천여 명도 남지 않은 상태. 고려인협회가 존재하지만 거의 기능하지 못함. 민요를 부르는 아마추어 소인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음.

<표 3>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고려인 문화예술단체 목록 및 활동 내용

	명칭	활동내역	대표자
1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 대표단체	상 보리스(교체)
2	‘일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대상 신문	이 세르게이
3	‘만남’	키르기스스탄 어린이 무용단	이 타치야나
4	타지키스탄 고려인협회	타지키스탄의 고려인 대표 단체	김 빅토르

Ⅲ. ‘무형유산’ 자료로서의 <고려극장> 과 소인예술단

중국과 달리 구소련의 전문적인 예능단체는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등록한 후 활동해왔다. 현존하는 예능단체 중 구소련 시기에 상주건물이 있었던 곳은 <고려극장> 과 『고려일보』뿐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문화협회에는 산하단체로 무용단과 합창단, 화가협회 등이 있으나 역시 대부분의 자료는 개인소장하고 있다. 1932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서 깊은 <고려극장>의 자료는 디지털화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문화예술자료는 협회나 기관을 통하여 수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단체들을 파악하고, 이들 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추적하여 개인소장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개인소장 자료 수집의 시급성>

▶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장례를 치루면서 고인의 물건을 함께 매장하거나 태우는 풍습 남아있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소장 자료들이 사라지고 있음. 단체 소장 자료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가들의 구술사의 개인적인 소장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카자흐스탄국립 <고려극장> (www.kortheatre.kz)

- 80주년 창립행사를 가진 <고려극장>(1932~2012), 고려극장박물관 개장
- 『고려일보』 2012-9-28호 16면 전체를 고려극장 80주년 특집기사로 꾸밈
 - 주카자흐스탄 백주현 대사, 최유리 상원의원, 김로만 하원의원/고려인협회회장 등 축하인사문 게재



[그림 2] 고려극장박물관 전시실 (사진: 『고려일보』 2012-9-28 10면)

○ <고려극장> 80주년 창립행사, 2012년 9월28일



[그림 3] 카자흐스탄 문화부차관 이 류보피 고려극장장에 축하꽃다발 전달[좌] 기념식후 가진 <고려극장>의 역사를 한편 만든 유지켈 공연[우] (사진: 뉴시스)

○ 고려극장 한글현판식 및 물품기증식(2012.5.18.)

카자흐스탄국립고려극장은 오랫동안 전용극장 없이 지내오다 정상진, 고 박일 교수 등 고려인 지도자들의 오랜 청원운동 결과 지난 2002년 영화관이었던 현재의 건물을 카자흐스탄정부로부터 받아 사용해왔음. 극장 창립 80주년을 맞아 2012년 5월18일 LG전자의 후원으로 한글현판을 달게 되었으며 알마티지상사협의회(회장 : 강호섭)가 대형TV 등 물품을 기증.



[그림 4] 이 류보피 극장장과 배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고려극장 한글현판식(우)과 이후의 대형TV 등 물품기증식(좌)



[그림 5] 고려극장의 양반전(좌: '아리랑-1973'공연 (1973), 우: 2012년 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zwUAhaqz4cc&feature=plcp>)

□ 한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고려극장 및 고려인 관련 영상자료/ 2007년 수집

○ 카자흐스탄국립중앙문서보관소 [검색어 고려극장]

『고려극장 일꾼들의 예술활동 평가서, 1939년』 외 54개문서

자료유형 : subMicroFilm
정리번호 : 06박현정002435
등록번호 : MF0017052
제명 : 문서군1242, 시리즈1, 박스537a-고려 극장 일꾼들의 예술활동 평가서, 1939년 ; Ф.1242, Оп.1, Д.537a-Твор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рабо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연대 : 1939
소장처 : 카자흐스탄국립중앙문서보관소(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주기사항 : 수집번호 : 051400375, 소장국 : 카자흐스탄
등록번호 : MF0017052
제어번호 : 1301891

○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문서보관소 [검색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장 책임자와 알마아타주 공산당위원회 지도부의 고려인 극장의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왕복서한, 1943년』

서명/저자 : Переписки, связанная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и по мощью театру = 극장 책임자와 알마아타주 공산당위원회 지도부의 고려인 극장의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왕복서한.
판사항 : 복사본.
발행사항 :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7]
형태사항 : >8건 ; 39 cm.
해외수집자료
재외동포사편찬사업 수집자료
이민사자료(카자흐스탄 이주 관련 자료)
소장국 : 카자흐스탄, 소장처 :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문서보관소(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일반사항 : 수집번호 : 071400030, 파일명 : Ф. 8, Оп. 7, Д. 540 - Переписки, связанная с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и помощью театру (= 극장 책임자와 알마아타주 공산당위원회 지도부의 고려인 극장의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왕복서한), 수량 : 13장(1943)

○ 카자흐스탄국립영상물기록보존소 [검색어 카자흐스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1939-1992』 총 7편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5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81]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82]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83]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77]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2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78]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3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79] 열람가능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4 [국사편찬위원회], 2007. 사료관 [CO 322.9509 재66 v.280] 열람가능

자료유형 : 동양수집자료
서명 / 저자 : 카자흐스탄 고려인 영상물 : 1939-1992, [비디오 녹화자료], 3.
발행사항 :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7]
형태사항 : >비디오 테이프 1개 ; 19 mm
일반사항 : 비디오 녹화자료
 재외동포사편찬사업 수집자료
 이민사자료
 수집번호 : 051400308
 소장국 : 카자흐스탄, 소장처 : 카자흐스탄국립영상기록보존소, 자료제공자 : 임영삼

순번	등록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1	CO0000010480	해외수집자료실(사_B301호)	CO322.9509 재66 v.279	열람가능	

[그림 6] 국편 소장 고려극장 '아리랑' 양상불 공연자료/ 3번은 북한음악인들의 공연자료

○ 알마티 아바이명칭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북한음악가들의 연주회(1955)



[그림 7] 1955년 북한공연단(좌: 이광규-독창, 우: 나숙희-장검무) * 나숙희- 부카레스트 청년 및 대학생 국제페스티벌 콩쿨 입상자



[그림 8] 1955년 북한공연단(좌: 왕수복-아리랑 독창; 우: 안승희-장고춤) * 4개의 청년 및 대학생 국제페스티벌 참가자이자 북한의 가장 훌륭한 무용가

□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고려극장박물관) 소장 자료

- 2000년대 이후 촬영된 영상 자료 및 사진자료, 대본, 포스터 등 관련 자료가 1,500여 개 정도(추정치)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정확하게 분류되어 정리된 상태가 아님. 최근 개장한 고려극장박물관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조사할 필요. 다만, 고려극장의 중요자료는 대부분 이전의 관계자들이 개인소장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러시아어로 작성된 고려극장 회계 관련 자료들은 카작국립 문서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고 있으나, 공연과 관련된 대부분 한글로 작성된 자료는 고려극장에 직접 보관중이었음.

□ 고려극장(고려극장박물관)과 공식 협의 통해 자료교류 및 디지털화 사업 제안 가능

2. 우즈베키스탄 소인예술단과 자료

□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고려신문사, 친선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문화협회에는 산하단체로 무용단과 합창단 등이 있으나 역시 대부분의 자료는 개인소장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신문사에도 편집장의 개인 출판 도서와 기타 고려인 필자들의 출판 도서,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간행된 신문만 보관.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신문은 편집장이 개인적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음. 편집장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 간행된 신문의 모음집이 3질이 남아있지만, 전체가 아니라 몇 호가 누락되었다고 함.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TV 프로그램인 ‘친선’의 자료 또한 프로듀서가 개인 소장하고 있음. 하지만 그것도 2005년 이후부터이며, 이전의 방송은 남아있는 것이 없음. 프로듀서 또한 개인 소장의 전체 분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보관은 하고 있으나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가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함.

□ 우즈베키스탄의 기관 소속 주요 인물 추적을 통한 수집

- 구소련 시대의 카자흐스탄에는 고려극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인 집단농장 단위의 소인예술 활동이 타 지역보다 활발하지는 않았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 집단농장마다 소속 극단을 조직하고, 극장을 건설하여서 매우 활발한 창작활동을 진행함.
-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던 고려인 예술가들의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예술대학 출신이었고, 고려인 공동체도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발전하였기에 고려극장과 고려일보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 옮기자는 논의가 가끔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소비에트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해 무산됨.
-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집단농장과 풀릿단젤 집단농장의 공연단의 경우 구소련 시절 북한 의 대표단이 방문하면 반드시 공연관람을 하는 코스였음.

① 우즈베키스탄의 호레즘주(州) 구를렌 ‘고려극장’

- 1937년 11월 3일 창단됨. 춘향전이나 심청전 뿐 아니라 한국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연극을 많이 발표함. 호레즘주와 카라칼팍스탄의 고려인들이 많이 관람함. 연극공연 중 어휘적인 실수로 인해 극단책임자와 무대예술감독이 구속되기도 하였음. 1943년 타슈켄트의 고려극장과 통합함.

②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극장’

- 1938년에서 1950년까지 활동함. 최초에는 타슈켄트 주(州)의 키로브 집단농장에 위치했었으나 후에 벡테미르 지역의 건물로 이주함. 고려인으로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공훈 예술가의 칭호를 받은 이경희가 활동함. ‘흥부놀부’, ‘심청전’, ‘춘향전’의 전통극 외에 러시아와 우즈베크 작가의 작품도 공연함. 합창단과 무용단도 존재했으며, 중앙아시아 여러 곳으로 공연을 다님. 1950년에 카자흐스탄에 존재하던 우슈토베 고려극장과 통합되어 활동가들이 우슈토베로 이주했으며, 일부는 사할린으로 옮겨가 그곳에 고려극장을 건설함.

③ 우즈베키스탄 ‘가야금’

- 1969년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집단농장에서 창단되었음. 초기에는 가야금을 위주로 한 한국의 현악기 연주를 주로 공연하였으나 후에 오케스트라 및 가수, 희극, 연극, 발레 및 전통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 1984년 폴릿달젤의 예술단인 ‘청춘’과 통합하여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함. ‘가야금’ 출신의 가수 및 무용가들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가수 정 소피야, 신 갈리나, 발레리나 황정옥 등이 있음.

④ 우즈베키스탄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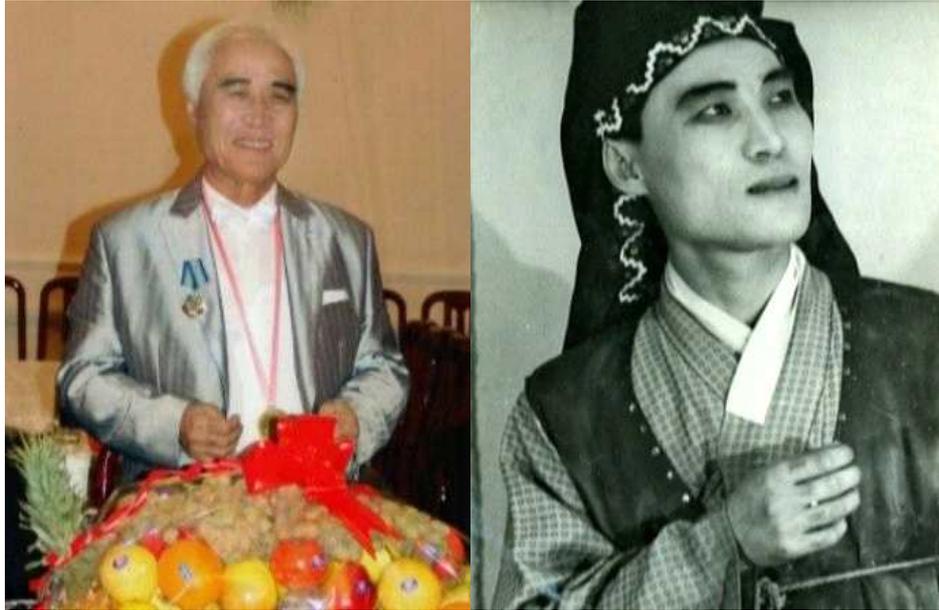
- 1971년 우즈베키스탄의 폴릿달젤 농장에서 창단됨. 처음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었었는데, 1976년부터는 발레단을 포함한 무용단도 활동함. 1984년 김병화 농장의 ‘가야금’과 통합하여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함. ‘가야금’과의 통합 이후 중앙아시아 각지에서 공연을 하였고, 러시아, 카프카즈, 미국, 북한, 한국 등 해외공연도 가졌음. 하지만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규모가 매우 축소되어 소규모의 무용단 활동만 유지되고 있음.

⑤ ‘진주’

- 우즈베키스탄의 폴릿달젤 집단농장의 어린이 예인단체. 70명의 어린이와 30여 명의 어른들이 모여 1984년 창단됨. 고려인 뿐 아니라 폴릿달젤의 타민족 어린이들도 함께 하여 한민족의 노래와 춤, 연극 등을 발표함. 구소련 내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으며, 북한과 한국 등에서도 공연. 현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소규모로 취미생활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 고려극장 및 타슈켄트 아리랑극장 배우 김성 및 청춘의 김 조야 등과 자료들
 - 고려극장 이몽룡 역을 맡았던 김성(2010년 작고) 등 최근 작고한 배우 및 아직 생존한 김 조야 등 전직 배우 및 그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고려극장 및 소인예술단 자료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2010년 작고한 김성과 배우시절의 모습
*자료를 장녀 동방대 교수 김빅토리아 소장하고 있다.

- 중앙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 생활의 생생한 당시 기록과 신문

- * [고려일보/레닌기치] 기사 DB 작업의 필요성과 가치(1938~2012)
- * [새고려신문/레닌의길] 기사 DB 작업의 필요성과 가치(1949~2012)

** 카자흐스탄국립 영상물기록보관소 소장 고려인관련 영상물 목록

- 알마티주 중등학교 우수교원 이 E. (1939)
크즐오르다주 칠린구역: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 만삼(1942)
크즐오르다주 칠린구역: 고려사람(韓人) 집단농장 아방가르드(선봉)
아방가르드(선봉) 집단농장 특집 (1946)
크즐오르다주 칠린구역: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 만삼(1948)
알마티: 크즐오르다주 집단농장장 김 만삼이 알마티에서 열린 농업전시회 및 농업영웅 보
고대회(1948년 12월 알마티)에 참석 (1948)
크즐오르다주: 도정공장 (1949)
크즐오르다-아방가르드 농장장, 벼농사전문가, 사회주의 노동영웅 김만삼(1950)
쿠스타나이주 밀 생산 공동농장장 박 모. (1952)
알마티를 방문한 북한 작가들(1954)
알마티 아바이명칭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북한음악가들의 연주회(1955)
알마티에서 열린 북한 및 소련 문화 및 예술계 종사자들의 만남(1955)
크즐오르다주: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최 단학 (1957)
'쿠스타나이' 집단농장 농장장 박 알렉산드르 안드레비치(1957)
프룬제(비쉬켄)에서 만난 카작스탄과 북한 농구 선수들(1958)
딸퓌꾸르간- 강 모.(농업 전문가)(1958)
알마티에서 열린 평양 및 알마티 축구팀의 만남(1959)
딸퓌꾸르간- 이 운호- 카라탈 강의 선장(1959)
쌀 재배 영웅 김만삼(1959)
카라간다에서 열린 카작스탄 전국 복싱대회에 참가한 김 N. (1959)
딸퓌꾸르간주: 카라탈구역 달리보스톡 집단농장 도정공장의 탈곡준비
농장장 사회주의노동영웅 신 행문(1960)
크즐오르다-'기간트' 콜호즈 농장장 김 모..(1960)
크즐오르다 기간트 콜호즈 김 에카테리나(1960)
딸퓌꾸르간주 카라탈구역의 탈곡준비, 도정공장장 사회주의노동영웅 신 행문(1960)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향해, 우즈벡-카자흐간 화물선 선장 이 도하 (1961)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1)
남카작스탄-이 니콜라이:'공산주의의 새벽' 콜호즈 기계화 작업단 기술 책임자(1962)
크즐오르다-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작스탄 설립 18년명칭' 집단농장장 박 대한(1962)
크즐오르다-'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농장장 김 승학(1963)
크즐오르다-'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지도원 김 알렉세이(1963)
쿠스타나이 첼린느이 지역 축산 농장 전 농장장 박 알렉세이 안드레비치(1963)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3)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화물선 선장 이 도하 (1963)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4)
알마티: 건축엔지니어 최 야곱 P. (1964)
크즐오르다: 카자흐공화국 인민배우 김 진 데뷔 30년 축하 (1964)
카자흐공화국 인민 배우 김 단(1964)

켈타우: 수영대회 우승자 최 M. (1965)
 공업 엔지니어 최 유리 알렉세이비치(1965)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5)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6)
 체르다라-체르다라 건설사업소 책임자 태 게르만(1967)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7)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8)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69)
 딸띠꾸르간-‘10월혁명 40주년’ 콜호즈 농사전문가 전 모.(1970)
 땅과 과학-농업과학자 황 A. I. (1970)
 고려사람 앙상블 ‘아리랑’ 및 고려극장 손 게오르기의 알마티 연주회 (1970)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70)
 고려(韓人)극장 연주회 및 ‘아리랑-1973’공연 (1973)
 아시아음악포럼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1973)
 알마티에서 열린 알마티 카이라트 축구팀과 북한 압록강 축구팀의 경기(1973)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73)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재무부장관 김 일리야 L. (1974)
 칩켄트-체조선수 넬리 김의 훈련(1975)-2회
 체조선수 넬리 김이 쿠나예프 카자흐 공산당 제1서기를 만남(1976)
 알마티: 고려(韓人)극장 성악가 김 블라지미르(2회분) (1977)
 한인음악 연주회 - 카작국영TV 방영(1978)
 우슈토베 및 딸띠꾸르간 지역의 쌀 생산자 회의(1981)
 알마티-소련 공훈 트레이너 최 유리(1984)
 콕체타우 지역 공동농장 농장장 김 A. A.(1985)
 강제이주민족 탄압기1938-1948 돌린카(마을)의 운영, 최 E. P.의 회상기(4회분)(1990)
 최 필무의 가족(1990)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수집 성과에 대하여

이복규(서경대)

- I. 머리말
- II. 제 1차 수집분의 조사 경위 및 조사 과정
- III.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존재양상
 - 1.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목록
 - 2.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유형
- IV.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특징
 - 1. 유형상의 특징
 - 2. 새로운 각편들
- V. 제1차 수집분과 제2차 수집분의 비교
- VI. 맺음말: 1·2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의의

I. 머리말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몇몇 학자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¹⁾ 고려인이 일구어 온 문학 및 문학사에 대해서도 접근이 이루어졌으며,²⁾ 최근 들어 구전민요에 대해서도 연구와 함께 자료까지 소상하게 소개된 바 있다.³⁾

하지만 고려인의 구전설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일이 없다.⁴⁾ 이는 중국 조선족이나 재일 교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의 구전문학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집과 함께 단행본과 논문 성과도 나왔고, 재일 한국인의 구전설화에 대해서도 그 전승 양상 변경 상황까지 보고되어 있다.⁵⁾

- 1)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까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전경수,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출판부, 2002; 중앙아시아 한인동포의 이주사와 생활문화, 재외 한인동포 이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민속박물관·한국 문화인류학회, 2005; 임영상·황영삼,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소련 해체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 2)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이명재,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한국문화사, 2004); 장사선,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월인, 2005).
- 3) 정추 교수 채록 소비에트시대 고려인의 노래 1. 2. 3(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김보희,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 소인예술단의 음악활동(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정추 교수의 자료집에는 잡가, 민요, 신민요, 창가, 유행창가, 유행가, 창작가요 등, 정 교수가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1959년부터 1970년도까지 수집한 무려 1,068곡의 가사 및 채보가 실려 있다.
- 4) 고려인 구전민요를 수집해 보고한 정추 교수와 면담한 자리(2006. 5. 3 및 6. 2, 알마티 이복규 임시거처)에서, 왜 구전민요만 채록하고 구전설화는 채록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때는 생각도 미치지 못했거니와, 여러 여건상 노래를 수집하기에도 벅했다고 했다. 김보희 씨의 경우에도, 내가 조사한 이소냐 할머니의 노래와 노래책을 입수해 연구하고 소개하면서도 그분의 구전설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2006. 1. 24., 김보희 씨 자택).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라 하겠다.
- 5) 김선풍 편, 조선족구비문학총서 1~13(민속원, 1991); 김화경, 「재일 교포의 민속 변용에 관한 연구-특히 설화의 변경 실태를 중심으로 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6(한국구비문학회, 1998), 1~20쪽;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서사문학 연구(박이정, 2005).

그러다가 발표자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집이 학계에 보고되었다.⁶⁾ 이제 발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제1차 수집분’으로 명명)와 최근 CIS 고려인사회와 무형문화유산 연구팀에 의해 새로 수집된 자료(‘제2차 수집분’)를 비교하면서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제 1차 수집분의 조사 경위 및 조사 과정

2005년 1월, 강남대 카자흐스탄학과 김필영 교수와 대화하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구전민요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전설화도 있을 것이라 짐작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21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거점으로 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를 채록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 채록을 위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5년 7월 21에서 8월 15일까지(21일간) 여름방학을 이용한 사, 이듬해에 연구년 및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혜택을 받아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주하면서 이루어진 조사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암중모색이었다. 어디 가야 구전설화를 구연할 만한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 그랬다. 다행히 알마티감리교회에 고려인 노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한곳에 모신 후 준비해 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자, 나도 그런 이야기 안다며 손을 들어 구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한 유능한 제보자들을 일일이 가정으로 찾아가 조사하여 모두 61편의 설화를 조사하였고, 그 밖에 김아나톨리가 러시아로 발표한 자료 29편을 합해 모두 90편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III.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존재양상

1.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목록

내가 직접 채록한 것(61편)과 김아나톨리가 러시아로 발표한 것(29편)을 합하여 총 90편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를 채록순서에 따라 제보자별로 목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 이야기인 것이 분명한 것, 지극히 파편적이어서 이야기로서의 형식을 지니지 못한 것 등은 제외하였으며, 실화에서 유래하였더라도 제보자가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거나 설화적 짜임새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포함하였다.

- 1) 이소냐(이소피아) 할머니 구연 자료 : (1) 너도 토기장사하러 왔다 쫓겨왔니? (2) 부부 낮거리 (3) 남편 성행위 교육
- 2) 리따냐(리따치아나) 할머니 구연 자료: (1) 어머니를 용서한 형제 (2) 삼 개러 간 세 친구

6)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집문당, 2008).

- (3) 가난한 집의 아내를 탐낸 부자 (4) 이 주먹이 누구 거요? (5) 불효자 이야기
- 3) 양노라 할머니 구연 자료: (1) 꼬부랑 강아지 (2) 아버님은 좃이가 되세요
- 4) 박리자 할머니 구연 자료: (1)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 '고뽀'
- 5) 한철주 할머니 구연 자료: (1) 아리랑 전설 (2) 우애 좋은 형제 (3) 잣이오(김선달이야기)
- (4) 새 좀 치마로 덮어 주오(김선달이야기) (5) '申'자, '辛'자 파자풀이 (6) 누가 더 무서운가?
(7) 하고 나서 씻개(김삿갓이야기)
- 6) 신뽀뜨르 할아버지 구연 자료: (1) <여자에게 비밀 말하지 마라> (2) 기구한 운명-모자간의 근친상간 (3) 행실 나쁜 아내 버릇 고치기(러시아 설화)
- 7) 문선진 할아버지 구연 자료: (1) 김삿갓이야기 1 (2) 김삿갓이야기 2 (3) 도깨비 이야기 1
(4)도깨비 이야기 2 (5) 도깨비 이야기 3 (6) 제삿날 집 찾아온 처녀 혼령 (7) 제삿날 집 찾아온 부인 혼령 (8) 호식당할 운명 벗어나 잘 산 아이 (9) 침략자 일본 왕을 죽인 기생 (10) 여자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마라
- 8) 김엘레나 할머니 구연 자료: (1) 제삿날 집 찾아온 처녀 혼령
- 9) 안예까지리나 할머니 구연 자료: (1) 부자와 가난뱅이
- 10) 강엘리자 할머니 구연 자료: (1) 고려장 이야기 2 : 도로 어머니 데려온 아들 (2) 고려장 이야기 2 : 고려장 사라진 유래
- 11) 박소냐 할머니 구연 자료: (1) 흥부와 놀부
- 12) 리스타스 씨 구연 자료: (1) 돈으로도 못 사는 행복 (2) 살았을 때는 뼈가 701개었는데
(3) 면목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네 (4) 이순신을 태웠던 말
- 13) 리정숙 할머니 구연 자료: (1) 아기장수 이야기 (2) 여러 가지 장수들 54 (3) 집 이사하라고 알려준 집신령 (4) 의붓어머니가 다리 절게 된 까닭
- 14) 안블라디미르 씨 구연 자료: (1) 부모 동침 못하게 하는 아이들
- 15) 박그리고리 할아버지 구연 자료: (1) 건더기는 없이 물만 남기다니
- 16) 김옥순 할머니 구연 자료: (1) 동자 산삼 (2) 꿈대로 하여 금을 얻은 효자 (3) 흥부와 놀부
(4) 죽지 않는 장수
- 17) 주라이사 할머니 구연 자료: (1) 고려장 이야기
- 18) 유라이사 할머니 구연 자료: (1) 여자는 밖에서 집안 말 마라 (2) 호랑이 물리친 며느리
(3) 고양이 있습니까 (4) 오줌 누게 마차를 멈춰라 (5) 아지매요
- 19) 김로자 할머니 구연 자료: (1) 마약에 중독된 남편(실화) (2) 유리창 들이받은 아버지(실화)
(3) 딸은 남 (4) 교회 나가게 된 내력(실화) (5) 며느리 이야기
- 20) 김아나톨리 조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구전설화...<개 워리> 등 총 29편: (1) 화재 (2) 독수리 도움을 받아 장가들다 (3) 개 워리 (4) 귀신 사는 집 (5) 김선달이야기(1): 학동들을 먹여주기 (6) 김선달이야기(2): 서로 농담 주고받기 (7) 김선달이야기(3): 귀중한 충고 (8) 김선달이야기(4): 쓸쓸한 강산의 인적 드문 곳에서 (9) 김선달이야기(5): 한양 사람 혼내주기 (10) 김선달이야기(6): 송장 살리기 (11) 김선달이야기(7): 상인을 도와주기 (12) 김선달이야기(8): 대동강 팔아먹기 (13) 김선달이야기(9): 거짓말에 대한 대가 (14) 김선달이야기(10): 가족 (15) 운명 (16) 또 운명 (17) 자기 스스로 (18) 장사의 여동생 (19) 유령의 집 (20) 바둑 좋아하는 사람의 아들 (21) 우둔한 상관, 현명한 상관 (22) 옥루에서의 은둔 생활 (23) 며느리의 효도 (24) 멸망당한 집안 (25) 여사의 모험 (26) 마법사 정우친 (27) 게으름뱅이 아내 (28) 소금장수의 모험 (29) 김삿갓이야기: 이 불 끄고

2.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유형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 11(이길 만해서 이기기): 2편
- 12(이길 만한데 지기): 1편
- 13(질 만한데 이기기): 0편
- 14(질 만해서 지기): 1편 소계 4편(4.4%)

- 21(알 만해서 알기): 2편
- 22(알 만한데 모르기): 3편
- 23(모를 만한데 알기): 3편
- 24(모를 만해서 모르기): 3편 소계 11편(12.2%)

- 31(속일 만해서 속이기): 12편
- 32(속일 만한데 속기): 1편
- 33(속을 만한데 속이기): 0편
- 34(속을 만해서 속기): 0편 소계 13편(14.4%)

- 41(바를 만해서 바르기): 7편
- 42(바를 만한데 그르기): 4편
- 43(그를 만한데 바르기): 9편
- 44(그를 만해서 그르기): 19편 소계 39편(43.3%)

- 51(움직일 만해서 움직이기): 0편
- 52(움직일 만한데 멈추기): 0편
- 53(멈출 만한데 움직이기): 0편
- 54(멈출 만해서 멈추기): 0편 소계 0편(0%)

- 61(올 만해서 오기): 0편
- 62(올 만한데 오기): 2편
- 63(갈 만한데 오기): 3편
- 64(갈 만해서 가기): 3편 소계 8편(9%)

- 71(잘될 만해서 잘되기): 2편
- 72(잘될 만한데 못되기): 5편
- 73(못될 만한데 잘되기): 3편
- 74(못될 만해서 못되기): 3편 소계 13편(14.4%)

- 81(이을 만해서 잇기): 0편
- 82(이을 만한데 자르기): 0편

7) 조동일 교수의 지휘 아래 마련된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음.

83(자를 만한테 잇기): 1편
 84(자를 만해서 자르기): 1편 소계 2편(2.2%)
 총계 90편(100%)

IV. 제 1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특징

1. 유형상의 특징

첫째, 5번(움직이고 멈추기: 자연물, 인공물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전무하다. 20여 명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90편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절대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에서 유독 5번 유형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번에 대부분의 지명전설이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향을 떠나 이방에 떨구어져 살아온, 부평초 같은 고려인들이 5번 유형의 설화를 구연하지 못하거나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설령 어린 시절에 들었다 해도, 그 현장을 나날이 보고 느껴야만 해당 전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전승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의식 속에서, 지명전설을 비롯한 5번 유형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잊혀져 간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24번(모를 만해서 모르기)에 속하는 자료 가운데, 현대적 유머로서, 러시아어 환경에 놓인 고려인들이, 러시아를 잘 모르거나 고려말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 자료들이 보인다. 유라이사 알렉산드로브나 할머니가 제보한 <고양이 있습니까>⁸⁾, <오줌 누게 마차를 멈춰라>⁹⁾, <아지매요>¹⁰⁾ 등의 자료가 그것이다. 디아스포라 일반이 직면할 수 있는 언어

8) <고양이 있습니까> 전문.

고려말을 잘 모르는 2세대 애깁니다.

“고양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네, 고향이 크졸오르다입니다.”

라고 하더래요.(웃음)

그렇게 서로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고향’, ‘고양’. 2세대 중에서도 할머니나 부모들한테 고려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잘 몰라서 탄 소리 하는 거예요. 고려인들끼리도.

9) <오줌 누게 마차를 멈춰라> 전문.

할머니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오줌 마려우니까, 마부한테 말을 해 야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쨈레자(마차), 똑뚜그르(마차 서는 소리) 바다(물) 수르르(오줌 누는 소리)”

그 사람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니까, “마차 세워라, 오줌이 수르르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세워주더래요. (웃음) 그래서 오줌 냈대요.

10) <아지매요> 전문.

여기(러시아)서는 이름을 붙일 때, 성, 이름(혹은 이름, 성), 아버지 이름, 이런 식인데, 한국 사람에게는 아버지 이름 부분(오체스트바)이 없잖아요? ‘최 류드밀라 바실리에브나’에서 맨끝은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바실리에의 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패스포트를 만들 때,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요.

그런데 전정통에, 어떤 아줌마가 패스포트를 만드는데,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받아 적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받아 적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 순서인데 모르고 다른 데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아지매요! 아지매요!”

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받아 적는 사람이, 그 ‘아지매요’가 아버지 이름인 줄 알고 그

불통 문제를 실감하게 하며, 그 상황을 기지로 극복하며 살아온 고려인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고양이 있습니까>는 디아스포라 2세의 모국어 구사능력 저하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이들 유머들은 분단 이후 북한 구전설화¹¹⁾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어쩌면 그 어떤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한 시기 특정 사회의 실상과 이면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이 4번(바르고 그르기), 선과 악, 윤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유형으로서 무려 43.3%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조동일 교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를 대상으로 유형분류한 결과와 비슷하여, 설화 전승에서, 우리 민족이 ‘바르고 그르기’를 따지는 선악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¹²⁾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하겠다.

2. 새로운 각편들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에는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거나 드문 각편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에 눈이 멀어, 친아들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어머니를 용서하는 아들 형제의 이야기가 그것이다(<어머니를 용서한 형제>). 국내에서는, 계모나 친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친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겨내고 잘 살게 된 아들 형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모셔다 잘 살게 되었다는 진행과정과 결말처리는 아름답고 눈물겹다. 이 이야기의 서사단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한 고을의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어, 총각 독선생을 들여 가르치게 하였다.② 부잣집 주인 영감은 죽고, 그 부인이 총각 독선생과 눈이 맞았다.③ 부잣집 재산이 탐이 난 독선생이, 형제를 없애라고 형제의 어머니에게 요구하였다.④ 어머니는 동네 포수를 불러 형제를 은밀하게 없애달라고 부탁하였다.⑤ 형제가 서로 먼저 앞에 서서 총을 맞겠다고 하는 모습을 본 포수가 형제를 달아나게 하였다.⑥ 함께 다니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동짓날 밤에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⑦ 형은 부잣집 독선생 겸 수양아들이 되어 잘 살았으나, 동생은 가난한 집에서 머슴처럼 고생하며 지냈다.⑧ 형 만나기만을 고대하며 동짓날 동생이 그곳에 가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무서운 마음에 땅을 파다가 되돌아갔다.⑨ 잘 살던 형은 동짓날 약속을 잊은 채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깨닫고 달려갔으나, 핏자국이 있는 구덩이만 보였다.⑩ 형은 주인에게 동생 이야기를 하여 동생을 찾아 만나 함께 그 집에서 잘 지냈다.⑪ 어머니의 형편이 궁금해진 형이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니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혼자 살고 있었다.⑫ 형제는 어머니의 악행을 숨긴 채, 주인에게 사정하여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잘 지냈다.

둘째, <이순신을 태우고 다닌 말> 이야기도 새로운 각편으로 보인다. 이순신을 태우고 다니던 백마가, 이순신 사후에 밭을 가는 신세가 되었고, 양반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늘그막에 팔자가 뭐가 좋은가? 나는 잘 먹고 물도 깨끗한 것 마시고 양반 싹고 다닌다”며 자랑하자, “짧지만 영웅 싣는 게 행복이지, 죽을 때까지 매일 똥 싹고 다니는 게 무

대로 받아쓴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패스पोर्ट를 보면 “김나탈라 아지매요”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웃음)

11) 김기창·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민속원, 2005), 18쪽 참고.

12) 조동일, 「구전설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집문당, 1996), 167쪽.

순 행복이나?”고 했다는 짝막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당시의 양반을 더러운 똥으로 비유한 대단히 풍자적인 이야기이면서, 시인으로서의 긍지와 금도를 지키며 고고하게 살아가는, 제보자 리스타스의 자세와 대응되는 각편으로서 주목된다.

V. 제1차 수집분과 제2차 수집분의 비교

발표자가 조사한 이후, 연구팀에 의해 최근에 추가로 조사된 중앙아시아 구전설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박이반(82) 할아버지 구연설화 : (1) 봉이 김선달 (2)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고(음담) (3) 아리랑의 유래(음담패설 : 이상한 모습으로 호랑이 물리치기) (4) 가족 침을 놓은 사람 (5) 어린 신랑의 기지 (6) 계에게 중요한 곳을 물린 여자 (7) 어부와 용녀 (8) 달래강 전설 (9) 내복에 먹고 산다. (10) 건망증이 심한 사람 (11) 카자흐스탄의 보쌘 (12) 간나 새끼 (13) 밤마다 곧 뺨은 사람이 들어와 못나오고 (14) 내 밥을 먹고 남의 X 하네
- 2) 정 루드밀라(76)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2) 귀신이 된 어머니 (3) 귀신을 실어다 준 택시기사 (4) 귀랑이 색이 없어(상사뱀) (5) 도깨비의 정체
- 3) 천 미카엘 다시오미치(87세) 할아버지의 구연설화 : (1) 옛날이야기 구연상황 (2) 김만삼의 일화
- 4) 임 로자(86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꼬마신랑 (2) 효불교 다리
- 5) 김계르만 교수의 구연설화 : (1) 알람시계 (2) 박박티이 유래
- 6) 김베라(79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호랑이와 머리 쓰다듬기 (2) 시집살이 (3) 어린 신랑의 기지 (4) 방구 소동 (5) 묘지를 잘못 쓴 아들의 꿈 (6) 저승 갔다 온 사람 (7) 심청전 (8) 춘향전 (9) 아내의 버릇을 고친 신랑
- 7) 유 알렉산드리아(80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아기장사 (2)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 8) 김베라·유알렉산드리아 : (1) 어머니 병을 고친 동자삼 (2) 택시 타고 온 귀신 (3) 소금장수의 일화 (4) 흥부와 놀부
- 9) 나 발렌틴(78세) 할아버지의 구연설화 : (1) 심청전 (2) 흥부전 (3) 춘향전 (4) 국시 먹이기가 없어진 유래 (5) 상세를 서로 미루는 조카들 (6)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1 (7)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2 (8) 배를 찾아온 지혜 있는 아들 (9) 내 덕에 산다 (10)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달은 흥범도
- 10) 강지안나(옥순, 89세) 할머니의 구전설화 : (1) 성냥을 무서워하는 늑대와 호랑이
- 11) 강 지안나(옥순 89세)·강 일레라(75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흥부전 (2) 일만 시키는 계모
- 12) 박 솔로라(68세) 할아버지의 구연설화 : (1) 쌀독에 앉아있는 업구렁이
- 13) 손 안나(73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상사뱀 (2) 우시가 없어진 유래 14) 리 갈리나(74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상사뱀의 퇴치
- 15) ****(**영순 : 83세) 할아버지의 구연설화 : (1) 소학령의 유래 (2) 조선인의 식사법 (3) 바보신랑(사돈 집에서 문상을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대로 하라고 하자, 똥을 썰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4) 자린고비 (5) 총을 잘 놓은 흥범도 (6) 바다를 팔아먹은 김삿갓 (7) 공작새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8) 밀양 아랑의 전설 (9) 제사와 혼령
- 16) 김 리자(75세) 할머니의 구연설화 : (1) 꿈에 금을 받고 태어난 아들

제1차 수집분과 새로 얻어진 제2차 수집분의 목록을 비교하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수집분의 총량이 90편이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구연한 그대로 채록한 것은 61편이었는데, 제2차 수집분에서는 구연 채록본만 67편으로서, 자료의 절대 수가 두 배로 늘었다.

둘째, 제1차 조사시의 구연자가 19(남성 5, 여성 14)인이었는데, 제2차 조사시의 구연자가 18인(남성 6, 여성 12)으로서 두 배로 늘었다. 더욱이 모두 새로운 구연자를 발굴해 내었다는 점에도 진전이다.

셋째, 수집된 설화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1(이기고 지기) 2편(2%), 2(알고 모르기) 7편(10%), 3(속이고 속기) 2편(2%), 4(바르고 그르기) 21편(31%), 5(움직이고 멈추기) 2편(2%), 6(오고 가기) 13편(19%), 7(잘되고 못되기) 15편(22%), 8(잇고 자르기) 0편(0%)인데, 제1차 수집분과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 제1차 수집분에서는 5번 유형이 발견되지 않았던 데 비해 2편이 조사되어 우선 주목된다. 비록 러시아 원동지역 또는 중앙아시아 현지의 지역과 관련된 전설이라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전설과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고려인들도 지명유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새롭게 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성과라 하겠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이 제1차 수집분에서 4번(43.3%)이었는데, 제2차 수집분에서도 4번이 가장 높은 비중(31%)을 보여 주어, 한민족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하겠다.

넷째, 수집된 구전설화의 내용 면에서, 제1차 때에는 조사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흥범도 이야기와 김만삼 이야기 등 고려인 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들과 관련된 인물전설도 새로운 자료이며, 달래강 전설, 아랑의 전설, 자린고비, 바보 신랑, 공작새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고려인이 살았던 지역 관련 지명전설(소학령의 유래, 박박티이 유래), 어부와 용녀, 바보 이야기, 어린 신랑, 상사뱀, 민속관련 이야기(쌀독에 앉아 있는 업구령이) 등이 그것이다. 사실담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아울러 확인되는 특징이다. 성냥을 무서워하는 늑대와 호랑이를 비롯하여, 알람시계 등이 그 사례이다. 전통 구전설화의 전승이 약화되는 대신 사실담 또는 경험담이 그 공백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현지조사의 현실인데,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다섯째, 제1차 수집분에서 조사한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제2차 조사에서도 채록되었다. 고려장 이야기, 내 덕에 산다, 음담패설, 귀신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효행설화(동자삼, 아내의 버릇을 고친 신랑 등, 효불효교), 호랑이 이야기, 춘향전, 흥부전 등의 고소설의 내용을 이야기로 구연한 것, 아기장수 전설, 지혜담(배를 찾아온 지혜있는 아들)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귀신, 도깨비 이야기가 전승되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데올로기보다 전통문화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하겠다. 고려장 이야기, 내 덕에 산다 등의 이야기가 인기 레파토리인 이유는, 어쩌면 국가로부터 버림을 당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고려인들의 특별한 체험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섯째, 기억력의 감퇴 및 구연 능력의 저하에 따른 텍스트의 변이 현상이 확인된다. 11번 자료를 강 지안나(옥순 89세)와 강 일레라(75세) 할머니가 공동으로 구연한 것이 그 한 사례인데, 이는 처음에 구연을 시작한 이의 구연능력이 시원치 않을 경우, 옆에 있던 청중이 개입해 구연을 이어가고, 그 구연을 듣던 원 제보자가 기억이 떠올라 다시 개입해 그 다음을 이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령에 따른 기억력 감퇴와 함께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설화를 구연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결과라 해석된다. 호랑이와 머리 쓰다듬기 등 이

아기로서의 완결성이 없는 경우가 여럿 있다. 아기장수 전설의 심한 변형, 심청전과 춘향전, 춘향전과 아랑의 전설을 혼동하는 등의 사례도 이에 속하는데, 이야기 수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VI. 맺음말: 1·2차 수집분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의 의의

첫째, 그간 수집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는 제1차 수집분이 90편, 제2차 수집분이 67편으로서, 도합 147편이다. 한반도의 구전설화와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지명전설이 아주 드물다는 점이다. 있더라도 한반도가 아닌 현지의 지명과 관련된 전설만 존재한다. 다른 설화와 달리 전설은 증거물을 보면서 기억하고 전승하는 갈래이기에, 한반도를 떠나 살면서 자연스럽게 망각해 간 것으로 여겨지며, 그 대신 현지화하면서 현지 관련 지명전설이 새롭게 전승된다 하겠다. 한반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머니를 용서한 아들’ 이야기를 비롯한 일련의 이야기에서는 고려인 특유의 ‘버려짐’ 또는 ‘제거당하기’란 트라우마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 같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대상을 용서하겠다는 포용의 정신은 여러 가지 모습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높은 정신 자세가 아닐까 한다. 한편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이,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단연 4번(바르고 쓰기) 유형이라는 점에서, 한민족으로서의 가치관적 공통점을 확인하게 한다(특유의 자료인 <이순신을 태웠던 말> 이야기에서도 그런 지향을 보여주고 있음). 그간 수집된 147편 설화 자료 하나 하나가 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반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계속 연구해 평가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구전설화를 기억하여 구연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 제1차와 제2차에 걸쳐 조사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구전설화는, 다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미 여러 자료에서, 기억력의 감퇴와 구연기회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구연능력의 쇠퇴로 텍스트에 변형과 혼동이 생긴다든지, 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기억을 되살려 겨우 구연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셋째, 신산한 삶을 살아온 고려인에게, 구전설화는 우리말, 우리 가치관, 우리 문화를 은연중에 계승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박박티에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온 고려인 2세(60대)가, 우리말을 구사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고려말을 깨쳤다고 한 데서 암시받을 수 있듯이, 이야기판에서 우리말로 구연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말과 우리 정신을 확인케 하며 이어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귀신담이나 도깨비담을 비롯해 ‘업 구렁이’ 이야기를 비롯해, <춘향전>·<심청전>·<흥부전>을 원천으로 한 이야기 등이 여전히 전승되는 점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무관하게 전통 문화가 이야기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남북한 및 해외를 망라하는 한민족의 문화적 통합과 교류에 기대를 가지게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는 표준 한국어로 구연하지 않고, 고려말로 구연함으로써, 우리말 방언 연구의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강현모 · 이병조(한양대 · 한국외대)

- I.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와 역사문화유산
- II.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양상
 - 1. 조사 개요
 - 1) 조사 지역과 기간
 - 2) 제보자의 구성과 현황
 - 2. 조사 결과
 - 1)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4) 구전전통 및 표현
 -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2)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
 -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4) 구전전통 및 표현
 -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III.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계승 방안 및 제언

I.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와 역사문화유산

1860년대 초 조선 북부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한인(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이래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다. 2014년이면 어느덧 독립국가연합 고려인¹⁾ 사회가 이주 150년을 맞이한다. 러시아 주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작은 하나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치부될 수 있지만

1) 고려인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사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후부터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이주를 전후하여 '한인'과 '고려인'으로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인의 대부분이 과거 고구려가 위치했던 한반도 이북 지역 출신 이고(사할린 한인 제외), 또 한때 한반도가 고려(COREA)로 불렸던 것에 기인해서 오늘날 스스로를 '고려인', '고려사람'이라 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할린의 한민족은 '고려인' 대신에 '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독립국가연합 내의 한민족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고려인'으로, 사할린 한민족의 경우에는 '한인'으로 지칭하고 표기할 것이다.

고려인의 역사는 독립국가연합(CIS) 내에서 짧지만 굵은 족적들을 남겨왔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고려인들의 역사는 크게 4개의 거주 공간과 시기 - ①극동(1864-1937, 연해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할린주 등), ②중앙아시아(1937-5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③유라시아(1953-91, 과거 소련 전역), ④독립국가연합(1992-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포함 독립국가연합 전역) - 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 하지만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이주개척의 역사는 끊임없는 유랑의 역사로 점철된 채 이어져 왔다. 이는 유사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고 안정된 집거지를 구축해 온 중국 조선족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랑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고려인 이주개척사의 슬픈 단면은 1860년대 이주 초기 이래 규모는 다르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한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것’, 즉 유무형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간직해 왔다는 점에서 위대한 한민족의 후예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약 150년의 세월 동안 고려인들은 거주 공간과 시기별로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세시풍습과 전통,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생산해 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려인 사회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민족의식을 보존 및 계승해 나가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형성의 1단계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시작되었다. 1860년대 이주 초기부터 1937년 강제이주 이전의 극동거주 시기 동안 고려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재이주정책에 의한 불안정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우수성을 입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을 생산해 나갔다. 즉, 고려인들은 농업개척과 1910년을 전후한 의병 및 빨치산투쟁(내전기, 1918-22)을 통해서 한민족의 근면성과 농업적 우수성, 극동의 권력수호를 위한 헌신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1922년 소련의 결성 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콜호즈 조직을 통해 러시아 주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언론활동(『해조신문』(1908), 『대동공보』(1908-10), 『권업신문』(1912-14), 『선봉』(1923-1937) 등), 예술문화활동(한인극장/1932, ‘고려극장’의 전신), 교육활동(한민학교, 명동학교, 제9호모범중학교/1924, 조선사범전문학교/1924, 고려사범대학/1931 등) 등의 활동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생산해 나갔던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시기에는 고려인 사회에서 한민족적인 전통문화들, 특히 구전전통과 식문화·세시풍속, 통과례, 전통적 놀이·축제 등의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선명하게 지켜지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다. 그밖에도 그에 따른 유형의 문화유산들(농기구, 디딜방아, 맷돌, 우물, 떡구시와 떡메, 키, 체 등)이 고려인 사회에 한민족적인 정체성을 더해 주었다. 해당 시기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유무형의 정보는 이주 2세대 고려인들과 현지 기록보존소의 자료실과 연구소, 학술도서관, 그리고 과거의 집거지 내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이주 정책은 고려인의 집거지를 중앙아시아로 송두리째 옮겨놓았다. 중앙아시아 거주시기에 고려인들은 거주 제한의 법적인 제약 속에서도 생존투쟁과 더불어 한민족의 정신을 유지해 나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주 직후부터 고려인 사회는 콜호즈 재건과 농·축산업(벼, 목화, 기타 작물, 가축 등)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생산성을 이루어 내었다. 1928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농업집단화와 국유화 정책으로 소련 전역은

2) 고려인의 이주개척사 시기 구분은, 박 보리스, 부가이 니콜라이 저. 김광한, 이백용 옮김. 2004.『러시아에서의 140년간』.서울 :시대정신; 김계르만. 2005. 『한인 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http://kosa.culturecontent.com> (스토리뱅크-원형스토리-1~4시기 참고), 2012/11/05일 검색)을 참조했음.

이미 콜호즈 체제로 생활권역이 재편되어 오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들의 삶 또한 콜호즈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갔다. 콜호즈는 고려인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행정단위가 아닌 생존 근거지인 경제공동체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려인 사회는 거주제한과 ‘불온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차별의 하에서도 콜호즈 중심의 눈부신 농업활동을 통해 2차대전시기 후방지원의 선봉역할을 했다. 나아가 ‘불온한 민족’의 딱지를 떼고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며 중앙아시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나갔다. 콜호즈 중심의 생활 속에서 고려인 사회는 극동에서처럼 구전전통과 식문화, 세시풍속, 통과 의례, 전통적 놀이, 축제 등의 전통문화유산들을 계승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언론활동(『레닌기치』(1938-91)-‘1923년 창간된『선봉』’의 후신)과 예술활동(고려극장(1938-현재), 1932년 조직된 ‘조선극장’의 후신), 아리랑가무단-순회공연예술단, 소인예술단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적 전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갔다. 이러한 토대는 이후 펼쳐지는 1950-80년대의 삶 속에서 큰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당 시기에는 대륙의 고려인 사회 외에 사할린 주에도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사할린에 한민족(한인)이 등장한 것은 1870년대 경부터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은 1941-45년시기 일본의 강제동원(모집, 알선, 징용)에 의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주되어 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이주 시기나 출신(주로 남한 출신) 측면에서 대륙의 고려인 사회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3-4만명 규모였던 사할린 주 한인 사회는 현재 한인 1세대들의 영주귀국으로 대략 약 25,000명 정도가 남아있다.³⁾ 전통문화의 현상과 계승적인 측면에서 고려인 사회의 그것과 부분적인 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사할린 주 한인 사회 또한 한민족의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53년 스탈린의 죽음과 이후 흐루시초프의 등장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전역(과거 소련권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고려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되었다. 학생 및 청년층의 유학이나 고본질(계절농업) 등으로 이주나 장기 거주가 확대되면서 콜호즈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고, 고려인들의 삶은 이전시기보다 더 한층 여유와 풍요를 누리나가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유라시아 전역에 자리 잡은 고려인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새로운 고려인공동체를 형성하고 고려인의 존재를 알려나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의 노력 덕분에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사업에서 큰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졌다. 『레닌기치』는 약 90년의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해외 유일의 한글판 재외한인 민족신문으로, 한민족의 언어와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귀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고려극장 또한 8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외 유일의 민족 극장으로 심청전과 흥부전, 양반전, 장화홍련전 등의 고전 작품과 다양한 민요가 어우러진 공연활동을 통해 민족예술의 계승자 역할을 감당해 왔다. 물론 이전 시기에 이어 알마타의 고려극장과 더불어 각지의 고려인 사회에서 활동해 온 소인예술단들의 활약과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비록 소비에트 체제 말기에는 삶의 질의 변화로 세시풍속이나 통과 의례 등의 분야에서조차 계승상황이 약해져 가지만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각지의 소인예술단, 고려인 이주 1세대들의 노력으로 유라시아 고려인 사회의 전통문화유산 자원들은 지켜지고 꾸준히 생산되어 나갔다.

유라시아 고려인 사회의 진화와 변화양상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독립국가연합 시기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비록 소련붕괴 직후 경제체제의 혼란과 중앙아시아 내 민족주의(특히 우즈베키스탄)나 내전(타지키스탄)의 발발로 어려움도 있었다. 적지 않은

3) 『새고려신문』, 2012년 1월 20일자(음력12월27일), 「Корей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안정된 삶을 찾아 우크라이나(장코이 등), 러시아(볼고그라드주, 사마라주, 로스토프주, 연해주 등) 등지로 다시 한 번 유랑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사회는 이전 시기에서처럼 농업분야를 넘어서 정계와 재계, 법조계, 교계, 언론 및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당당히 주류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특히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고려인협회나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기타 조직이나 단체들의 민족언어와 전통부활, 민족정신 계승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4년에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와 복권에 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고려인의 법적인 과거사와 지위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고려인 사회의 민족적 부흥의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 연해주와 사할린 주의 한민족 사회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내 각국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에트 시기에 활동했었던 소인예술단을 부활시켜 전통 민요와 무용 등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쉽게도 고려인 사회에서 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은 현지의 문화와 혼합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의 이주개척사는 중국 조선족 사회가 걸어 온 길과는 확연히 다른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고려인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양상

1. 현지조사 개요

1) 조사 지역과 기간

연구팀은 1차(2012.07.11~2012.08.31)와 2차(2012.08.06~2012.08.14), 2회에 걸쳐서 총 1개월 동안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1차 조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2차 조사는 러시아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그 중 카자흐스탄 지역과 키르기스스탄의 세부적인 조사대상 지역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세부적인 현지조사 대상지역

국가	현지조사지역	조사날짜
카자흐스탄 (7.19-26)	알마타(시)	7월 20일, 23일, 25일
	우쉬토베(탈드이쿠르간주) 근교 콜호즈들: <레닌의길>, <달성>, <원동>, <연해주사람>, <모프르>	7월 21~22일
	박박트이(알마타주)	7월 24일
키르기스스탄 (7.26-30)	비쉬케크(시)	7월 27일~30일
	카라발타(비쉬케크 근교)	7월 28일

2) 제보자의 구성과 현황

카자흐스탄 지역과 키르기즈스탄 지역의 고려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 및 단체, 제보자에 대한 방문 및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서 주로 개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루어졌다. 제보자들은 이주 1세대나 1.5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제보자를 제시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고려인 제보자의 현황

성명	출생 년도	성 별	거주지	성명	출생 년도	성 별	거주지
카자흐스탄(20명)				김 레오니드	1937	남	박박트이
김 프리드리히	1930	남	알마타	김 베라	1933	여	박박트이
박 이반	1930	남	알마타	유 알렉산드라	1932	여	박박트이
김 게르만	1953	남	알마타	*최아리타	1942	여	알마타시
정 류드밀라	1936	여	우쉬토베	키르기즈스탄(12명)			
김 안나	1952	여	우쉬토베	나 발렌틴	1934	남	비쉬케크
박 갈리나	1937	여	우쉬토베	김 로자	1929	여	비쉬케크
김 소피야	1935	여	우쉬토베	강 타티아나(옥순)	1923	여	비쉬케크
*인 발렌티나	1944	여	우쉬토베	강 엘레나	1936	여	비쉬케크
김 엘레나	1937	여	우쉬토베	박 플로라	1943	여	카라발타
김 엘리자베타	1956	여	우쉬토베	손 안나(아나)	1939	여	카라발타
박 니콜라이	1935	남	우쉬토베	김 류보프	1941	여	카라발타
천 미하일	1925	남	우쉬토베	박 티모페이	1936	남	카라발타
박 타티아나	1931	여	우쉬토베	이 빅토르	1935	남	카라발타
임 로자	1926	여	알마타시	강 블라디미르(영순)	1929	남	비쉬케크
양 류보프	1965	여	알마타시	고 소피야(소나)	1935	여	비쉬케크
양 류드밀라	1957	여	알마타시	김 엘리자베타	1937	여	비쉬케크

구술자들의 구술 자료수와 구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고려인 제보자의 구술내용 현황

'분야) 제보자	1 분 야	2 분 야	3분야				4분야			5분야				6분야					7 분 야	총
			1	2	3	4	1	2	3	1	2	3	4	2	3	4	5			
김 프리드리히												2	12	1		3	29	11	58	
박 이반						14													14	
김 게르만			1		1	2			3	3	4	1					1	6	22	
정 류드밀라 외7	3			2		5	6		1	10	1	4					9		41	
박 니콜라이		1	4	16	(1)				1	1	3								27	
천 미카엘 외1	2	1	1	1		2	9			1	1				1			22	41	
임 로자	2			4		10	7	1				1		3	1	2	3	4	38	
양 류드프 외2											18								18	

4) 음식에 대해 조사한 양 류드밀라와 양 류보프 등은 2세대이며, 김 안나는 러시아 어머니를 둔 2세대이다. 그리고 안내를 맡았던 김 게르만 교수는 2세대이기는 하지만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대 구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레오니드				1	3	2								2			1		9
김 베라 외1				2			15	5					2				1	1	26
총	7	2	6	26	4	3	48	27	1	5	33	144	19	4	2	6	44	43	294
나 발렌틴	3	1		5			10	2					7		1	3	26	29	87
김 로자								6											6
강티티아나(옥순) 1				5	1		3	5		1			3		5	2	4	8	37
박 플로라 외5							5	5	1		2		6	2	4	2	25		52
이 빅토로	3																		14
강 블라드미르 외				1	1		10	1	2	1	4			1		3	33		57
총	6	1	6	7			28	19	3	2	6		16	3	10	10	88	51	256

위 제보자 중에 각 나라에서 처음 만난 김 프리드리히이나 나 발렌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조사에 응해주었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조사보다 고려인들의 무형문화유산의 현재의 전승실태와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 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사자들은 제보자들에게 유네스코 기준 무형문화유산 7개 범주에 따라 사전에 작성된 질문이 제시되었다. 그 질문 내용은 뒤에 제시된 7개 범주 및 대.중.세 분류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는 질문지를 제보자에게 제시하여 반응을 보였을 때, 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첫 제보자들은 질문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의 제보자는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안배를 위하여 선별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처음 제보자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적 배려를 하였지만, 그 이후의 제보자에게 시간적 제한과 분야별 제한을 두고 조사를 임하였기 때문에 조사 내용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시간적 제약은 국내 조사에서 같은 안정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⁶⁾

조사자들은 두 번째 이후에 만나는 제보자들에게 앞에서 조사한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보자별 조사 분야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 류보프 형제는 처음부터 음식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알마티의 박 이반의 경우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주로 음담패설적인 설화만을 조사하였다. 또 비쉬케크의 김 로자는 밤 8시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집안의 옛 물품과 사진을 보여주는 바람에, 그의 아버지 김진(초기 독립운동가?)에 관해 이야기로 민요만 조사하고 말았다. 카라발타의 이 빅토로의 경우는 앞의 조사장소에 모였던 분들이 교회를 가야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중간에 파하였고, 이곳에 땅집(개인 단독주택)에 옛 물건이 남아 있고, 부부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찾아갔다. 그런데 부

5) 1분야는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2분야는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분야는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분야는 구전전통 및 표현, 5분야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분야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분야는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세시풍속은 5분야에, 일생의례인 통과의례는 6분야에 넣어서 제시되어 있다.

6) 조사지역에서의 시간적 제약은 제보자의 한계, 조사자의 한계 이외도 안내자의 지원한 한계, 지역적 거리의 한계 등이 작용한다. 예로 박박타이의 경우를 보면 새벽 7시쯤에 출발하여 160km이상 떨어진 현재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다. 그곳에서 노인회 간부를 만나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김 레오니드란 분만 만나 집에서 사냥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하고, 김 베라란 분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는 남성 3-4분과 여성 2분이 있었으나 여성을 중심으로 2시간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어 마을회장님 댁에서 일생의례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나니 오후 2시가 넘었다. 그때에 점심을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먹은 뒤에 새로운 장소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거기에 안내자가 알마티에서 약속 시간이 있어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출발하였는데도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 저녁 8시가 넘었다.

인 역시 교회를 가야 하였기 때문에 남편인 빅토로만 남게 되어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언어적 장벽과 이해의 척도에 따라 놀이만을 조사하고 마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내 역할을 하던 김 게르만 교수의 자료수는 도중에 간간히 구술하여준 것인데, 다른 제보자들의 구술을 보충하여 설명한 자료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김 프리드리히의 자료가 편중된 것은 처음에 조사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하였는데, 도중에 다른 약속으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조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밖에 제보자들은 시간적인 한계로 집중적인 조사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한 내용을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류 유형의 자료가 다양하게 분포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남성제보자가 여성제보자보다 전승 자료수가 더 많은데, 이것이 모든 제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 구술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 제보자에게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이상에서 앞으로 조사방식에서 제보자의 확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자료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면 능력이 있는 남성제보자가 필요하다. 반면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전승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이에 관심이 있는 여성 제보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성 제보자들을 구성하거나 훌륭한 남성 제보자와 여성 제보자를 혼성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2. 현지조사 결과

1)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1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1분야	음악/무용 / 연희/놀이 / 의식/무예		우쉬토베	<도라지>가무단,영화배우단,연허튼춤(113)
			우쉬토베	창가단(174) 고려인 노인단(197)
			알마티	알마타의 합창단(223) 고향합창단(234)

1분야인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관한 자료는 7편이다. 이 중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하던 단체들은 옛날에 50-60년대의 콜호즈에서 자체적으로 형성 것과 달리, 1990년 이후에는 개인적 특기를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재구성된 종합적인 예술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용의 허튼춤은 보통 사람이 기교가 없는 일반적인 춤이라 모여서 놀 때 많이 추었다고 한다.

도라지 가무단(112)은 우쉬토베 에스길더 콜호즈에서 구성된 예술단체로, 제보자(김 로자(70,여)의 남편인 이철성이 구성하였으며, 남편을 도와 가무단의 발전에 노력하여 콜호즈 자체

7) 카라발타의 박 플로라는 구술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혼례식의 과정 등 자료들을 구체적인 일화를 들어 구술하여 주었다. 즉 다른 제보자들이 일상적인 진술을 통해 제시하는데 비하여, 제보자는 구체적인 대화체를 활용하여 제보하여 주었다. 많은 여성제보자들은 한정된 자료를 구술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 제보자들의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구술하여 주었다.

에서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이웃 콜호즈에 찬조 공연도 하였다고 한다. 4-5년 전에 남편이 죽고 부인인 제보자가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젊은 단원이 들어오지 않아 노인들만 모여 예전의 향수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영화배우단(114)은 예스길더 콜호즈에서 영화나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되고픈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이 단체도 1990년대 중반에 재구성된 단체로 도라지 가무단과 마찬가지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이 영화배우단은 영화를 찍기 보다는 연극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콜호즈 내의 공동체의 모임이 있거나 특별하게 쉬는 날이 있으면 모여서 연극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유아무야되면서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창가단(174)은 예전에는 콜호즈에서 동네의 새애기들 중 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창가 책을 주고 노래 연습을 하여 노래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마을의 행사에 노래 공연을 주로 하여왔는데, 1990년대 이후에 콜호즈가 해체되고, 이들에 대한 경비도 없고, 또한 창가의 대한 요구가 없어지면서 창가단을 새로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노인단(197)**이 구성되었다고 한다.

알마타의 합창단(223)이나 **고향합창단(234)**은 같은 단체로 보인다. 제보자(임 로자(86, 여)가 구술한 내용으로 보아 원 이름은 고향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 고향합창단은 1990년 3월 23일에 심재철 원장이 만들었는데, 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원래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같이 다니던 할머니와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 17년간 다녔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2년 전에 탈단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4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35명 내외가 활동하는 있다고 한다.

허튼춤(113)은 무용의 춤 종류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춤에서 가장 일반적인 춤으로 특별한 기교없이 출 수 있다. 춤은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너울너울 추거나 머리 위로 들어 몸과 몸을 흔들면서 추는 춤이다.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2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2분야	목공예		우쉬토베	장식장
	피모공예		우쉬토베	복과 장구

2분야 관한 자료는 2편밖에 조사하지 못하였다. 자료를 보면, 우쉬토베의 박 니콜라이 닉에 있는 **장식장(131)**은 1950-60년대에 이곳 고려인 노인들이 만들어 팔았던 것을 사다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런 장식장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나 콜호즈가 없어 공장에서 만든 것을 사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과 장구(196)**라고 제목을 붙였으나(190) 복에 대한 설명만 있다. 복은 천 미하일 닉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 제보자가 들고 나왔는데, 1960-70년에 타쉬켄트에 살고 있던 노인 한 분이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복을 기증받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만드는 곳도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복은 한국의 복에 비하여 두께가 반 정도밖에 안 되었다.

(3) 의학[민간요법]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3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3분야	의학(민간요법)	식물요법	우취토베	양귀비, 된장 썩뜸, 감초
		동물요법		
		광물요법	우취토베	흙, 침놓은 사람.
		주술요법		
	농업	경작	우취토베	벼농사, 품종개발(박클리(박&이),자랴,오프이트느이,우로좌이<수확>) 보리심기, 콩
		농경속		
		재래농기구	우취토베	농기구(낫, 호미, 쇠스랑, 극계), 체, 키, 디딜방아, 양파 심는 기구
			알마티	주판, 쪽지계, 정미소
			박박트이	농기구(낫, 호미, 쇠스랑), 체, 키(소보치), 디딜방아, 제리
	사냥	사냥의례		
		채집	박박트이	사냥(총, 덧(덧간) 활, 새총)
	어업	어업의례		
		채집	박박티이	물취잡기, 물고기
	축산업	가축	우취토베	목축
		양봉/양잠		
축산도구				

3분야 속하는 자료는 총 39편으로, 의학(민간요법)이 6편⁸⁾이고, 농업경작과 농기구에 관한 자료가 26편, 사냥 관련된 자료 4편, 어업과 목축에 관련 자료 3편이 조사되었다.

의학(민간요법)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우취토베에서만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식물요법**에 관련된 자료로 **양귀비(146)**에 관한 것이 있다. 이는 옛날에 약담배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배가 아플 때 이 약담배를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약담배는 옛날에 심었지만, 지금은 심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된장(148)**은 한국에서도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된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끓는 물에 데우면, 그 데운 부분에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고 한다. 그리고 **썩뜸(149)**에서 썩은 옛날 구차한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먹었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 현재 썩은 부항이 들었거나 맥이 풀려 땀을 놓을 때 사용하고 있다. **감초(150)**는 발이나 들에 나가면 많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활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얼굴이 검어질 때에 끓여 먹인다고 한다.

광물요법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흙(147)**이 사용된다. 흙속에 있는 광물질이 피를 그치게 하였는지 일을 하다가 벌에 쏘였을 때 흙을 바르면 낫는다고 하였다. **침놓는 사람(161)**은 침으로 병을 고친다는 점에서 광물요법에 넣었으나 민간요법이 아나 과학이며 의술이다. 이주 초기에 고려인 의사들은 진맥을 하고 침을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침놓는 의사들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들의 기억에는 옛날 고려인 침놓은 의사들은 **큰침(대침)**을 가지고 놓았는데, 소련의사들이 처음에 침을 놓는 것을 반대하여 침을 놓지 못하였다. 그래서 침놓은 의사들과 관련된 사실적인 설화들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농업에 관한 자료는 농업박사인 우취토베의 거주하는 박 니콜라이 알렉산드라에게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농업 경작 중에 가장 중요한 **벼농사**이다. 벼농사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8) 민간요법에 관련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통과의례나 세시풍속과 관련된 자료는 그곳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농업이다. 고려인은 벼농사를 위해 강제이주 전부터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우즈벱에서는 경조벼(경조벼)가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이곳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처음에 도착하였을 때 온통 갈대밭이었다. 팔뚝만한 갈대를 베어내고 수로 만들어 물을 빼어내거나, 반대로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통해 농토로 개간하여 벼 재배 면적을 넓혀 갔다. 벼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콜호즈에서 목화와 더불어 재배되어 가장 특색이 있는 생산물로,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량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지역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북방 한계선이라고 한다. 초기의 벼농사에 대한 증언에 따르면, 38년도에 이곳에는 ‘아르파살라’, ‘동간살라’라는 법씨 종자들이 있었지만, 법씨가 잘 여물지 않았고 땅에 많이 떨어져 수확량이 적었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이 법씨를 연구하였는데, 처음에는 쌀의 북방한계선인 우쉬토베와 알라굴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법씨를 골라서 1945년까지 기존의 법씨로 논농사를 지었다.⁹⁾(132) 이곳에 맞는 법씨에 대한 개발은 1989년, 1990년 사이에 시작하였다. 품종의 노후와 땅의 연작 문제로 인해 새로운 품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침내 우쉬토베 지역의 기후와 연작에 적합한 4개(박클리((박&이), 자라, 오프이트느이, 수확)의 신품종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한 4가지의 법씨는 쌀알이 길쭉하고 맛이 있다는 2가지와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2가지였다. 법씨는 밥을 하는 쌀과 찰떡을 만들 수 있는 법씨가 있다.(134)

농사법은 법씨가 어떠한 다음 해의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가을에 가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손으로 법씨를 가렸으나 현재는 기계로 가리고 있다.(135) 이곳은 경작지가 넓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 파종을 하게 된다. 파종을 할 때, 1938-1940년대까지는 통을 메고 물이 잠긴 논에서다 법씨 뿌렸으나, 오늘날은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뒤에 물을 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모종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고, 날씨 때문에 얼어 죽기도 하고, 풀이 더 많이 나는 작업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법씨는 옛날에 포대에 넣고 2일 정도 불렸으나, 요즘은 바로 뿌린다고 한다. 또는 과거에 법씨를 뿌리고 나무판대기로 밀고 다녔으나, 현재는 기계로 얇게 심어 빨리 자라도록 하였다.(136) 이렇게 파종을 한 벼를 기르기 과정에서 물대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기계로 법씨를 심근 뒤에 물을 낮게 대다. 물이 땅을 축축하게 적시면 법씨가 싹이 텃서 자라게 된다. 이때 다시 물을 대는데 깊게 대지 않는다. 물 늦게(1주일) 대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2-3일 내에 대는 것이 좋다. 풀이 났을 때 옛날에는 손으로 지심을 땀으나, 현재는 물로 풀을 죽이거나 약으로 제거한다. 물은 벼가 자라는 것에 따라 대는 깊이를 결정하며, 이삭이 나올 때는 깊이 땀다가 이삭이 다 나오면 물을 얇게 대야 물이 따뜻하여 곡식이 빨리 여물기 때문이다. 벼가 여물면 물을 대지 않고 땅이 마르게 하는데, 이삭이 나오고 1달이면 수확을 하게 되어 있다.(137)

한편 벼농사 이외도 보리농사를 짓는데, 보리를 심는 것은 경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곳의 땅은 지력이 약해 2-3년 벼농사를 짓고 2-3년을 휴작을 해야 한다. 휴작을 시작할 때는 벼와 목축 풀(누다리)을 함께 심으면 보리가 빨리 자라고 풀을 늦게 자라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풀을 이용하여 목축(양)을 하거나 땅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3년이 지나면 다시 벼농사를 짓게 된다.(140) 그리고 콩은 상업성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규모를 심었다.(142) 그 밖에 다른 농사는 조사된 것이 거의 없다.

9) 자료 134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법씨 중에 김만삼이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는 따뜻한 지역에 맞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여물지 못하고, 이곳에서 개발한 법씨를 가지고 가면 9월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농경속으로는 물을 대는 사람들은 여름에 저희끼리 모아 물고기이나 짐승을 잡아서 끓여 먹는 일이 매일 반복하고 있었다.(138) 수확 결산은 농경 민속이기보다 이곳의 삶의 방식으로, 농사가 다 끝난 가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와 토론, 상급도 주고 하는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하는 정부 행사가 생활민속이 되었다.(139) 이와는 반대로 파종 결산이란 것이 있다. 파종결산은 고려인들이 파종을 마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풍년기원의례이었던 것 같다. 현재는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고 오직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남아 있다.(140)

재래식 농기구로 디딜방아는 우쉬토베의 박 니콜라이 알렉산드리아의 집에 만들어져 있다. 곡식을 도정하는 기구인 디딜방아는 1985년에 우쉬토베에 살던 지가이 니콜라이(작고)라는 교사질을 하였던 분이 제작하였다. 이 디딜방아는 정미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동네 방아에서 곡식, 고춧가루, 잡곡들을 찧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광속의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124) 이외에도 어느 마을이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농기구로는 낫, 호미, 삽, 쇠스랑, 극계 등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논을 갈 때는 가대기(쟁기)를 소나 말이 끌거나 사람이 끌기도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농기구로 강차이, 세시미, 널빤지(근디: 씨래 대용) 등이 있다. 널빤지(근디)를 끌고 다니며 평편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서는 전부 기계화되어 거의 찾아볼 수 없다.(144) 그리고 체와 키도 많이 보이는 농기구 중에 하나이다. 또 그런데 물건 운반할 때 이용하던 쪽지계는 원동에 있을 때나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나 짐을 위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기구이다. 제보자는 우즈베크이 있을 때 주로 갈대를 베어 지고 와서 불을 때는데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양파를 심는 기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기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다. 현재 과거의 농기구 유형물들은 대부분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사냥은 주로 박박티이에서 이루어졌다. 박박티이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하여 1960년대 만들어진 신흥 마을로, 정착금과 분배금이 많다고 하여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였다고 한다.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 사냥을 다니게 되었다. 사냥을 나갈 때 특별한 의례는 행하지 않고, 대개 저녁에 모여 함께 출발하였다. 처음에 사냥하였을 때는 아무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총을 들고 나가 좋았다고 한다. 사냥꾼 동미들이 저녁에 모여 차를 마시다가 아침에 떠났다. 사냥의 종류는 꿩, 오리, 뚝 돼지, 사이카크라(이곳에만 사는 사슴)을 중심으로 잡았는데, 수량의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잡은 개수만 제시하였다. 사냥은 총을 가지고 하였는데, 옛날에는 돈만 있었으며 총을 샀으나, 현재는 경찰서와 정신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냥은 큰 동물은 동삼(한겨울)에 다니고, 오리는 봄가을에, 꿩은 봄에 새끼를 치도록 하여 가을과 겨울에 잡았다.(257) 그리고 아이들의 사냥법은 어릴 때 놀면서 큰 양푼이나 사발에다가 나무를 바쳐 놓았다가 새, 특히 숲비둘기가 들어가면 줄을 잡아당겨 잡았던 덧간을 이용하였다.(261) 또 새총놀이를 하기 위하여 Y자 나무에 고무줄을 잡아서 놀았던 새총으로 새를 잡기도 하였다고 한다.

어업도 역시 물고기도 많이 잡았다는 박박티이에서 조사되었다. 봄철에 의애 또는 사간이라는 고기를 많이 잡고, 메기, 제릴스, 메르 아무르, 아썬트레이 등도 많이 잡았다. 또한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삼으로 만든 60kg 정도 크기의 푸대인 커대에 담았다. 커대에 담아온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마당에 펼쳐놓고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물고기는 봄부터 가을 얼음이 얼기 전까지 잡고, 겨울에는 잡지 않았다. 요리는 의애들을 배에서 고기에 소금을 넣고

조림을 하고, 많으면 훈제하거나 말렸다고 한다. 조림통은 양백(200)kg이나 100kg 짜리가 모지까가 있었다.(263) 또 제보자는 물쥐를 잡을 때 덩, 올가미 등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지금은 덩을 놓고 사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260)

목축업은 목축을 하는 집이나 조합이 예전에 있었으나 현재 일이 많다고 보니 하는 집이나 조합들이 사라졌다.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일부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양이나 소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143) 특히 지력이 약해 벼농사를 연작할 수가 없어 논에 보리와 목축 풀을 심어 양이나 소를 키웠다.

(4) 구전전통 및 표현 (4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4분야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알마타	봉이 김선달,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고, 아리랑의 유래, 가족 침을 놓은 사람, 어린 신랑의 기지, 계에게 중요한 곳을 물린 여자, 어부와 용녀, 달래강 전설, 아버지와 셋째딸, 건망증이 심한 사람, 카자흐스탄의 보쌘, 알람시계, 간나 새끼, 내 밥 먹고 남의 씹하네. 밤마다 곧 뺨은 사람 들어와 못나온 아이, / 오줌 싸다가 죽은 소녀, 꼬마 신랑의 재치, 효불교 다리, 범과 싸운 시아버지, 개만도 못 하다는 유래,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1, 2, 3, 한 솔에 사는 초군이 효자자식보다 낫다.
			우쉬토베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귀신이 된 어머니, 귀신을 실어다 준 택시기사, 귀랑이 색아 없어(상사뱀), 도깨비의 정체, 김만삼의 일화,
			박박트이	박박트이의 유래, 호랑이의 머리 쓰다듬기, 시집살이, 어린 신랑의 기지, 방구 소동, 아기장수,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어머니 병을 고친 동자삼, 묘지를 잘못 쓴 아들의 꿈, 저승 갔다 온 사람, 택시 타고 온 귀신, 귀신소리 들은 소금장수, 흥부와 놀부, 춘향전, 심청전, 아내의 버릇을 고친 신랑
		민요	노동요	우쉬토베
	박박트이			상사나디여(농부가), 농부의 일생
	유희요		우쉬토베	청춘이, 아리랑, 창가1. 2, 우리 살던 고향, 빨치산의 노래, 아이들이 놀자, 찔레꽃, 5월 1일. 김정자의 어린 시절,
			알마타	따뜻한 봄철, 순애야, 여자해방, 놀자 타령(백설가), 남녀동무, 사랑가
			박박트이	아리랑, 장백산가, 두고 온 내 고향 강화도, 심청가
	무가			
	판소리			
	속담 및 수수께끼	알마타	피꼬리 높이 날지 못한다.	

4분야 속하는 자료는 총 76편으로, 설화가 48편이고, 민요 27편이며, 그리고 속담 및 수수께끼가 1편으로 조사되었다. 설화는 생각보다 많이 채록되었고, 민요는 카자흐스탄에 많은 자료가 채록되어서 의식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다. 속담 및 수수께끼는 속신어까지 포함시켜야 하지만, 신앙적 의미가 강하다고 느끼는 자료는 속신앙으로 처리하였다. 4분야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아직도 가장 뚜렷하게 전승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이고, 고려인 노인 세대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수되고 있었다.

설화에 대해서는 앞의 이복규 산생님 발표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많은 민담 자료가 전승되고 있음에도 신화는 발견할 수 없고, 전설로 부를만한 자료는 많지가 않다. 가능성을 찾는다면 지명유래담으로 박박티이의 유래와 인물전설로 김만삼의 일화 정도라 하겠다.

* <설화자료에 대한 정리 추후에 제시되도록 할 것>

민요는 민속학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조사 연구되어 자료가 양적으로 2000편이 넘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며 누구든지 몇 곡 정도를 부를 정도로 부분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상례에서 운구를 차나 달구지로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불리어졌던 의식요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의례 행위도 소비에트 사회주의에서 인정하지 않아 전승이 끊기 것으로 보인다.

노동요가 많은데, 고려인들은 이곳에 강제 이주된 이후 밤늦게까지 노동현장에 머물러야 하였다. 민요는 힘들고 고통의 노동 현장에서 희망이나 즐거움을 찾아내어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렀을 것이다. 민요를 의식적으로 소극 조사하였음도 ‘에헤요 씨를 뿌려라, 자장가, 농부가, 상사나디여(농부가), 농부의 일생’ 등의 노동요가 조사되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불리지는 노동요는 씨를 뿌려라는 노래이다. 노동현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현재 조사되는 유희요들이 노동요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불리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요는 노래 부르는 자체를 즐기 위해서 불리지는 노래로 가장 많은 조사되었다. 고려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6-80년대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가장 활기찬 삶을 살았는데, 고려인들이 모이면 춤과 노래로 즐기는 속에서 유희요가 급속하게 팽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고려의 노래를 부르는 제보자들은 현재 노동 현장을 떠나 노년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동요보다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더 강조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유희요를 보면 아리랑이 많이 불리고 있으며, 북쪽에서 전승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두고 온 내 고향 강화도’가 있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해방’ 등이 있으며, 남녀 간의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도 전승되고 있다.

무가와 판소리는 전승되지 않았다. 이곳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는 무당이 이주 초기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없어 사라지면서, 그들이 불렀던 무가의 전승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무속은 점을 보는 하락시와 병을 물리(방포)치는 신선이 가 활동하였으나, 현재 고려인 사회에서 하락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판소리는 그 자체가 없었지만, 그 대본이었던 심청가, 춘향가. 흥부와 놀부 등이 연극과 영화로 보여주어 그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속담과 수수께끼는 구비단문으로, 속신어도 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앙형태를 강조한 속신어 문장은 이곳에 다르지 않고 속신앙에 다루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다. 현재 속담과 수수께끼 범주에 속하는 자료로는 '피꼬리 높이 날지 못한다.'는 속담 1편만을 조사되었다.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5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5분야	의생활	방적		
		바느질	우취토베	버선, 재봉틀, 한복만들기,
		염직		
		복식		
		특수의상		돌복, 환갑복장
		세탁 다듬이질		
	식생활	일상음식	우취토베	국시,
			알마타	국시, 김장김치와 견저리, 양파김치, 파김치, 감재채
		별식	알마타	칼국시, 떡국시, 옛, 김치볶음, 물고기 장물, 감주, 동네 함께 음식만들기, 감초, 반찬이, 순대
			우취토베	만두국, 만두, 물고기(자반,오금)요리, 떡집, 옛
		절식(節食)	알마타	
		의례음식	우취토베	찰떡, 증편,
			알마타	과주리, 제사음식, 찰떡, 증편, 골미떡(지름굽이, 지름떡),
		구황음식		
		음식도구	우취토베	떡메/떡구시
			박박트이	떡메/떡구시
		저장식품	우취토베	김치, 무꾸김치, 장미태,
	알마타		김치, 무, 깍두기, 물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상차림			
	주생활	집안의 시설물과 설비	알마타	굴뚝 놓기, 베치카, 온돌, 구들 만들 흙벽돌, 부지깽이, 재가래,
			우취토베	지하저장고(포그리브), 부수계, 부엌마루방,
		공간의 기능		
		가옥의 구조		
	건축의례			
	세시풍속		알마타	설(세배), 정월대보름, 콩볶아 먹기, 거자수 물 먹기, 호두떡 해 먹기, 한식, 단오, 추석, 친척 제사지내기, 김장 담그기, 오그래 해먹기(동지팔죽), 윤달, 복날
			우취토베	7월(복날), 단오, 추석, 동지
			박박트이	설, 오그래 해 먹기

5분야는 가시적인 전승의 확인이 확실한 분야로, 총 71편의 자료가 있다. 이 중에서 의생활이 5편, 식생활이 33편이고, 주생활이 14편이며, 세시풍속이 19편이었다. 5분야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 식생활인데, 먹고 사는 문제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가장 절실한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는 아직까지 음식 전통과 명절 및 절기별 등의 세시풍속 전통을 다른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잘 계승시켜오고 있었다.

의생활은 우취토베 지역에서 조사하였다. 우선 버선은 어머니들이 만든 것을 작은 시누이가 보고 만든 것이다. 버선을 신고 일을 하면 편하여 지금도 밭에 일을 하러갈 때 신고서 일을

하였다. 버선을 만든 작은 시누이는 지금 알마티에서 옷집을 하고 있었다.(122) 60년대까지는 재봉틀을 이용하여 한복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한복을 알마타나 한국에서 가져와서 만드는 일은 없어졌다.(152, 153) 전통적인 의생활 모습이나 방식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있다. 재봉틀은 옛날에 결혼 혼수품으로 필수품이었으나 현재의 공동품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특수의상으로 돌복은 한복을 입었으나 60년대 이후에 사라졌다가, 1990년대 이후에 다시 한복을 입히는 관습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결혼식은 서양복장을 입고 식을 올렸으나, 환갑이 되면 고려인 복장을 입었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잔치는 고려식의 음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최근에 수의는 한국에서 사다 놓은 한복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진에서 배넛저고리나 오래된 한복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¹⁰⁾

식생활은 음식 재료와 양념의 차이와 현지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원형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상음식으로는 시락장물(된장국)과 국시는 중앙 아시아인에게 일반적인 음식으로 변화시켰으며, 두부와 비지장을 이용한 음식도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별식으로는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드는 칼국시와 떡국시, 신 김치를 이용한 김치 볶음밥, 강제 이주 당시에 고려인의 생명을 이어준 물고기를 이용한 물고기 장물이나 반찬이, 그 밖에 감주, 엿, 감초 끓여 먹기 등이 있다. 절식(節食)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특식의 일부와 세시풍속에 관련된 음식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오그레, 오곡밥, 썩떡, 귀밝기술, 물뱅세이(물만두), 팔죽(동지죽, 오그랑죽) 등이 있다. 명절이나 제사에 사용한 의례음식으로 찰떡, 증편, 과주리, 지름구이, 닭고기, 물고기구이, 베고자가 있고, 저장식품으로는 김치(배추, 무, 양파 등),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 있다. 이런 음식들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가장 널리 보이는 것이 떡메와 떡판이다. 음식들의 전통적 요소가 전승되고 있으나, 그 맛은 향료들이 많이 가미되어 이미 한국의 음식과 많이 구별되었다.

주생활은 대부분 현지식 주택구조나 현대식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은 아직도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생활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주택은 최근에 지은 집을 제외하고 방 한 칸 정도를 온돌식 난방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다만 넓직한 온돌을 이용한 전통방식이 아닌 변형된 보일러식 형태의 방법이 많았다. 주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은 강제 이주 초창기에 집을 지을 때 온돌바닥에 사용할 돌이 없어 흙벽돌로 구들을 놓고 위에 바닥으로 깔았다.(1.8) 또 집안에 온돌을 놓았을 때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굴뚝을 설치하였다. 굴뚝을 놓는 것은 굴뚝이 위치나 높이에 따라 연기 적절하게 분출시킬 수 있어 하겠다.(75) 온돌에 불을 땔 때 고체 연료를 집어넣거나 아궁이 속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부지깽이가 있고, 타고 남은 재를 옮길 때 사용하는 재가래가 있다. 부지깽이나 재가래는 아직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주거공간으로는 농작물이나 저장음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장소인 저장고가 있다. 이런 저장고는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 좀더 큰 저장고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대개 1-2개의 지하저장고를 가지고 있었다. 우쉬토베의 김 엘리자베타의 집안의 지하저장고를 크기를 보면, 각 2m 정도이고 입구는 가로 세로 0.5m 정도이고, 작은 지하저장고는 90x90x60cm 정도의 2개의 지하저장고 있었다.(123, 126) 부역을 의미하는 부스게는 70년대 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만들었다. 이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한 온돌을 놓

10) 연구팀이 방문한 카자흐스탄 알마타의 최 아리타(1942년생의 집은 흡사 작은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녀가 소장한 한국학 및 다양한 형태의 고려인 관련 자료를 포함, 1910-20년대 항일 및 빨치산 운동에 투신했던 김경천의 집안에서 사용된 생활품(예전 한복 수예품)들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일이 없다. 그리고 부엌에 마루방을 까는 일을 옛날에 마을에 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외부의 전문적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깔아준다.

세시풍속은 설, 한식, 단오, 추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밖에도 많은 날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한식과 단오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큰 명절로 인식되는데, 과거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한 결과로 보인다. 고려인들은 한식과 단오 추석에 음식을 준비해서 성묘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설날에 여러 가지 세배와 놀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놀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33) 박박티에서는 설날의 전날 저녁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이 모임은 새벽 2시 정도까지 놀았고, 다음인 설날에는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었으나 세배를 하지 않았다.(264) 또 한식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묘를 살피고 음식을 진열하여 제사를 지낸다. 그 이후에 일부음식을 남겨놓고 나머지 음식을 싸서 인근에서 먹거나, 아니면 집 근처의 카페에서 친척들과 나누어 먹었다.(41) 그리고 단오에도 마찬가지로 조상의 묘지를 다녀온 뒤에 마을 사람이 모여 놀이를 하였다. 특히 여자들은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진행하였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놀이는 50-60년대 사라졌다가 1991년 이후에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부활되기도 한 것 같다.(42, 94) 8월 한가위인 추석은 원동에 있을 때, 1-2일 전에 준비하여 놀았으나 이곳으로 강제 이주한 뒤에 사라졌으며.(46) 우쉬토베에서는 이날 물고기 먹기를 행하였다. 이는 이주하였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널려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쳐 먹는 것에서 유래되었다.(95)

그 밖의 세시풍속으로는 정월대보름의 달 보기가 있는데, 이때 달 보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적으로 달 보기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이 있었다. 강제 이주 직후에 소련 시절에 민족적인 행사를 엄금하면서 가족적 달보기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화톳놀이를 하였다.(37) 콩 볶아먹기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시기(이월)에 콩과 보리 등을 볶아 먹었던 풍속이었고.(38) 거자수 물 먹기는 봄에 나무를 통하여 물이 올라가는데, 큰 나무에 흠을 내어 올라가는 물을 모아 먹는 풍속이다.(39) 호두 떡 해먹기는 5-6월에 호동나무의 잎이 나오면, 떡을 해서 호두 잎에다 싸서 먹는 풍속이다.(40) 이들 풍속은 원동에 있을 때 행하였으나 이곳에 들어와 여건이 달라지면 1940년대 사라졌다. 친척 제사 지내기는 자손이 없이 돌아간 사람들의 제사는 가까운 친척이 맡아서 하였다. 이런 제사는 전라도에서 9월에 행하는 구휼제와 같은 방식이나 친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47) 김장 담그기는 늦가을에 주로 배추를 가지고 추운 겨울에 먹을 김장을 담는다. 이런 김장 담그기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냉장고의 발달로 점차 일반 김치담그기로 변하고 있다.(48) 그리고 오그래 해 먹기는 동짓날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쌀가루로 만든 둥근 떡을 붉은 콩(열콩, 팥)으로 만든 죽에 넣어서 먹었다.(49) 박박티에서 오그래는 해 먹을 싶을 때 해 먹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처음 해먹는 시점에 대해 묻자 꼭 겨울이 시작할 때라 하였다. 대체로 겨울인 동짓날에서부터 설날이 끝난 뒤에 많이 해 먹었다.(266) 그리고 윤달은 원동에 있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59) 세시풍속들은 아직도 많이 전승되고 있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한반도의 세시풍속의 이동을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6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6분야	마을신앙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		
		숫대제		
		기타		
	개인신앙	성주신앙	알마타	성주신
		터주신앙		
		조왕신앙	알마타	조왕신
		삼신신앙		
		조상신앙		
		기타	알마타	업신앙
	무속신앙	기복굿	우쉬토베	하락시(점쟁이)
			알마타	신선이(점쟁이)
		양재굿		
	속신앙		알마타	복, 황소해천, 도깨비, 자다가 오줌을 사면 소금을 사와야 한다. 구렁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박박티이	귀신불
	일생(통과)의례	산속	알마타	조산모, 태아의 성 구별, 산후금기, 백일, 돌상, 돌때 자른 머리 평생 보관해야 한다. 태 처리법, 배냇저고리는 보관해야 좋다
			우쉬토베	돌상, 태몽, 태아감별법, 산속금기, 태아 금기, 돌, 돌잡이(쌀3그릇,바늘,실,책,열콩(팥), 연필,돈), 첫국밥, 임신하였을 때에는 상가집 가지 않는다.
		관례		
		혼례	알마타	결혼식(사주점치기, 맞선, 청치,우실,결혼,거울드리기,쌀가마넘어오기,폐백,결혼상), 신부가 임신하였을 때의 상차림, 아들은 낳으면 전통이 이어진다.
			우쉬토베	결혼식(청치,우실)
환갑,칠순		알마타	환갑상	
장례,제례		알마타	알마타	장례(임종확인, 혼부르기, 수의와 관, 염하는 방식, 칠성판, 명정쓰기, 운구, 발인제, 재우재, 삼우제), 1년 제사, 2년제사(탈상), 성묘(한식,추석) 큰절하는 법, 설날과 상세날, 제사상, 묘소의 제사, 상례절차,
			우쉬토베	성묘(한식,추석), 상속제도
			박박티이	상례절차

6분야에 속하는 자료는 총 66편으로 이중에 절대 다수가 인간의 일생인 관혼상례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유형의 자료를 보면, 마을신앙은 전혀 조사되지 못 했고, 가신신앙에 해당하는 개인신앙이라 하는 것이 4편,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신앙이 2편이 조사되었고, 민간에서 전해지는 속신앙이 6편이 조사되었다. 관혼상례의 자료는 무려 44편이나 된다. 다만 관혼상례에 속하는 자료들은 인간의 일생에 해당하는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마을신앙은 조사결과 전승되거나 남아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없었다. 이는 마을단위의

신앙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강제이주 당시의 소비에트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하겠다.

개인신앙은 주로 가정신앙의 분류항목이 소분류 항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유형의 자료는 어린 시절 듣거나 본 것 외에 현재 거의 전승되지 않고 있었다. 개인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성주신앙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위쪽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무엇인가(일부에서는 귀신독이라 함) 놓고 비는 것이다. 부모님은 이런 행위를 자식들이 보지 못하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219) 조왕신은 2편인데, 어릴 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비손을 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집안에서도 비손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어머니에게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알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2) 또 부엌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물을 세 그릇을 떠 놓고 빌었던 풍속이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솔 뒤쪽에 신체가 모셔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218) 그리고 업신앙은 창고에 선반을 매달아 놓고 밥과 물을 떠놓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빌었다. 이곳에는 집안에서 동물을 잡았을 때 조금 떼어서 맨 먼저 올리는 풍속이 있다.(217) 이것은 임 로자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이미 기억 속에 사라진지 오랜 것이라 하겠다.

무속신앙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직후에 굿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게 굿을 주관하는 무당, 병을 물리치는 신선이, 그리고 점만 치는 하락시로 구분된다. 무당이 사라지면서 굿이 사라졌지만, 가정적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개인신앙과 관련된 무속행위인 방토는 일정 기간 존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60-70대 이후에 신선기도 사라지고, 현재는 점쟁이인 하락시도 한문을 알지 못하여 없어지고 있다.(160) 한편 신선의 능력은 신선이 연구하지 않고 어느 능력을 갖고 있어 집안의 일들을 맡을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집안의 대소사와 신이한 일들을 처리하였다.(216)

속신앙은 오늘날 전승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속신앙에 속하는 자료 중에 세시풍속이나 관혼상례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자료의 초점이나 조사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조사된 속신앙을 보면, 복은 인간의 노력이 도덕적이나 인간적일 때 도움을 받는다는 신앙으로, 어릴 때 원동에서 할머니에게 들은 기억이 있었다.(51) 또 황소해천은 나무 사이에 황소를 끼워놓는 것으로, 원동에 있을 때 옆집에 해 놓았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이는 나무시집 보내기 같은 모습인데, 나무시집 보내기는 나무의 과일이 많이 열리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풍속은 어느 것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52) 그리고 도깨비 신앙은 도깨비가 많았다는 일상적인 진술을 통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53) 그리고 박박티에서 조사한 귀신불은 옛날에 놀다가 보면 갑자기 새파란 불이 솟아올라 똥똥 떠서 어느 집으로 날라 가서 푹 떨어진다. 그러면 그 집에서 불안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를 귀신불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혼불과 비슷하다. 그런데 혼불이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데 비하여, 이곳 귀신불은 외부에서 생겨난 불이 불행한 일이 있을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이다.(277) 그리고 속신어로 대한 자료로는, 옛날에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게 하는 풍속에 대한 것이다. 이웃집에서 소금을 주면서 물충이다 물충이다 하고 돌려주었다고 한다.(203) 그리고 '구렁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원동의 술래미에 살 때, 구렁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잘못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215)

관혼상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관문에 관한 자료로 상대적 많다. 통과의례, 또는 일생의례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의 산속, 성장한 어른이 되는 성인식, 남녀가 서로 만나 짝을 이루는 결혼식, 나이를 먹어 생일 찾는 의례,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상례, 그리고 죽은 뒤 후손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제례 등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성인식에 대한 의례가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다.

산속은 아이가 임신하면서 돌때까지의 풍속이다. 산속에는 아이의 출생과정과 성장하여 돌잔치를 하고 그곳에서 돌잡이가 이루어지는데, 변형되었지만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그 과정을 자료로 보면, 우선 아이가 임신이 되면 금기를 지키는데, 이때 산모의 배 모습이나 태몽, 그리고 나이수로 태아의 남녀의 성을 구별하였다.(4, 109) 1950년대 이후에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이런 산속과 관련된 전승이 단절되었다. 즉 산모를 돌보는 조산모, 태교, 출산금기, 태줄 처리법 등의 전승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아이가 태어나면 출입을 금지하는데, 100일인 우리와 달리 30일 내지 40일로 변모되어 있었다. 그리고 첫국밥도 미역국에 닭고기를 넣지 않고 돼지고기를 넣어 끓여 주었다.(111) 백일잔치는 1940년대까지 일부에서 지속되었으나 사라졌고, 돌날의 돌상을 차려놓는 돌잡이가 아직 전승되고 있다. 고려인들은 돌날에 차리는 돌상의 음식으로 쌀(밥) 3그릇, 연필, 책, 곡식(팥), 돈을 놓고 여자의 경우는 실과 바늘을 더 놓고, 아이에게 음식을 집게 하는 것이 놀이이다.(7) 이 밖에 산속과 관련된 금기어로 '돌 때 자른 머리 평생 보관해야 한다' '태 처리법, 배냇저고리는 보관해야 좋다' '임신하였을 때에는 상가집 가지 않는다.' 등이 있다.

혼례는 결혼식에서 우리의 경우에 신랑신부가 맞서는데, 이곳에서는 신랑신부라 나란히 선다. 전통적인 혼례에서 사주점치기, 청치, 우실, 결혼식, 거울 드리기, 쌀가마 넘어오기, 폐백 등의 과정들이 있다. 청치는 결혼식을 치루기 전에 양가에서 혼사말을 전하고, 남자쪽에서 여자쪽으로 함보내기의 형식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13) 이에 앞서 남자 쪽의 어른이 여자 쪽을 찾아가 혼인을 부탁하는 혼새말을 한다. 청치 후에 혼례식이 이루어진다. 이때 우시를 하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가는 우시꾼(상객) 일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이가 국시머이기이다. 이들 우시꾼 일행은 남자 집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음식을 요구하면서 여자 쪽 큰 우시꾼을 매단다. 이때 내오는 중요한 음식이 돼지다리라 한다.(14)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날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식이 예물 드리기인데, 우리의 폐백과 같다.(16) 이곳의 혼례식 중에 특이한 것은 신부가 임신을 하면 잔치상 밑에 조금만 임신한 아이를 위한 목적상을 차려 놓는 것이다.(220) 위와 같은 전통적인 결혼식은 이제 연애결혼과 경제적 여건으로 이미 오래 전의 일로 기억되고, 현재는 예식장이나 대형음식점에서 치러지고 있다.

환갑에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찰떡, 증편, 가주리, 감주, 베고자 등의 음식상을 차려올리고, 당사자는 자녀, 친척들, 이웃들의 축하를 받는다. 이제 과거처럼 집이 아닌 큰 레스토랑에서 치러진다는 차이가 있다.

장례.제례는 사망 직후의 혼 부르기부터 시작해서 칠성널(판), 명정쓰기, 운구, 발인제(사망 당일), 초우제/반혼제(장례 직후 당일), 재우제(장례 2일째), 기제사(사망 1,2주년), 묘제(한식, 단오, 추석) 등으로 진행된다. 사람이 운명을 확인하는 것도 병원에서 죽기 때문에 전통적인 운명확인 방법을 알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20) 설날 전날 돌아가시면 당일의 장례를 치루는 것도 특이하다.(21) 장례식 절차를 보면 우선 사람이 죽으면 혼 부르기를 시작한다. 혼 부르기는 죽은 영혼을 집 밖에서 불러 빨리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는 방식으로, 한국의 고복방식과 같은 의식이다. 다만 우리의 고복은 떠나는 영혼을 불러드려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영혼이 빨리 떠나라는 반대의 의미이다. 혼 부르기는 고려인의 상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다만 옛날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였으나 요즘은 문밖에서 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22) 죽을 사람을 위한 수의와 관을 준비는 우리나라에선 윤달에 하지만, 이곳에서 그런 의식을 없다.(23)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칠성늘에 올려놓는데, 우리나라의 습염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우리는 습염이 끝나면 관을 뚜껑을 덮고 못

을 박아 열지 못하게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신을 칠성늘에 올려놓다가 다시 관에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지 않고 옆에 세워 놓는다.(25) 따라서 방안의 있는 시신을 밖으로 운반할 때에 관 뚜껑이 먼저 내온 다음에 관을 나온다. 관을 드는 사람들은 친척인 아닌 사람들이 하며, 관은 문턱을 한 번만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내올 때 문턱을 덮거나 창문을 통해서 나온다.(27) 발인제는 관을 문밖으로 내놓고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고 이후에 운구하게 된다. 운구방식은 옛날에 손이나 수레로 운구하였으나, 오늘날 마시나(차)로 운구하고 있다(28) 한편 박박티에서 조사한 장례절차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대문 앞에 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상제난 사람의 옷을 문 앞에 놓았다가 내간다. 그리고 혼 부르기는 저승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가라고 혼 부르기를 한다. 그리고 관 앞에서 조밥을 해서 세 그릇을 놓았다가 관을 나갈 때는 밥을 내어 냇가에 버린다. 관을 나갈 때는 머리부터 나가며,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많은 장례 절차에 대해 말씀하였지만, 책을 바탕으로 장례를 지내고 있었다.(294)

제례는 돌아가고 1년째 지내는 제사와 2년째 지내는 제사는 친척과 인근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안에서 지낸다.(30, 31) 그리고 돌아가신 3년째 제사부터는 무덤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한식, 단오, 추석, 설날에 지낸다.(32)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설날에는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 1937년 이후에 소련법만 따르면서 고려법이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265) 이제 상례와 제례는 고려인이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개별차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7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7분야	놀이	집단놀이	알마타	말타기, 서리
			우쉬토베	꼬리잡기, 땡기놀이(인간줄다리기), 줄넘기2, 줄다리기,
		개인놀이	알마타	화투, 육구치기(옷놀이), 공기놀이(설,대보름),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단오)/ 기타-제기차기, 알치기(알차), 돈치기, 숨박꼭질, 연날리기, 자치기(라므타), 가락치기, 공치기,
			우쉬토베	사방치기, 제기차기(쟁구), 근디타기, 팽이치기, 널뛰기, 육구치기(옷놀이), 구양치기, 돈치기(벽/원,자체 이용), 싸싸싸, 실뜨기, 숨박꼭질, 수건돌리기, 줄넘기, 공기놀이, 썰매타기, 콩지타기(발스케이트), 말타기, 돌치기
	축제			
무예				

7분야에 속하는 자료는 총 43편이다. 이 중에서 집단놀이가 6편이고 개인놀이가 37편이다. 그리고 축제와 무예에 관련된 것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마을축제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의 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언뜻 구술하였으나 현대적 마을 전체의 놀이라 축제로 고려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하였다.

집단놀이를 마을단위로 하는 지신밧기, 줄다리기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신앙적 측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아이들의 놀이를 제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나누어 하는 편놀이가 보인다. 그 놀이를 보면 알마타에서 조사한 말타기, 서리가 있고, 우쉬토베에서 조사한 꼬리잡기, 댕기놀이(인간줄다리기), 줄넘기2, 줄다리기 등이 있다. 말타기는 편으로 나누어 노는 놀이로, 가위바위보에서 진편이 말이 되는데, 앞사람의 가랑이 사이에 뒷사람이 머리를 박고 이어가면, 이긴 편은 말의 등을 올라타고서 앞으로 이동한다. 이때 말을 타는 측에서 말을 타다가 떨어지거나 타지 못하면 서로 역할을 바뀌어 놓는 놀이다. 그리고 서리는 편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하는 놀이로, 지금은 도둑에 해당한다. 서리는 옛날 어렸을 때 반드시 하였던 놀이라며, 어느 집에 특수한 것이 있으면 약속을 하고 갖다가 먹는다. 고려인들은 타 민족의 개를 잡아다 먹은 것도 하나의 서리 풍속이라고 하겠다. 이런 서리는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사라졌다.

우쉬토베에서 행하여진 꼬리잡기(마감사람 잡기)는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앞사람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고서 줄을 만든다. 다음에 맨 앞 사람이 상대방의 꼬리 쪽을 공격하여 끊어지게 한다. 끊어진 사람은 끊은 편으로 뒤에 붙어 계속하여 놀이를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꼬리가 정해진 숫자가 떨어지면 이기는 놀이이다. 댕기놀이(인간줄다리기)는 앞의 놀이와 구성 방식이 같으나, 맨 앞 사람이 상대방의 맨 앞사람과 다리(잡아당기기)를 하여 끌려오는 사람이 지는 놀이이다. 줄넘기는 긴 줄을 가지고 하는 놀이로, 편을 나눈 뒤를 진편이 줄을 돌리면 이긴 사람들이 줄에 들어가 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 진행하는 것이다. 줄다리기는 밧줄의 양쪽에 사람들이 매달려 줄을 댕겨 상대방을 끌어와서 이기는 놀이이다.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였다.

개인놀이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로 화투, 육구치기(웃놀이), 제기차기(쟁구), 고무줄놀이 등이 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 사회에서는 과거에 알마타에서 공기놀이(설,대보름),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단오) 제기차기, 알치기(알차), 돈치기, 숨박꼭질, 연날리기, 자치기(라므타), 가락치기, 공치기 등을 놀았고, 우쉬토베에서는 사방치기, 근디타기, 팽이치기, 널뛰기, 육구치기(웃놀이), 구양치기, 돈치기(벽/원, 자체 이용), 싸쌔쌔, 실뜨기, 숨박꼭질, 수건돌리기, 줄넘기, 공기놀이, 썰매타기, 쫘미타기(발스케이트), 말타기, 돌치기 등이 놀았다. 이런 놀이는 고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놀면서 다른 민족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여러 민족들의 놀이가 섞여 있어 어느 민족의 유산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대부분의 놀이들은 50-60년대에 전승이 단절되었는데, 1990년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차원의 민속놀이들을 재구성되어 단오나 명절에 놀이로 시도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설이나 단오 때에 제기차기, 웃놀이, 그네타기, 널뛰기 정도가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2) 키르키즈스탄 고려인 사회

키르키즈스탄의 현지조사 자료들은 분야별 편차가 더욱 심하다. 즉 자료를 보면 농업경작이나 의식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다. 이는 키르키즈스탄의 조사지역이 수도인 비쉬케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농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농업지역인 카르발타 지역의 조사 때 제보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되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분야의 의식주 분야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3분야와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1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 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1분야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무예	무용	비쉬케크	허튼춤
			카르발타	부채춤
		연희	비쉬케크	활동사진
			카르발타	활동사진
		예술단체	비쉬케크	고려극장 공연예술단(심청전, 흥부전공연)
			카르발타	연극단

1분야인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관한 자료는 6편이다. 이 중에서 단체를 구성하여 예술문화를 향유한 것은 옛날에 5-60년대의 콜호즈에서 자체로 형성 것과 달리, 달리 1970년대 개인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일부 현대적인 악기 합주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용의 허튼춤과 부채춤에 대한 것이 있으며, 연희활동은 활동사진이란 영화에 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튼춤(24)은 무용의 춤 종류의 하나이다. 비쉬케크에 살고 있는 나 발렌틴에 의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놀 때, 우리나라 전통적인 춤에서 특별한 기교가 없는 일반적인 춤인 허튼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를 막춤이라고 하는데,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너울너울 추거나 머리 위로 들어 몸과 몸을 흔들면서 추는 춤이다.

부채춤(198)은 카라발타에 사는 제보자 이 빅토로 세묘노비치에 의하면, 1970년대 칩켄트에서 살고 있을 때, 콜호즈의 젊은 아가씨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원들이 있었는데, 알마타에서 나온 전문예술단원에게 부채를 가지고 추는 춤을 배웠다. 이들은 당시에 인근의 콜호즈에 공연하기도 하였으나, 활동기간은 5년 정도를 하다고 해체되었다고 한다.

활동사진(50, 197)은 무성영화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 용어이지만 뒷날에도 영화란 말로 사용하였다. 나 발렌틴에 의하면 무성영화는 고려극장에서 만들어 각 콜호즈에 보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빅토로도 활동사진을 타쉬켄트에 있을 때 많이 보았고, 칩켄트에 있을 때도 콜호즈를 중심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고려극장 공연예술단(46)은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던 고려극장에 전문적인 예술단을 형성하여 당시 소비에트 고려인 사회에 연극을 공연하고 영화를 만들어 보급하였던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한 콜호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 사회에서 콜호즈를 돌아다니면서 위문공연 형태의 공연을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영화배우나 극단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공연 내용은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등이었으며, 초기에 고전극을 공연하다가 후기에 콘서트 방식을 전환하였다.

칩켄트 연극단(199)은 제보자인 이 빅토로 세묘노비치는 주로 활동하였던 카자흐스탄의 칩켄트의 연극단이다. 그는 칩켄트에서 연극단이 구성되어 연극을 공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연극단은 개별적 존재한 것이 아니라 칩켄트의 문화예술단원에 일원이 되어 연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극을 제작하여 칩켄트의 콜호즈만 아니라 인근의 콜호즈에도 공연을 하였다.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2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 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1분야	목공예		비취케크	목수의 도구(45)

2분야에 대한 유일한 자료이지만, 내용은 구체적인 공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제보자의 아들이 목수를 하였던 상황에서 목수가 가지고 있던 연장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연장들을 가지고 60-70년대 장식장이나 실내가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3) 의학[민간요법]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3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3분야	의학(민간요법)	식물요법	비취케크	민들레, 된장, 초
		동물요법	비취케크	개털
		광물요법		
		주술요법	비취케크	할머니손 약손
	농업	경작	비취케크	벼농사
		농경속		
		재래농기구	비취케크 카라발타	조리, 광주리, 함지, 가마니(섞), 밀집방석(디딜방아)
	사냥·채집	사냥의례		
		채집		
	어업	어업의례		
		채집		
	축산업	가축		
		양봉/양잠		
축산도구				

3분야 속하는 자료는 총 13편으로, 의학(민간요법)이 6편이고, 농업경작과 농기구에 관한 자료가 7편이며 그밖에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3분야는 비취케크에서만 조사되었는데, 카라발타에서는 조사 도중에 교회를 간다고 나섰기 때문에 일부 조사하다 그만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적 특성을 가진 비취케크에서 농촌적인 자료의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제보자 중에 한 분은 이곳에서 목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전통적인 목축이 아니라 현대적인 목장 목축이란 선입견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의학(민간요법)에 관련된 자료는 비취케크에서만 조사되었다. 우선 **식물요법**에 관련된 자료는 민들레(121)가 있는데, 손이나 몸이 칼이나 다른 기구로 비어 졌을 때 민들레를 찢어 상처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다. 된장(123, 124)은 일을 하다가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게 되거나, 머리를 다쳐 상처가 나면 장(된장)을 붙이면 낫는다고 한다. 그리고 초(249)는 못 먹어 배가 불러올 초를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다. 한 예화를 보면, 이주 초기에 제보자도 보통 아이들처럼 못 먹어 배가 불러왔다. 그때 형들이 덧으로 잡은 토끼를 팔아서, 그것으로 약국에 있던 부친이 초를 사다가 먹여서 배의 부기가 빠져 살았다고 한다.

동물요법(122)은 개에 물리면 그 개털을 잘라 붙이면 낫는다고 하였는데, 개한테 물리면 그 개를 잡아 조금 깎은 털을 태운서 물린 상처 부위에 붙였다고 한다.

주술요법(120)으로는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가 있다. 활용할 약이 거의 없던 옛날에 아이의 배가 갑자기 아프면 어디 약을 구할 곳이 없다. 그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픈 아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이의 배 아픈 것이 낮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힘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주술적인 치료라 하겠다.

농업에 관련 자료는 키르키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이주 초기에 호레즘에 있었던 벼농사에 관한 것이다. 제보자 강 티티아나(옥순)은 1937년 호레즘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그곳의 우즈베크인들은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이듬해에 조합을 결성하여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고려인들은 황무지에 불과하였던 곳을 개간하여 밭갈이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이다.(95)

재래식 농기구로 이 빅토로 세묘노비치가 제보로 디딜방아가 설치되었다는 카라발타의 한 집에 찾아 갔으나 주인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 디딜방아가 놓였던 학독만 확인하고 나왔다. 그리고 나 발렌틴의 제보에 의하여 조리는 원동에 있는 때, 쌀이나 보리로 밥을 할 때 돌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하였던 기구였으나, 이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본적인 없었다.(12) 그리고 광주리도 마른 곡식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인데, 원동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만드는 사람이 없어 사라졌다.(13) 또 함지는 양철로 만들 그릇인데, 이것도 농촌에서 곡식을 운반하거나 임시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구였다. 그런데 함지는 이곳으로 이주한 뒤에 물장난을 치는 놀이기구로 이용하였다.(14)

이번 중앙아시아 조사에서는 초기 가마니 혹은 쉼을 만들었던 흔적인 찾았다. 나 발렌틴의 의하면, 옛날에 돛자리를 만드는 틀에 새끼를 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두 줄씩 추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추를 이용하여 짚을 엮어서 쉼이나 가마니를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촘촘한 가마니이기도 아마도 쉼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4) 또 마당 바닥에 깔고 사람이 쉬게 하거나 곡식을 건조시키는 방석을 만들기도 하였다. 방석을 만드는 방법은 밀집이나 짚을 가운데서부터 두툼하게 엮어나가기 시작하여 둥그렇게 하거나 네모지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방석을 밀집이 아닌 갈대를 이용하였는데, 이때는 쉼과 엮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55) 이외도 어느 마을이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적인 농기구로는 낫, 호미, 삽, 쇠스랑, 극계 등과 관상용의 떡메를 카라발타의 땅집(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 빅토로 세묘노비치 댁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수량 단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예로 수박을 살 때 개수 보다는 kg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 단위가 사라진 것 같다. 다만 날개를 대량으로 사거나 담을 때 커대(100k, 200k)라는 포대에 담았기 때문에 수량 단위로 사용하고, 떡은 덩기(덩어리)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4) 구전전통 및 표현 (4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4분야	설화	신화		
		전설	비쉬케크	소학령의 유래
		민담	비쉬케크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국시 먹이기가 없어진 유래, 상세를 세루 미루는 조카들,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1,2, 배를 찾아온 지혜 있는 아들, 내덕에 산다,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달은 흥범도, 성냥을 무서워하는 늑대와 호랑이, 흥부전, 일만 시키는 계모, / 조선인의 식사법, 바보 신랑, 꿈에 금을 받고 태어난 아들, 자린고비, 총을 잘 놓은 흥범도, 바닷물을 팔아먹은 김삿갓, 공작새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밀양 아랑의

				전설, 제사와 혼령	
			카라발타	쌀독에 앉아 있는 업구렁이, 상사뱀, 상사뱀의 퇴치, 뱀을 얻은 태몽, 우시가 없어진 유래.	
			노동요	비쉬케크	자장가, 농부가, 저 건너의 야장들이, 디딜방아 노래, 농부의 일생
				카라발타	씨를 뿌려라(농부가)
			의식요		
			유희요	비쉬케크	아리랑, 꽃이라고 다 꽃이나, 내 사랑 크레멘타인, 장백산가, 남쪽나라 떠나는 곳, 심청가
				카라발타	아리랑, 고향 생각, 목화 따는 처녀, 내 사랑 크레멘타임, 정든 고향 월동,
			무가		
			판소리		
			속담 및 수수께끼	카라발타	먹을 게 없는 제사는 절을 9번이다.
비쉬케크	평안도 쌍놈 경상도 양반. 하늘이 몽크러져도 효자 나갈 궁리는 있다.				

4분야 속하는 자료는 총 50편으로, 설화가 28편이고, 민요 19편이며, 그리고 속담 및 수수께끼가 3편으로 조사되었다.

설화에 대해서는 앞의 이복규 산생님 발표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많은 민담 자료가 전승되고 있음에도 신화는 발견할 수 없고, 전설로 부를만한 자료는 많지가 않다. 민담으로 처리하였지만 그래도 전설로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흥범도에 관한 것은 인물전설로, 소학령의 유래는 지명유래담으로 볼 수가 있을 정도다.

* <설화자료에 대한 정리 추후에 제시되도록 할 것>

민요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전통적 노래를 한 두 마디를 부를 수 있다. 제보자들은 미리 쪽지에 적어 조사에 응하였다. 이만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래가 남아 있어,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수집되고 연구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곳은 고려인들이 이주한 것이 60년대라 점과 벼농사 지역이 아니었던 점에서 볼 때, 벼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보다 유희요가 많이 전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동요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씨를 뿌려라’는 이곳에서도 조사되었다. 이외의 노동요로는 비쉬케크에서는 자장가, 농부가, 저 건너의 야장들이, 디딜방아 노래가 있고, 카라발타에서 씨를 뿌려라(농부가) 1편을 조사하였다.

유희요는 부르는 것을 즐기기 위해 불리는 노래로,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사된 유희요는 위의 항목과 같이 많은데, 그중에 ‘내사랑 크레멘타인’ 널리 불리고 있었으며, 아리랑은 1990년 이후에 한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배운 노래였다. 그리고 이주민의 한을 드러내 노래로 ‘정든 고향 월동, 남쪽나라 떠나는 곳, 고향 생각’ 등이 있다. 그밖에 목화 따는 처녀나 꽃이라고 다 꽃이나 등은 남녀 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비단문인 **속담과 수수께끼**는 3편을 조사하였는데, 속신신앙에 있는 자료들을 속신어로 구분하면 더 많은 자료가 존재한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카라발타에서 조사한 ‘먹을 게 없는 제사는 절을 9번이다’는 제사를 지내는데 후토제 3번, 본 제사 3번, 그리고 마지막 3번 절을 하여 9번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여 제사의 번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의 절하는 법은 한국과 달리 한 번 몸을 굽히면서 고개를 3번 숙이는 절을 하는데,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할 때의 절하는 방법과 같다. 제사에 절을 많이 하지만, 정작 살아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하늘이 뭉크려져도 효자 나갈 궁리는 있다.'는 앞의 내용과 반대로 효를 강조하고 있다. 한 사람이 죽은 부모님의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효자들은 생활이 어렵게 되지만, 하늘이 도와주어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평안도 쌍놈 경상도 양반'은 아마도 조선시대의 지역적 선민의식과 윤리의식이 이곳 중앙아시아까지 전승된 것이라고 보겠다. 평안도로 지칭되는 이북 사람들을 천대하고, 서울 인근의 강원도로 상징되는 남한 사람들을 높였던 내용에 관한 속담이다.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5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5분야	의생활	방직		
		바느질		
		염직		
		복식	비취케크	저고리, 한복, 버선.
		특수의상		
		세탁.다듬이질		
	식생활	일상음식	카라발타	옛날 밥하기
		별식	비취케크	노가리
		절식(節食)		
		의례음식		
		구황음식		
		음식도구	비취케크	조리(복조리)
	주생활	저장식품		
		상차림		
		집안 시설물		
		공간 기능		
	세시풍속	가옥 구조		
건축의례				
		비취케크	설, 한식과 추석, 윤달, 콩 볶아먹기(2월) 죽 먹기, 오그레, 두부먹기, 시루떡 먹기, 개회	
		카라발타	오곡밥, 까마귀날, 귀밝기 술, 잘 사는 집의 구정물을 주인 몰래 가져오면 복을 받는다. 키가 큰 남자가 들어오면 좋다,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구차하게 된다. 설날에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뽕(병)이 든다.	

5분야에 속하는 자료는 총 22편으로, 의생활이 3편이고 식생활이 2편이며, 주생활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 못하였고, 세시풍속을 17편 조사하였다.

의생활은 비취케크 지역에서 조사한 것이다. 우선 버선은 양발을 대신하였던 것인데, 강제이주 초기에 어머니들이 손수 만들어 주었다.(209) 그리고 한복은 부모님들이 이곳에 도착한 초기에 일상생활 할 때에 평상복으로 한국옷(치마, 저고리)을 입고 다녔다. 이런 한복은 40년대 후반을 넘으면서 특별한 날에 입는 외출복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한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208) 그리고 1940년대 중반 겨울에 교사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자 솜을 넣을 저고리를 주어 입게 하였다.(96) 최근 한복을 만드는 방법조차 거의 모르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서 사다가 입는다고 한다.

식생활은 일상음식에 대한 것보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회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카라발타의 제보자에 의하면, 옛날에는 구차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을 할 때 쌀에 보리, 기장쌀, 옥수수쌀 등을 넣고 밥을 한다. 이때 가장 밑에 옥수수쌀을 그 위에 기장쌀, 보리쌀, 쌀을 놓고 밥을 하여 어른들에게 위에 밥을 드리고, 밥하는 자신은 가장 나쁘고 적은 양의 밥을 먹었다.(138) 노가리는 조사자들이 제보자의 댁을 방문하였을 때 저녁 반찬으로 지져서 내놓은 것이다. 이 노가리는 극동에서 온 사람이 선물로 준 것으로, 귀한 손님에 왔을 만드는 음식이라고 한다.(204) 조리나 그 밖의 식생활에 관한 자료들을 사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주생활은 대부분 현지식 주택구조나 현대식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카라발타 지역에서 제보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가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세시풍속은 명절로서 설, 한식, 단오, 추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밖에도 많은 세시풍속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를 보면 대개 한식, 단오, 추석만 언급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한국에서 행하였던 많은 세시풍속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설날의 풍속은 설날 전날 밤에는 가족이나 동네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겁게 놀았으며, 설날 아침에 세배를 드리고, 하락시에게 점을 치기도 하였다.(2,98) 한식과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소에 가는 날이었다. 따라서 다른 풍속에 대해 기억이 없었으나, 최근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에 세시명절로 강화되었다.(100)

정월의 풍속을 보면 오곡밥 먹기라고 정월 보름날에 쌀, 보리 콩, 조, 옥수수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밥을 해서 먹는 풍속이고.(151) 까마귀 날은 정월 16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날 구룡물을 떠다가 빈손을 하고서 저녁때 매우(연기)를 피우면 까마귀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은 쥐날의 풍속과 유사한데, 이곳에서 쥐보다 까마귀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변형된 풍속인지 알 수 없다.(151) 귀뺨기 술의 풍속도 어느 날이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술을 데워서 아이들에 주었다고 한다.(153) 속신어로 '잘 사는 집의 구정물을 주인 몰래 가져오면 복을 받는다'는 한국에서 정월 보름날 행하는 속신으로 '부자 집 마당 흙을 퍼오면 복이 옮겨 온다'는 것과 같다. 이 풍속은 물이 부족한 이곳의 현상 때문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154) 또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구차하게 된다'는 속신은 구체적으로 한겨울의 어느 날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의미상 한국의 토끼날의 속신의 변형으로 보인다.(156) 그리고 '설날에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병(병)이 든다.'는 속신도 설날이라고 날짜가 지정되어 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호랑이날 속신의 변형으로 보인다.(157)

그 밖의 세시풍속으로 겨울에 봄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콩 볶아 먹기 풍속이 있다. 이는 원동에 있을 때 콩을 볶아 먹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없어진 것 같다.(5, 99) 또 봄에 되면 죽을 쑤어 먹는 풍속이 있다.(6) 여름의 풍속으로는 개를 잡아 장국을 끓여 먹거나 개회를 해 먹었다.(9) 가을의 풍속으로는 농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두부를 만들어 먹거나 오그레를 씹 먹었다.(7) 겨울의 풍속으로는 농사일을 다 끝나고 동삼(한겨울)이 되면, 열콩(팥)을 삶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쌀가루를 놓은 다음에 열콩을 위에 놓은 시루떡을 해 먹는다.(8) 윤달은 양력과 음력 사이에 일수 11일이 되어 윤달을 두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윤달에 풍속으로 개를 잡아 먹지 않는다고 한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6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6분야	마을 신앙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			
		숫대제			
		기타			
	개인 신앙	성주신앙			
		터주신앙	카라발타	토지신	
		조왕신앙			
		삼신신앙	비쉬케크	몸종이(삼신)	
		조상신앙			
	무속 신앙	기복굿	비쉬케크	하락시(점쟁이), 신선이와 하락시	
			카라발타	하락시와 신선이와 무당	
		양재굿	비쉬케크	귀신퇴치, 길가름	
			카라발타	정월 대보름날의 방토	
	속신 앙	비쉬케크	비쉬케크	악운 떼우기(제웅치기의 변형), 선달 그림날 일찍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 야광귀, 결혼식 날 머느리가 쌀 커대를 넘으면 부유하게 산다. 화장실에 가서 천장을 보면 귀신이 온다. 폐병 상가집에 가서는 고기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상가집에 고양이를 먼저 치운다	
			카라발타	집에 들어 뱀이 죽으면 안 좋다. (산모가) 닭고기를 먹으면 젖이 준다	
	일생(통과)의례	산속	비쉬케크	태몽, 태아 남녀 성감별법(태몽, 산모의 배 모습) 태 처리법, 출산 후 출입금기(한달), 돌, 돌옷, 돌잡이(쌀3그릇, 바늘, 실, 책, 열콩(팥), 연필, 돈), 시래기국, 백일잔치,	
			카라발타	미역국, 태아감별법(나이수, 산모의 배 모양, 태몽) 태 처리법(물에 띄워버림), 출산후 출입 금기(40일-타문화영향), 돌, 돌잡이,	
			관례		
		혼례	비쉬케크	혼인식(혼새, 혼셋말, 청치, 우실, 국시먹이기 등), 임신한 여자 혼례 상차리기, 회혼례, 결혼상. 결혼식 금기, 혼수품 싸기, 쌀 커대 밟기, 예단 올리기, 재행, 시부모 문안 인사, 시부모 문안인사,	
			카라발타	결혼식(혼새말, 청치, 우시, 국시먹이기)	
		환갑, 칠순	비쉬케크	환갑 (상차림)	
			카라발타	환갑 (상차림)	
장례, 제례		비쉬케크	비쉬케크	상례(임종확인법, 혼 부르기, 사자상, 수시와 습염, 칠성늘, 입관, 관 내오기, 발인제, 운구, 묘소, 하관, 묘소 제사. 봉분제, 반혼제, 초우제와 삼우제, (재우제) 성묘(한식, 추석), 기제사(1,2년: 소상, 탈상), 묘제(한식, 추석), 임신하고 죽은 여인의 무덤 만들기, 설날 전날 상세법, 관 만들기,	
			카라발타	임종 확인법, 혼부르기, 사자밥, 수시와 습염, 입관, 칠성늘, 매장할 때 금기, 매장법, 봉분제, 반혼제와 삼우제, 관 나가는 방법, 제사	

6분야의 자료는 112편을 조사하여 두 나라의 각 분야에서 가장 많다. 절대 다수가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생인 관혼상례에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유형에서 마을신앙이 전혀 조사되지 못하였고, 가신신앙에 해당하는 개인신앙이 4편, 무속과 관련된 신앙이 9편, 민간에서 전해지는 속신앙이 9편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관혼상례의 자료는 카자흐스탄의 2배가 넘는 90편이나 되었다.¹¹⁾

마을신앙은 이곳에도 전승되거나 남아있는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이 없었다. 이는 마을 단위의 신앙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강제이주 당시의 소비에트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개인신앙은 가정신앙에 해당하는 소분류 항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 유형의 자료는 토지신, 몸종이(삼신), 업, 그리고 조왕신인지 칠성신인지 불분명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런 가정적인 개인신앙은 60년에 완전하게 사라져, 어린 시절 듣거나 본 것 외에는 거의 전승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카라발타에서 조사된 토지신은 제보자들이 무의식 중에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묘지를 파기 전에 땅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낼 때에 후토제를 지낸다는 점에서 토지신 신앙이 존재한다 하겠다.(146) 몸종이는 비취케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를 인도하는 신으로 돌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삼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제보자는 몸종이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삼신할머니라는 전통적인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아이가 다치지 않게 돌보아 준다.(229) 업 신앙은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 사람이 쌀을 내려 갔다가 쌀 위에 구렁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의 뉘트로 여겼다, 그 이후에 그 집에 좀 생활이 나아졌다.(143, 144) 한편 비손에서는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였을 때, 부엌이나 밖의 밭에 나가서 물을 떠 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빌었다고 한다. 이때 비손하는 대상 신의 존재가 칠성신이나 조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명확한 신명을 알지 못하였다.(142)

무속신앙은 우선 무속을 지속시키는 무당들이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무당의 종류를 굿을 하는 무당과 치병제의를 하는 파락호(혹은 신선이), 단순하게 점만 치는 하락시로 나누었다. 하락시는 농촌에서 좀 살만한 사람이 술법을 배운다. 하락시의 활동은 농사를 시작하려 갈 때 점을 치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이루어진다.(3) 한편 굿을 하던 무당들은 원동 시절에 있었으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직후에 사라졌고,(130) 악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신선이(파락호)도 이제 전승이 끊어졌으며, 점을 치는 하락시도 찾아보기 어렵다.(141)

하락시들은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 참여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신선인들이 와서 방토(방포)를 도와준다. 귀신을 물리치는 과정을 보면, 닭을 잡고 증기 밥을 하여 밤 12시에 신선이가 하늘에 대고 아이가 낮게 해달고 빌었다.(126) 사진을 가지고 물가에 가서 태운다.(128) 고양이를 잡아 사람처럼 만들고 돼지를 잡아 길가에 나가서 치병제의를 하는데, 신선이가 아이를 곁에서 사발을 들고 두드리다가 칼을 던져(대개 3번) 똑바로 나갔을 때 끝낸다.(129) 길가름은 신선이가 세 갈래의 길에 나가서 퇴치행위를 한다(127) 등이다. 카라발타에서 행한 방토를 보면, 정월 보름날에 달이 솟아오르면, 신선이 달을 보고 칼을 휘두른 다음에 칼을 던져 나가는 방향에 똑바로 나가면 끝냈다.(139) 정월 대보름에 밥, 닭, 술을 준비하여 구룡물이 나가서, 신선이 불을 가지고 환자에게 휘두른다. 그런 뒤에 칼을 던져서 점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140)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의 무속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사신거리나 치병제의 마지막 형태를 띠고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속신앙은 민간에서 신앙처럼 믿어지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많이 전승되고 있다.¹²⁾ 속신앙의

11) 관혼상례에 속하는 자료들은 인간의 일생에 해당하는 각 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자료를 보면, 악운 때우기는 겨울에 하락시에게 점을 쳐 그 해 운수가 나쁘면, 아이를 닦은 후에 그가 입었던 옷에다 돈을 넣고 밤에 다른 아이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돈을 빼어나고 차버린다는데, 정월 보름날 하는 제웅차기와 비슷하지만 날짜가 일정하지 않은 듯하다.(4) 야광귀는 한국에서 세시풍속에 넣는데, 이곳에서 세시풍속의 의미를 잊고 신앙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 즉 야광귀가 내려와서 어린아이의 신발을 신으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이 크면 자동적으로 없어졌다.(11) 그밖에 속신앙들을 보면, 설달 그믐날 일찍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10), 결혼식 날 며느리가 쌀 커대를 넘으면 부유하게 산다.(104), 화장실에 가서 천장을 보면 귀신이 온다(125). 폐병 상가 집에 가서는 고기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상가 집에 고양이를 먼저 치운다(248)와 카라발타에서 조사된 집에 들어와 뱀이 죽으면 안 좋다.(145) (산모가) 닭고기를 먹으면 젖이 준다(150) 등을 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미역국에 닭고기가 들어가면 젖이 준다고 하여 미역국에 돼지고기를 넣기도 하였다.

관혼상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겪어야 할 관문으로 통과이레, 일생의례라고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과정의 산속,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성인식, 남녀가 서로 만나 짝을 이루는 결혼식, 나이를 먹어 생일 찾는 의례, 죽어 저승으로 가는 과정의 상례, 죽은 뒤 후손들에 의해 치러지는 제례 등이 있다. 키르키즈스탄에서 조사된 관혼상례는 양적을 많다가 보니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으나, 내용이 카자흐스탄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또 키르키즈스탄의 비쉬케크나 카라발타에서 행한 관혼상례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지역적 차이이기도 개인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관혼상례에 대해 조사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산속은 비쉬케크에서 태몽, 태아 남녀 성감별법(태몽, 산모의 배 모습) 태 처리법, 출산 후 출입금지(한달), 돌, 돌옷, 돌잡이(쌀3그릇,바늘,실,책,열콩(팥),연필,돈), 시래기국, 백일잔치 등에 대해 조사되었고, 카라발타에서 미역국, 태아감별법(나이수, 산모의 배 모양, 태몽) 태 처리법(물에 띄워버림), 출산 후 출입 금지(40일), 돌, 돌잡이 등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출산 후의 출입에 대해 카라발타에서 40일로 된 것은 타민족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혼례는 비쉬케크에서 혼인식(혼새, 혼셋말, 청치, 우실, 국시먹이기 등), 임신한 여자 혼례 상차리기, 회혼례, 결혼상, 결혼식 금기, 혼수품 싸기, 쌀 커대 밟기, 예단 올리기, 재행, 시부모 문안 인사, 시부모 문안인사 등이 조사되었고, 카라발타에서 결혼식에 혼새말, 청치, 우시, 국시먹이기의 내용만 조사되었다.

환갑은 비쉬케크나 카라발타의 환갑잔치에서 상차림에 관한 것인데, 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 형제 중에 윗사람이나 동미(친구)들이라고 한다.

상례 및 제례는 비쉬케크에서의 상례 절차는 임종 확인법, 혼 부르기, 사자상, 수시와 습염, 칠성늘, 입관, 관 내오기, 발인제, 운구, 묘소, 하관, 묘소제사. 봉분제, 반혼제, 초우제와 삼우제, (재우제) 성묘(한식, 추석), 기제사(1,2년: 소상, 탈상), 묘제(한식,추석), 임신하고 죽은 여인의 무덤 만들기, 설날 전날 상세법, 관 만들기 등이 있는데, 제보자에 따라 삼우제와 재우제로 갈리고 있었다. 그리고 카라발타에서 임종 확인법, 혼 부르기, 사자밥, 수시와 습염, 입관, 칠성늘, 매장할 때 금기, 매장법, 봉분제, 반혼제와 삼우제, 관 나가는 방법, 제사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

관혼상례의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상례절차가 많은 부분에서 같은 점이 있으나, 운구를 마시

12) 속신앙에 해당하는 자료는 많이 있다. 다만 이번 분류는 어떤 자료의 비중이나 초점, 그리고 조사과정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통과이레나 세시풍속 등에도 속신앙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나(차)로 운구한다는 점이나 병원에서 낳고 죽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풍속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 밖의 풍속도 실제로 행하기보다는 대부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풍속이라고 하겠다.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7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지역	주요조사목록및내용
7분야	놀이	집단놀이	비쉬케크	말타기(염새타기), 장치기, 공차기1,2, 진 빼앗기, 공치기
			카라발타	공치기, 말타기
		개인놀이	비쉬케크	육구치기, 나무치기, 고누, 곤지, 알 따먹기, 알칙이(양무를뻐 던지기놀이), 제기차기1,2, 굴기, 뚝뚝기(숨박꼭질), 썰매타기1,2, 깐띠(발스케이트), 연날리기, 팽이치기(윤날), 공기치기(돌뚝기), 돈치기(벽/원/금이용) 단추치기, 원투쓰리(거마타기), 썩썩썩, 펜잘놀이, 물건모아놀이, 수건돌리기(43), 제기차기, 칼 뿌리기 놀이, 팽이치기, 돌뚝기, 실뜨기, 자치기(굴까), 소꿉놀이
			카라발타	숨박꼭질, 공기놀이, 그네타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자치기, 돌치기, 돈치기(벽/원이용), 널뛰기, 썩썩썩, 제기차기
	축제			
무예				

7분야에 속하는 자료는 총 51편으로 가자흐스탄보다 많다. 이 중에서 집단놀이가 8편이고 개인놀이가 43편이다. 그리고 축제와 무예에 관련된 것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집단놀이로 마을단위의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은 중앙아시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앞의 신앙적 측면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이다. 다만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의 검토하면 편놀이를 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 놀이를 보면 비쉬케크에서는 말타기(염새타기), 장치기, 공차기1,2, 진 빼앗기, 공치기 등이 있고, 카라발타에서는 공놀이와 말타기가 있다. 말타기는 염새타기라고 한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술래 편은 앞서사람의 가랑이에 머리를 박고 말이 되면 공격편이 말을 타게 된다. 술래 편은 공격 편이 타는 것을 방해하여야 하며, 공격 편은 말을 무너뜨려야 한다. 말이 부서지지 않고 말을 다 타면 마부와 맨먼저 말꾼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놀이를 다시 하게 되어 있다.(36, 187) 그리고 장치기는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전국에서 놀았던 놀이이다. 이곳에서는 깡통을 공으로 사용하고, 지계작대기와 같이 끝이 구부어진 막대기를 가지고 치며 상대 진영의 골라인 문 안으로 밀어 넣는 놀이이다.(40) 공차기1과 2는 가난한 시절에 하였던 축구와 같이 공을 차면서 상대편 골문 안에 밀어 넣는 놀이이다. 그런데 공차기 1은 모자 두 개를 합하고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넣어 공을 만들고(41), 공차기 2는 돼지의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공을 만들었다.(42) 진 빼앗기는 양쪽 진에 설치한 수건이나 깃발을 빼앗아 오는 놀이이다. 진 빼앗기에서 차이는 우리는 진을 먼저 나간 사람이 뒤에 나온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곳에서는 상대방이 중간을 넘어왔을 때 터치하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44) 공치기는 공을 형겅으로 만들어 수비가 공을 던져주면 공격자가 막대로 공을 쳐 날려 보내고 지정한 곳을 갔다 오는 놀이로, 수비는 공을 잡아 공격자를 맞추거나 어떤 지점에 먼저 보내면 죽이게 된다. 이는 공수가 교대되는 오늘날 야구와 같은 놀이이다.(107) 카라발타의 공놀이는 자신이 치고 달리는 것이 다를 뿐이다.(183)

개인놀이는 많이 조사되었다. 이번에 키르키즈에서 조사된 자료로는 욱구치기, 나무치기, 고누, 곤지, 알 따먹기, 알척이(양무릎뼈 던지기놀이), 제기차기^{1,2}, 굴기, 뚝뚝기(숨박꼭질), 썰매타기^{1,2}, 깡똥(발스케이트), 연날리기, 팽이치기(윤날), 공기치기(돌때기), 돈치기(벽/원/금이용) 단추치기, 원투쓰리(거마타기), 썩썩, 펜잘놀이, 물건모아놀이, 수건돌리기, 제기차기, 칼 뿌리기 놀이, 팽이치기, 돌때기, 실뜨기, 자치기(굴까), 소꿉놀이 등이, 카라발타에서 숨박꼭질, 공기놀이, 그네타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자치기, 돌치기, 돈치기(벽/원이용), 널뛰기, 썩썩, 제기차기 등이 조사되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런 놀이의 중심이 되어 놀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현재 조사된 놀이는 여러 민족의 놀이들이 섞여 있어, 어느 민족의 유산인지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대부분의 놀이들조차 50-60년대에 전승이 단절된 것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단절되었던 놀이가 1991년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차원의 민속놀이들을 재구성하여 단오나 명절의 놀이로 시도하였다. 그래서 지금 설이나 단오 때에 제기차기, 윷놀이, 그네타기, 널뛰기 정도가 행해지고 있다.

Ⅲ.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계승방안 및 제언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무형문화유산 중에 미약하지만 실제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조사된 이들의 문화유산들은 대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 다 사라지고 말 유산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나름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설화조사를 시도한 바가 있다. 그때 조사나 이번 조사에서 느낀 것은 그 소멸 시점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염려스런 것은 향후 얼마나 저들의 입에서 한민족의 설화가 이야기 되고, 민요가 불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무형문화유산도 이제 거의 행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현지 문화와 삶에 동화된 젊은 세대들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설화와 민요와 무형문화유산 같은 구비전승마저 사라지고 단절된다면, 이보다 큰 민족적 아픔은 없다. 결국 자기 문화를 모르는 소수민족은 주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려인의 전통문화를 향유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1세대와 1.5세대들이다. 강제이주 당시에 1세였던 사람도 76세가 되었다. 이처럼 전승 가승성이 있는 제보자들이 연로하여 빨리 조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있던 무형문화유산들이 사라질 것이다. 사실 2세대 3세대들은 이미 고려인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경제적 부를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 1세대들조차 현지문화에 동화되어 이제 고려말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조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도시로 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마을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따라서 전통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시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직은 고려인들이 자신의 문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이룬 뒤에 자신들의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간은 현지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적 삶의 공간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젊은 지식인들 중에 고려인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결합되어 전승되는 고려인 문화유산들도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와 무형문화유산

안상경·이병조(충북대·한국외대)

- I.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와 역사문화유산
- II.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양상
 -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4) 구전전통 및 표현
 -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2.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4) 구전전통 및 표현
 -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III.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계승 방안 및 제언

I.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와 역사문화유산

1860년대 초 조선 북부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한인(고려인)이주가 시작된 이래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다. 2014년이면 어느덧 독립국가연합 고려인¹⁾ 사회가 이주 150년을 맞이한다. 러

1) 고려인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사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후부터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이주를 전후하여 ‘한인’과 ‘고려인’으로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인의 대부분이 과거 고구려가 위치했던 한반도 이북 지역 출신이고(사할린 한인 제외), 또 한때 한반도가 고려(COREA)로 불렸던 것에 기인해서 오늘날 스스로를 ‘고려인’, ‘고려사람’이라 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할린의 한민족은 ‘고려인’ 대신에 ‘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독립국가연합 내의 한민족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고려인’으로, 사할린 한민족의 경우에는 ‘한인’으로 지칭하고 표기할 것이다.

시아 주류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하나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치부될 수 있지만 고려인의 역사는 독립국가연합(CIS) 내에서 짧지만 굵은 족적들을 남겨왔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고려인들의 역사는 크게 4개의 거주 공간과 시기 - ①극동(1864-1937, 연해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사할린주 등), ②중앙아시아(1937-5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③유라시아(1953-91, 과거 소련 전역), ④독립국가연합(1992-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포함 독립국가연합 전역) - 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 하지만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이주개척의 역사는 끊임없는 유랑의 역사로 점철된 채 이어져 왔다. 이는 유사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고 안정된 집거지를 구축해 온 중국 조선족 사회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랑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고려인 이주개척사의 슬픈 단면은 1860년대 이주 초기 이래 규모는 다르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한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것’, 즉 유무형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간직해 왔다는 점에서 위대한 한민족의 후예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약 150년의 세월 동안 고려인들은 거주 공간과 시기별로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세시풍습과 전통,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생산해 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려인 사회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민족의식을 보존 및 계승해 나가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형성의 1단계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시작되었다. 1860년대 이주 초기부터 1937년 강제이주 이전의 극동거주 시기 동안 고려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재이주정책에 의한 불안정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 우수성을 입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들을 생산해 나갔다. 즉, 고려인들은 농업개척과 1910년을 전후한 의병 및 빨치산투쟁(내전기, 1918-22)을 통해서 한민족의 근면성과 농업적 우수성, 극동의 권력수호를 위한 헌신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1922년 소련의 결성 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콜호즈 조직을 통해 러시아 주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언론활동(『해조신문』(1908), 『대동공보』(1908-10), 『권업신문』(1912-14), 『선봉』(1923-1937) 등), 예술문화활동(한인극장/1932, ‘고려극장’의 전신), 교육활동(한민학교, 명동학교, 제9호보범중학교/1924, 조선사범전문학교/1924, 고려사범대학/1931 등) 등의 활동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생산해 나갔던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시기에는 고려인 사회에서 한민족적인 전통문화들, 특히 구전전통과 식문화.세시풍속, 통과 의례, 전통적 놀이.축제 등의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선명하게 지켜지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다. 그밖에도 그에 따른 유형의 문화유산들(농기구, 디달방아, 맷돌, 우물, 떡구시와 떡매, 키, 체 등)이 고려인 사회에 한민족적인 정체성을 더해 주었다. 해당 시기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유무형의 정보는 이주 2세대 고려인들과 현지 기록보존소의 자료실과 연구소, 학술도서관, 그리고 과거의 집거지 내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다.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이주 정책은 고려인의 집거지를 중앙아시아로 송두리째 옮겨놓았다. 중앙아시아 거주 시기에 고려인들은 거주제한의 법적인 제약 속에서도 생존투쟁과 더불어 한민족의 정신을 유지해 나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주 직후부터 고려인

2) 고려인의 이주개척사 시기 구분은, 박 보리스, 부가이 니콜라이 저.김광한, 이백용 옮김. 2004.『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서울: 시대정신; 김계르만. 2005. 『한인 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http://kosa.culturecontent.com/>(스토리뱅크-원형스토리-1~4시기 참고), 2012/11/05일 검색)을 참조했음.

사회는 콜호즈 재건과 농·축산업(벼, 목화, 기타 작물, 가축 등)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생산성을 이루어 내었다. 1928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농업집단화와 국유화 정책으로 소련 전역은 이미 콜호즈 체제로 생활권역이 재편되어 오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들의 삶 또한 콜호즈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갔다. 콜호즈는 고려인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행정단위가 아닌 생존 근거지인 경제공동체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려인 사회는 거주제한과 ‘불온한 민족’이라는 민족적 차별의 하에서도 콜호즈 중심의 눈부신 농업활동을 통해 2차대전시기 후방지원의 선봉역할을 했다. 나아가 ‘불온한 민족’의 딱지를 떼고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며 중앙아시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나갔다. 콜호즈 중심의 생활 속에서 고려인 사회는 극동에서처럼 구전전통과 식문화, 세시풍속, 통과 의례, 전통적 놀이, 축제 등의 전통문화유산들을 계승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언론활동(『레닌기치』(1938-91) - ‘1923년 창간된 『선봉』’의 후신)과 예술활동(고려극장(1938-현재), 1932년 조직된 ‘조선극장’의 후신), 아리랑가무단-순회공연예술단, 소인예술단 등)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적 전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갔다. 이러한 토대는 이후 펼쳐지는 1950-80년대의 삶 속에서 큰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당 시기에는 대륙의 고려인 사회 외에 사할린주에도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사할린에 한민족(한인)이 등장한 것은 1870년대 경부터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은 1941-45년시기 일본의 강제동원(모집, 알선, 징용)에 의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주되어 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이주 시기나 출신(주로 남한 출신) 측면에서 대륙의 고려인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3-4만명 규모였던 사할린주 한인 사회는 현재 한인 1세대들의 영주귀국으로 대략 약 25,000명 정도가 남아있다.³⁾ 전통문화의 현상과 계승적인 측면에서 고려인 사회의 그것과 부분적인 차이는 다소 존재하나 사할린주 한인 사회 또한 한민족의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53년 스탈린의 죽음과 이후 흐루시초프의 등장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전역(과거 소련권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고려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되었다. 학생 및 청년층의 유학이나 고본질(계절농업) 등으로 이주나 장기거주가 확대되면서 콜호즈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고, 고려인들의 삶은 이전시기보다 더 한층 여유와 풍요를 누리나가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떠나 유라시아 전역에 자리 잡은 고려인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새로운 고려인공동체를 형성하고 고려인의 존재를 알려나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의 노력 덕분에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사업에서 큰 발전과 부흥이 이루어졌다. 『레닌기치』는 약 90년의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해외 유일의 한글판 재외한인 민족신문으로, 한민족의 언어와 문학, 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귀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고려극장 또한 8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외 유일의 민족 극장으로 심청전과 흥부전, 양반전, 장화홍련전 등의 고전작품과 다양한 민요가 어우러진 공연활동을 통해 민족예술의 계승자 역할을 감당해 왔다. 물론 이전 시기에 이어 알마타의 고려극장과 더불어 각지의 고려인 사회에서 활동해 온 소인예술단들의 활약과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비록 소비에트 체제 말기에는 삶의 질의 변화로 세시풍속이나 통과 의례 등의 분야에서조차 계승상황이 약해져 가지만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각지의 소인예술단, 고려인 이주 1세대들의 노력으로 유라시아 고려인 사회의 전통문화유산 자원들은 지켜지고 꾸준히 생산되어 나갔다.

3) 『새고려신문』, 2012년 1월 20일자(음력12월27일), 「Корейцы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유라시아 고려인 사회의 진화와 변화양상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독립국가연합 시기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비록 소련붕괴 직후 경제체제의 혼란과 중앙아시아 내 민족주의(특히 우즈베키스탄)나 내전(타지키스탄)의 발발로 어려움도 있었다. 적지 않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안정된 삶을 찾아 우크라이나(장코이 등), 러시아(볼고그라드주, 사마라주, 로스토프주, 연해주 등) 등지로 다시 한번 유랑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사회는 이전 시기에서처럼 농업분야를 넘어서 정계와 재계, 법조계, 교계, 언론 및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당당히 주류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특히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고려인협회나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기타 조직이나 단체들의 민족언어와 전통부활, 민족정신 계승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4년에 탄압받은 민족의 명예와 복권에 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고려인의 법적인 과거사와 지위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고려인 사회의 민족적 부흥의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 연해주와 사할린주의 한민족 사회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내 각국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찾기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에트 시기에 활동했었던 소인예술단을 부활시켜 전통민요와 무용 등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쉽게도 고려인 사회에서 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은 현지의 문화와 혼합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의 이주개척사는 중국 조선족 사회가 걸어 온 길과는 확연히 다른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고려인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양상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

1) 조사 개요

(1) 기간 및 지역

2012년에, 연구팀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와 타쉬켄트주 4개의 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세부적인 현지조사 지역들은 <표 1> 과 같다.

<표 1>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지역

국가	조사 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타쉬켄트주 콜호즈들 (김병화콜호즈, 시온고콜호즈, 북쪽등대콜호즈, 풀릿단젤콜호즈)

(2) 제보자 현황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 및 단체, 구술자(주로 고려인 이주1세대)에 대한 방문 및 인터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고려인 구술자들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제보자 현황

성명	출생년도	성별	거주 지역
한000	1930	여	북쪽등대콜호즈(타쉬켄트주)
허000	1948	남	북쪽등대콜호즈
김000	1948	남	북쪽등대콜호즈
김000	1943	남	북쪽등대콜호즈
박000	1944	여	북쪽등대콜호즈
안000	1929	남	타쉬켄트
최000	1928	여	타쉬켄트
최000	1925	남	타쉬켄트
김000	1930	남	김병화콜호즈(타쉬켄트주)
장000	1940	여	김병화콜호즈
황000	1942	여	시온고콜호즈(타쉬켄트주)
서000	1974	여	시온고콜호즈
김000	1937	남	시온고콜호즈
최000	1938	여	시온고콜호즈
남000	1941	남	북쪽등대콜호즈
허000	1931	남	플릿단젤콜호즈(타쉬켄트주)
황000	1937	남	플릿단젤콜호즈
김000	1947	여	플릿단젤콜호즈

2) 조사 결과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공연 예술 [1분야]	음악 무용	-	북쪽등대콜호즈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
			김병화콜호즈	김병화콜호즈 구락부
			시온고콜호즈	시온고콜호즈 우즈벡앙상블
			플릿단젤콜호즈	플릿단젤콜호즈 청춘앙상블
	연희	-	타쉬켄트시	소연극
놀이	-	시온고콜호즈	사물놀이	

(1) - 1. 음악, 무용

①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소인예술단)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에서 1968년부터 1982년까지 구루빠 활동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에 북한 출신 김홍률이 타쉬켄트주로 유학을 왔는데, 그가 북쪽등대콜호즈에 자주 들러 북조선의 노래와 춤을 전수했다. 북쪽등대콜호즈 구루빠 공연팀들은 김홍률과 함께 늘 밤 12시까지 노래와 춤을 연습했다. 설(양력 1월 1일), 여성기념일(양력 3월 8일), 큰전쟁해방된날(양력 5월 9일), 단오(음력 5월 5일), 러시아10월혁명기념일(양력 11월 7일) 등을 기해 자체적으로 공연을 벌였다. 또 프라우다, 폴릿달젤, 시온고 등지의 고려인 콜호즈로부터 초빙되어 공연하기도 했다. 구루빠 공연팀은 20여 명이었는데, 남성은 악기를 다루었고, 여성은 창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춤은 부채춤, 고리춤, 까삭춤(카자흐스탄춤), 로시아춤(러시아춤), 우즈벡춤(우즈베키스탄춤) 등이었고, 창가는 '장모님노래', '소방울타령', '우즈벡창가', '러시아창가' 등이었다. 이후 젊은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단절되었다.

② 김병화콜호즈 구락부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에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등 명절을 기해 100~150명 가량이 모여 파티를 벌인다. '아리랑', '도라지' 등 고려인 민요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단 한식과 추석을 기해서는 파티를 벌이기 전에 산소에 올라 성묘한다.

③ 시온고콜호즈 우즈벡앙상블

1960년대까지 시온고콜호즈에서 '바흐레'라는 우즈벡앙상블이 활동했다. 앙상블 회원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황제러시아'를 비롯하여 '스탈린노래', '레닌노래'와 같은 러시아 노래를 즐겨 불렀다.

④ 폴릿달젤콜호즈 청춘앙상블

타쉬켄트주 폴릿달젤콜호즈에서 청춘앙상블 공연팀이 활동하고 있다. 무용단은 8~10명이며, 음악단은 10~15명이다. 현재 총감독은 황정녹이라는 북한 사람으로 그의 지도에 따라 창가, 춤, 만담 등을 연습하고, 공연한다. 창가는 러시아창가, 우즈벡창가, 고려창가[북조선창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려창가[북조선창가]는 '두만강', '오동동', '능수버들' 등이다. 춤도 러시아춤, 우즈벡춤, 조선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선춤은 부채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부채춤은 단순히 부채를 통한 춤이 아니라, '처녀가 꽃을 캐러 가다가 목동을 만나고,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서사를 함축하고 있다. 만담은 두 사람이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전개한다. '일본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의 이름이 너무 길어 그 이름을 부르다가 그만 일본아이가 죽는다'는 내용이다. 타쉬켄트주에 국가의 주요 인물이 방문하면, 폴릿달젤콜호즈로 안내해 청춘앙상블의 공연을 관람한다. 또 요구가 있을 때마다 페르가나, 나만간, 쓰르다리아, 사마르칸트, 알마타, 우쉬토베, 탈디쿠르간 등지를 돌며 순회공연을 하기도 한다.

(1) - 2. 연희

구 소련 시절, 타쉬켄트시에 고려인극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심청전', '흥부와놀부', '춘향

전’, ‘클레믈린의종소리’ 등 소연극을 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려인극장도 폐쇄되었다. 타쉬켄트시 고려인들은 심청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춘향이 이야기 등을 구전이나 문헌을 통해 안 것이 아니라 소연극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1) - 3. 놀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시온고콜호즈에는 ‘시온고 어린이 회관’이 있다. 콜호즈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뛰어노는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한국의 모 기업체에서 시온고 어린이 회관에 사물을 기증했다. 그러나 사물만 기증한 것이어서 사물놀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다. 이에 황나제즈다(1970년 출생, 동방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1주일에 두 번씩 두 시간 동안 콜호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콜호즈 아이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구현해보았다. 그러나 곧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던 차, 2008년에 전북대학교 풍물팀이 콜호즈 7~8학년을 대상으로 사물놀이를 전수했다. 이를 계기로 잠깐 동안 사물놀이가 활성화되었지만, 분위기가 점차 시들해져 오늘날은 사물만 덜렁 전시하고 있다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2분야]	목칠공예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 전 지역	삿갓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여름철 농사를 지을 때 삿갓을 많이 쓴다. 삿갓의 재료는 ‘까래’라고 하는 갈대이다. 갈대를 쪼개어 속을 긁어내고 물에 불렸다가 말려 삿갓으로 엮는다.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3분야]	의학 민간요법	식물요법	타쉬켄트시	모기예방
			김병화콜호즈	냉치료, 관절염 및 배앓이치료
		광물요법	타쉬켄트시	설사치료
			타쉬켄트시	벌쏘임치료
		동물요법	타쉬켄트시	눈병치료
	주술요법	김병화콜호즈	눈병치료, 배앓이치료	
	농업	재래 농기구	북쪽등대콜호즈	디딜방아, 맷돌
			시온고콜호즈	드로우밀까, 전기숯돌
		경작	김병화콜호즈	벼경작, 깨나푸루부경작
			폴릿단젤콜호즈	목화경작
농경속		시온고콜호즈	풍농기원의식	

	축산업	양봉/양잠	폴릿단젤콜호즈	양봉업
	어로	채집	폴릿단젤콜호즈	민물고기잡이

(3) - 1. 의학[민간요법]

① 식물요법

모기향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모기를 몰아내기 위해 해질 무렵 마당이나 마루에 쭉불을 놓아 연기를 피웠다. 한편 냉을 치료함에 밀가루에 익모초와 엿을 버무려 환으로 먹었다. 오늘날에도 '홍새미'라는 풀의 잎과 줄기를 독주에 담갔다가 마신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홍새미는 배앓이 할 때에도 효과가 있다. 잎을 따뜻한 물에 담가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혈압에 효과가 있다.

② 광물요법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가마솥 아래에 붙어 있는 숯검댕이를 긁어내어 그것을 꿀에 섞여 먹였다. 설사를 달리 '피똥사개'라고 한다. 한편 벌에 쏘이면, 인근에서 황토를 구해 부어오른 부위에 바른다. 된장을 바르기도 한다.

③ 동물요법

눈병이 나면, 오줌을 받아 그 물로 눈을 씻었다.

④ 주술요법

눈병이 나면, 해 뜰 무렵에 화로를 지퍼 그 안에 범씨를 몇 개 넣고 머리에 구두를 올린 채 "이 벼알처럼 푹 튀어 나가라~ 이 벼알처럼 푹 튀어 나가라~ 이 벼알처럼 푹 튀어 나가라~"라고 외게 했다. 웬만한 눈병은 이 방법으로 모두 치료되었다고 한다. 한편 배앓이를 하면, 아이가 먹었던 모든 음식을 바가지에 약간씩 넣고 바가지를 따뜻하게 달구어 아이의 배를 문질렀다.

(3) - 2. 농업

① 재래농기구

디딜방아를 흔히 '바이'라고 한다. 1960년대에 북쪽등대콜호즈에 정미소가 생기기 전까지 3~4일에 한 번씩 벼, 보리, 옥수수, 고추 등을 찼었다. 콜호즈가 한창 번성했을 때, 전체 400여 호가 있었는데 24호[한 줄]마다 2개 정도의 디딜방아가 있었다. 디딜방아가 없는 집에서는 방아를 빌려 찼을 때마다 답례로 한 바가지 정도의 쌀가루나 보릿가루를 내어주었다. 특히 명절이면 찹쌀, 멥쌀을 찼어 증편을 만드느라 북적였다. 그리고 맷돌로 한 달에 두 번 가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든다. 옥수수를 갈아 옥수수죽을 만들기도 한다.

한편 시온고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김비탈리가 20년 전에 '드로우밀까'라는 전기바이를 만들었다. 콜호즈 주민들은 약간의 사례비를 내고 쌀, 콩, 고추 등을 빻는다. 또 전기숫돌도 만드어 칼, 가위, 여러 공구 등을 간다. 이외 갯트민(목화밭에 풀을 맬 때 사용), 간찰(밭을 맬 때 사용), 짝개(거친 밭에서 큰 돌을 골라낼 때 사용), 글개(눈에 물을 댈 때 사용) 등의 농기구를 사용한다.

② 경작

김병화콜호즈 주민들은 대부분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으로 재이주해 정착할 당시에는 사방이 온통 갈대숲이었는데 물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 이에 마을을 빙 둘러 수로를 만들어 물을 뺐다. 그리고 다시 침강[치르칙강]의 물을 끌어 와 땅을 개간해 지금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다. 우선 5월 초에 닻새 간 법씨를 뿌린다. 너무 일찍 법씨를 뿌리면 씨가 훑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일기를 보아 법씨 뿌리는 기간을 정한다. 법씨는 마을에서 태기호 등 “재간 있는 사람”이 뿌린다. 1주일이 지나면 싹과 풀이 함께 돌아난다. 풀은 손으로 일일이 뽑는다. 너무 세게 풀을 뽑으면 벼이삭도 함께 뽑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살 뽑는다. 6월 15일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지심을 맨다. 논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심은 보통 3명이 짝을 이루어 2~3번 고쳐 맨다. 지심을 다 매면, 풍작을 하늘에 맡기고 일손을 잠시 놓는다. 9월에 수확을 한다. 벼단을 엮어 집집마다 마당에 쌓아놓는데, 이를 흔히 “무덤해놓는다”라고 한다. 일기가 불규칙해 쌓아놓은 벼단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벼단을 집 안으로 들여와 온돌에 말린다. 예전에는 정미소가 없어 때때로 맷돌 같은 ‘발바이’를 밟아 쌀을 추려 먹었다.

김병화콜호즈에서는 벼농사 이외 깨나프루부를 경작한다. 깨나프루부는 삼의 일종인데, 나무의 껍질로 바(밭줄)나 질긴 포대자루를 만든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린 후 8월에 수확한다. 경작함에 특별히 손이 가지 않는다. 수확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껍질을 벗긴다. 손가락 가량의 크기로 껍질을 잘라 손질한 후 큰 물통에 넣었다가 건져내 며칠 말린다. 전량 외국으로 수출한다.

한편 풀릿단젤콜호즈 주민들은 대부분 목화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5년부터 국가가 주관하여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흔히 ‘목화질’이라고 한다. 파종은 4월 초에 한다. 전년도에 거둔 목화를 공장에서 씨만 따로 모아 파종 시기에 맞춰 전달한다. 예전에 전수 수작업으로 씨를 심었을 때에는 목화밭의 밭고랑 사이가 60~70cm 간격이었지만, 요즘은 ‘씨에루까’라는 기계가 있어 그 기계의 바퀴 간격에 맞춰 45cm 간격을 유지한다. 1ha에 보통 백 만 개의 씨앗을 심는다. 1주일 후면 새싹이 돌아나는데, 그때 후치질을 해 땅을 부드럽게 고른다. 이후 잎사귀가 4~5개 정도 나면 그제야 도랑가에서 물을 댈다. 그 전에 물을 대면 뿌리가 썩을 수 있다. 6월 초부터 목화가 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약을 친다. 7월이면 만개하는데, 한 줄기에 7~8개 송이가 연다. 8월에는 목화가 더 자라지 않도록 윗가지를 모두 꺾어버린다. 10월 전에 ‘감바이’라는 기계를 몰아 2~3차례에 걸쳐 수확한다. 이를 펼쳐 벌에 말린다. 모든 손질이 끝나면 조합[풀릿단젤 집단]에 전달한다. 목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③ 농경속

시온고콜호즈에서는 정월에 길일을 택해 풍농 기원 의식을 치른다. 하락시(점치는 사람, 무당)를 모셔다 흉한 방향에서 방토(액막이)를 하는 것으로써 풍농을 기원한다. 하락시(점치는 사람, 무당)는 흉한 방향을 향해 붉은 천을 태우는 것으로써 방토를 한다.

(3) - 3. 축산업

봄에는 산에서, 여름에는 밭에서 벌을 기르는데, 3개월이면 벌통마다 꿀을 채취할 수 있다. 벌통 안에는 12~13개의 ‘소트’가 있는데, 그 안에 여왕벌이 알을 낳는다. 일벌들이 새끼 벌

들을 먹이려고 꽃가루분에서 꿀을 모아 와 그 안에 넣는다. 꿀이 다 차면 ‘메다곤’이라고 하는 기계에 소트를 넣고 돌려 꿀을 짜낸다. 보통 한 사람이 40kg 가량의 꿀을 짜낸다.

(3) - 4. 어로

치르칙강이나 쓰르다리아강에서 민물고기를 잡는다. 낚시, 그물, 올케[족대] 등을 이용해 붕어, 잉어, 미꾸라지[쫙쫙개, 들쫙개] 등을 잡는다. 낚시대를 달리 ‘참대’라고 하는데, 보통 세 짝을 드리우며 미끼는 참지렁이, 삶은 옥수수, 메뚜기, 귀뚜라미 등을 쓴다. 민물고기를 잡아 회를 쳐 먹기도 하고 구워먹기도 한다. 또 생선의 뼈로 국물을 우려내기도 하는데, 이를 ‘우화’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밥식혜를 하기도 한다.

(4) 구전전통 및 표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구전전통 및 표현 [4분야]	민요	노동요	김병화콜호즈	볍씨뿌리는노래, 벗단뿌리는노래
			타쉬켄트시	클레멘타인
	판소리	유희요	타쉬켄트시	아리랑, 황제러시아, 수일가, 강 남에달이밝아서, 동북선, 내가입 은저고리, 좋은세상, 아동공원
			타쉬켄트시	심청가, 흥부가, 춘향가

(4) - 1. 민요

① 노동요

김병화콜호즈는 대단위 벼농사 경작지로 5월 초에 볍씨를 뿌릴 때 “씨를 활활 뿌리자 / 와 따 와따 자라난다 / 우가 우가 파도친다” 등 ‘볍씨뿌리는노래’를 부른다. 9월에 수확할 때는 “야아 받아라 자 / 자~ 자~ 자~ 자~” 등 ‘벗단뿌리는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한편 농사를 지을 때 ‘클레멘타인’을 부르기도 한다.

② 유희요

1990년에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고려인연합회’가 결성되어 각지의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회동했다. 이때 사할린의 한 고려인이 회동의 의미로써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분위기 속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다. 15개 국에서 1,000여 명이 모였지만, ‘아리랑’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은 ‘본조아리랑’과 동일하다. 한편 ‘동북선’, ‘황제러시아’, ‘수일가’, ‘강남에달이밝아서’, ‘내가입은저고리’, ‘좋은세상’, ‘아동공원’ 등 다종의 유희요가 전승되고 있다. 이 중 ‘동북선’의 전승이 가장 활발하다.

(4) - 2. 판소리

판소리는 전승이 되지 않았지만, 구 소련 시절 고려인극장에서 연희한 소연극의 영향으로

고려인이면 누구나 심청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춘향이 이야기 등을 알고 있다.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5분야]	식생활	일상음식	시온고콜호즈	오누비장, 복장, 시락장물, 무장물, 가지볶음, 고추볶음
		별식	시온고콜호즈	엿
		절시식	타쉬켄트시	오곡밥, 오그레
		의례음식 잔치음식	김병화콜호즈	골미떡
			시온고콜호즈	증편, 찰떡, 감주, 가주리
		저장식품	김병화콜호즈	토주, 마쓰로
	시온고콜호즈		메주, 간장, 고추장, 김장김치	
	주생활	난방시설	김병화콜호즈	온돌
			시온고콜호즈	온돌
		기타시설	김병화콜호즈	우물
			시온고콜호즈	사우나시설, 도슈샤워시설
	세시풍속	봄철	시온고콜호즈	한식금기
		여름철	북쪽등대콜호즈	천렵
			북쪽등대콜호즈	설, 대보름
		겨울철	타쉬켄트시	설(행사)
			시온고콜호즈	윤달금기

(5) - 1. 식생활

① 일상음식

일상음식으로서 된장을 넣고 끓이는 시락장물, 무장물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락장물은 된장에 소금, 돼지고기, 씨래기, 양파, 배추 등을 넣고 끓이는데, 한국의 시래기국과 비슷하다. 무장물은 된장에 소금, 소고기, 무를 넣고 끓인다. 일종의 ‘찌개’로서는 복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된장에 소금, 소고기, 두부, 감자, 호박 등을 넣고 자잘하게 끓인다. 볶음반찬으로는 고추볶음과 가지볶음이 가장 대표적이다. 고추볶음은 목화기름에 양파를 넣고 볶다가 된장, 식초를 넣고, 양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고추, 토마토, 양배추 등을 넣고 조금 더 볶아 만든다. 가지볶음은 목화기름에 양파를 넣고 볶다가 된장, 식초를 넣고, 양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가지, 토마토, 양배추 등을 넣고 조금 더 볶아 만든다.

② 별식

일종의 사탕으로서 엿을 고아 먹는다. 가마솥에 씨래기쌀을 넣고 물을 부어 죽처럼 끓인 다음 식힌다. 그런 후 엿질금[쌀질금]을 넣고 개어 발효시킨다. 10여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많이 생기는데, 물 아래 있는 침전물을 모두 건져낸다. 가능한 물만 떠내어 구멍이 촘촘히 뚫린 자

루주머니에 넣고 찐다. 이 물이 찌득찌득해질 때까지 약 5시간 정도 끓인다.

③ 절식

설날 절식으로 '오그레'라고 하는 음식을 점심에 먹는다. 찹쌀가루를 반죽해 새알심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엄지로 그 중간을 눌러 움푹 들어가게 한 후 찐다. 대보름 전날 저녁에는 쌀, 기장, 옥수수, 콩 등을 섞어 오곡밥을 먹는다. 오곡밥을 달리 '오가지밥'이라고 한다.

④ 의례음식(잔치음식)

차례나 제사, 혹은 잔치 때에는 찰떡, 증편, 골미떡, 비고제, 가주리, 감주 등을 마련한다. 이 중 골미떡을 달리 '지름떡' 또는 '지름굽이'라고 하는데,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홀수로 진설하고, 잔치날에는 짝수로 진설한다. 비고제는 일종의 만두로 재질에 따라 쌀가루비고제, 밀가루비고제, 녹말비고제 등으로 분류한다. 가주리는 한과로서 가장 고급음식으로 여긴다. 찰떡 1kg이 8,000숨인 반면, 가주리 두 장은 15,000숨이다.

⑤ 저장식품

여름철에 포도나 사과로 과일주를 담갔다가 겨울까지 마시는데, 이를 토주라고 한다. 포도 토주의 경우 우선 가마솥에 포도와 설탕을 함께 넣고 발로 밟아 으갠다. 포도가 달면 설탕을 적게 넣고, 달지 않으면 설탕을 많이 넣는다. 10~15일이 지나면 자연 발효되는데, 그러면 누룩을 넣고 쉐 불에서 부글부글 끓이다가 약한 불로 달인다. 한참 지나 연기가 많이 올라오면 찬물을 붓는다. 오래 끓이면 토주의 도수가 높고, 오래 끓이지 않으면 도수가 약하다.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켜 '마쓰로'라고 하는 치즈를 만들어 저장했다가 먹기도 한다.

또한 된장, 간장, 고추장은 물론이고, 김장김치도 만들어 저장한다. 김장은 주로 10월 하순을 전후해서 담근다. 밭에서 배추를 캐어 깨끗이 손질을 하고, 하루 동안 소금에 절인다. 배추 속은 향채, 마늘, 고추 등을 갈아서 만들고, 절인 배추를 갈라 속이 골고루 배게 한다. 이를 항아리에 넣고 창고에 보관한다. 보통 일 년 평균 100kg 가량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자식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5) - 2. 주생활

① 난방시설

재래식 온돌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옛 방식대로 난방을 하기도 한다. 시온고콜호즈 황류 드밀라학체로브나의 집에는 방 안에 온돌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황토와 자갈을 깔았다. 그 위에 굵은 쇠 파이프를 만든 기본 선 1개를 가로로 설치하고, 그 기본선으로부터 세로로 8개의 이음 선을 설치했다. 기본 선에서 이음 선으로 따뜻한 물이 흘러 방 안 전체에 온기가 퍼지도록 했다. 물을 데우는 난방장치는 건물 밖에 가스 시설로 설치했다. 이를 '비치카'라고 한다. 비치카에서 물을 데울 때 나오는 연기조차 활용하기 위해 연통에 물통을 부착시켰다. 따뜻한 연기로써 물통의 물도 데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김병화콜호즈 장(태)엠밀리아안드리예브나의 집에도 장편 밑에 너른 널을 깔아 놓았다. 아래쪽에는 8~10cm 가량 크기의 합판(툽밥을 뭉쳐 만듦)을 일렬로 세우고, 그 사이사이마다 자갈과 모래를 깔았다.

② 기타시설

김병화콜호즈 장(태)엠밀리아안드리예브나의 집에 재래식 우물이 있다. 1966년에 시멘트로 만든 맨홀 4개를 넣어 만들었는데 깊이는 4m 가량이다. 우물물은 펌프로 끌어 올려 집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온고콜호즈 황류드밀라학체로브나의 집 뒷마당에는 도슈 샤워 시설이 있다. 한 사람이 샤워를 할 수 있을 만한 화장실 한 칸 크기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위에 커다란 물통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펌프를 이용해 물통에 물을 대면, 한낮 열기로 물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저녁에 그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문화의 영향으로 사우나 공간을 만들어놓았다. 그 공간에 전깃줄이 가설되어 있는 돌무더기[애자]가 있다. 일반 돌은 데우면 연기가 나 눈이 아린 반면, 애자는 연기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열이 올라 효율적이다. 또 온돌을 데울 때 비치카에서 나는 연기로 물을 데워 그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다.

(5) - 3. 세시풍속

① 봄철

한식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전혀 다르다. 이 날 집안 대소사의 일정을 정한다. 예컨대 집터나 산소터를 잡는다거나 심지어 화장실[분강]을 옮기는 것도 한식에 그 지점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에 작업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② 여름철

천렵을 ‘마이유브까’라고 한다. 6~7월 중 날을 잡아 농사팀, 건축팀별로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거나 별판에 가서 양 꼬치구이를 해먹는다.

③ 겨울철

양력 12월 31일에 흠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다. 가능한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막새 해가 시작될 때 건배를 하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한다. 다음 날, 아침을 먹기 전에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건네며 덕담을 한다. 고려인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북쪽등대콜호즈에서 세배[큰절] 풍속은 사라졌다. 세배를 ‘큰절’이라고 하는데, 큰절은 환갑이나 칠순 등 잔칫날에만 한다. 아침 식사로 찰떡, 증편, 시락장물(두부, 미역 등을 넣음), 녹말비고제, 가주리, 감주 등을 먹는다. 아침 식사 후에는 마을 웃어른을 찾아뵙고, “새해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린다. 그러면 그 집에서 보드카와 안주를 내어준다. 점심 식사로는 주로 잡아뜨개[수제비]를 먹는다. 잡아뜨개를 달리 ‘뜨디국’이라고 한다.

점치는 사람[신세이, 하락신]을 찾아 한 해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점치는 사람은 만세력이거나 화투 패를 참고해 한 해 운수를 점친다. 북쪽등대콜호즈에서는 예전에 김온자라는 점치는 사람이 활동했다. 백발노인이 선몽해 방토하는 방법을 일러준 후로 점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남보리스니콜라예비치의 지인도 황달병으로 김온자를 찾았는데, 머리카락을 태워 그 재를 먹게 하기도 하고, 칼로 몸을 돌려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14일 밤,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해서 뜯 눈으로 지낸다. 혹여 잠을 자면, 장난으로 분가를 칠하기도 했다. 친구들이 모여 밤새 화투를 치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기도

도 한다. 15일에는 팔죽을 먹는다. 팔죽에는 ‘오그레’라는 새알심 비슷한 것을 넣는다. 예전에는 마을 거리에 나가 달맞이를 하기도 했다.

한편 타쉬켄트시에서는 고려인문화협회 주관으로 설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른다. 다만 음력설이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하여 행사 일정을 정한다. 전체 700~8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저녁에 민족우정회관에 모여 먹고 마시며 노는데,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크인은 물론 다른 여느 민족들까지 참여한다. 고려인 전통음식으로 찰떡, 증편, 가주리, 비고제 등을 먹는다. 고려인 노래로 ‘만남’, ‘눈물젖은 두만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부른다. 또 고려무용단 회원들이 부채춤, 북춤, 장고춤 등을 추워 흥을 더욱 돋운다.

④ 윤달

윤달 금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윤달에는 개미굴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언어전승이 만연할 정도로 윤달에는 그 어떤 일이든 삼간다. 그런데 윤달의 개념이 한국과 전혀 다르다. 즉 윤달을 음력 6월로 고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윤달로 인식하고 있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6분야]	속신앙	-	북쪽등대콜호즈	귀신물림,
		-	김병화콜호즈	세가지색의동물, 부정물림
		-	시온고콜호즈	귀신쫓는풀, 귀신쫓는붉은천, 이 사액막이
	무속신앙	-	폴릿달젤콜호즈	신점, 치병굿(용왕기도)
	일생의례	산육속	북쪽등대콜호즈	산모금기, 돌잔치
		관례	북쪽등대콜호즈	성인식
		혼례	북쪽등대콜호즈	결혼식
		환갑 칠순	북쪽등대콜호즈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	북쪽등대콜호즈	장례
	제례 차례	북쪽등대콜호즈	한식차례, 단오차례, 추석차례	

(6) - 1. 속신앙

귀신을 쫓아내는 형태의 속신앙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예컨대 대들보에 귀신 쫓는 풀을 매달아 놓는다거나, 처마에 귀신 쫓는 붉은 천을 매달아 놓는다. 귀신 쫓는 붉은 천은 이외 대문, 돼지우리, 닭장 등에도 매달아 놓는다. 또 아이들이 빈방아를 짚으면, ‘귀신 비쳤다’고 해서 바가지에 된장을 풀어 그 아이 몸에 휘휘 돌린 후 칼을 문 밖으로 내던진다. 칼 끝이 문 밖을 향해 나가면 귀신이 물러갔다고 여긴다. 칼 끝이 문 밖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나갈 때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그리고 액막이 형태의 속신앙도 전승되고 있다. 예컨대 새 집을 짓고 처음 들어갈 때, 사방에 소금을 뿌려 부정을 물린다거나 건물 네 귀퉁이에 굵은 소금을 뿌린 후 그 위에 종이를 놓

고 태워 매캐한 냄새를 풍긴다. 그런 후 고양이를 먼저 들여보내는데, 고양이가 되돌아 나오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 귀신이 없는 집으로 여긴다. 그러나 고양이가 바로 되돌아 나오면 귀신이 있는 집으로 여겨 하락시(점치는 사람, 무당)를 불러 또 다른 형태의 귀신물림을 한다. 한편 처음 입주할 때, 반드시 기름밥을 해먹는다. 기름 냄새를 집안 가득 풍겨야 구성원들이 무병무탈, 만사형통한다고 여긴다.

(6) - 2. 무속신앙

타쉬켄트주 폴릿달젤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김아씨는 ‘점치는 사람’이다. 점치는 사람을 달리 ‘신선’이라고 한다. 김아씨는 40여 년 전에 9대 선조가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해 점을 치라고 지시했다. 그 후 점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루에 단 한 번만 화투 패를 이용해 한 해 운수를 점쳐주거나 이사 갈 방향을 잡아준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막힌 운을 뚫어주거나 병을 고쳐준다. 그럴 때면 까라수강에 가서 촛불을 켜 후 강의 영신[용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6) - 3. 일생의례

① 산육속

산모의 금기로서 “모난 과일을 먹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개장국 먹지 마라” 등이 전승되고 있다. 모난 과일을 먹으면 못난 아이를 낳는다고 여겨 주변 사람들이 산모에게 예쁜 과일을 선물하기도 한다. 산모가 임신 중에 머리를 깎으면 아이가 단명한다고 여긴다. 개장국을 먹으면 태아에게 부정이 낀다고 여긴다.

그리고 돌잔치를 대대적으로 행한다. 돌잔치 음식으로 찰떡, 증편, 가주리, 비고제(쌀비고제, 녹말비고제, 밀가루비고제) 등은 필수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많은 음식을 대접해야 아이가 복을 받는다고 여긴다. 또 점심 전에 돌잔치를 해야 아이가 결혼을 제때에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보통 10~11시 경에 한다. 오늘날은 보통 카페나 레스토랑을 빌려서 돌잔치를 한다. 돌잡이상에 쌀, 붉은 콩, 책, 공책, 연필, 활과 화살, 실, 가위 등을 놓고 아이가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점친다.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붉은 콩을 잡으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책, 공책, 연필을 잡으면 수재가 될 것이라고, 활과 화살을 잡으면 군인이 될 것이라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가위를 잡으면 손재주가 뛰어날 것이라고 여긴다. 초대 받은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돌반지나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음식을 따로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돌잡이를 전후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② 관례

자녀가 18세가 되면 생일날을 일종의 성인식으로 삼아 금목걸이나 금반지를 선물한다. 그리고 큰 상을 차려놓고 자식에게 덕담을 한다.

③ 혼례

타쉬켄트주에서 고려인의 결혼 적령기는 남자 20세 후, 여자 20세 전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인과 고려인은 16살에, 러시아인은 14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언제든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주로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앙상블을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혼식 비용은 신랑집에서 부담한다.

④ 환갑, 칠순

환갑잔치와 칠순잔치에서 기본적인 음식은 찰떡, 증편, 가주리, 비고제 등이며, 이외 술과 반찬 등도 푸짐하게 차린다. 특히 잔치 1년 전부터 돼지를 키워 잔치날에 맞춰 잡아 환갑을 맞은 분에게 갈비, 족, 간을 삶아 준다. 환갑상 가운데 주인공이 앉고, 그 양 옆으로 동갑내기 친구들, 그 다음으로 사돈, 부모, 가까운 친지들이 앉는다. 자식, 손자들이 환갑상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불이나 보드카 등을 선물한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

⑤ 장례

타슈켄트주의 고려인들은 전통방식과 현대방식을 결합해 장례를 치른다. 우선 숨을 거둘 때가 되면,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누인다. 그럴 수 없으면 서쪽으로 누이지만, 동쪽이나 남쪽은 절대 삼간다. 숨을 거두면 망자의 손과 발을 쪽 펴 차렷 자세로 하고, 알코올로 몸 구석구석을 씻는다. 그런 후에 흑여 망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겨, 지붕 위로 올라가 평소 입던 옷을 흔들며 “19○○년에 ○○에서 태어난 ○○○ 오시오. 복! 복! 복!”이라고 외친다. 얼마 지나 만아들이 망자의 입에 쌀을 세 손가락 넣으며 “백 석이오, 천 석이오, 만 석이오”라고 외친다. 그리고 입이 열리지 않도록 턱으로부터 줄을 당겨 머리에 동인다. 또 수의를 입히고 솜으로 귀와 코를 막고 손, 발, 등, 어깨 등도 동인다. 그런 후에 시신을 칠성판에 올려 놓는다. 자식들은 수의를 입는다. 예전에는 삼베옷을 입었지만, 오늘날은 남성은 양복에 검은 완장을 팔에 두르고, 여성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다. 3일간 조문객을 받고, 운구차에 시신을 싣는다. 영구차 출발하기 전에, 그 앞에 간단히 상을 차리고 제사를 올린다. 만아들이 “훈영은 이미 영구차에 모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길에 예를 올립니다. 영면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술잔을 올리고 세 번 배례한다. 장지에 올라서는, 우선 삶은 닭과 술을 진설하고 산신제를 올린다. 다음 산소가 될 지점의 네 귀퉁이 땅을 살짝 파고 그 위에 제물을 간단히 진설하고 세 번 배례한다. 일꾼들이 땅을 다 파고 관을 내려놓을 때, 만아들부터 손으로 흙을 세 번 뿌린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면 하산한다.

⑥ 제례, 차례

㉞ 한식차례 1 : 타슈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남보리스니콜라에비치는 한식을 기해 산소에 올라 차례를 올린다. 제수로서 지름굽이[지름떡], 삶은 닭과 계란, 훈제 물고기, 과자, 사과, 귤, 오렌지, 바나나, 메 등을 준비한다. 이 중 지름굽이[지름떡]은 산소에서 직접 굽는다. 산소에서 기름 냄새를 피워야 귀신들이 물러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산소에 오르면, 우선 산소 뒤편에서 ‘땅주인[땅의 신, 산신]’에게 술을 한 잔 올리고 한 번 배례한다. 그 다음 지름굽이를 굽고 제수를 진설한다. 고기류는 오른쪽에, 나머지 것들은 왼쪽에 진설한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향렬에 따라 술잔에 술을 붓고 세 번씩 배례한다. 이를 흔히 ‘차례절’이라고 한다. 제수를 물린 후에는 그것을 약간씩 떼어 산소 위에 흩어 뿌리고 모두 세 번씩 배례한다. 이를 흔히 ‘이별절’이라고 한다. 차례 의식이 끝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먹는다.

㉔ 한식차례 2 :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 김일리아의 집에 부친 김원익이 사용하던 낫수저, 낫젓가락이 있다. 한식, 단오, 추석에 차례를 올리거나 성묘를 갈 때 이 낫수저, 낫젓가락을 올린다. 명절 제수로서 삶은 닭고기와 달걀, 구운 생선과 민물고기, 야채(오이, 토마토), 부추, 과일, 과자, 소시지, 지름구이(찹쌀떡구이), 보드카 등을 진설한다. 단 추석에는 햅쌀을 찌메[밥]로 진설한다. 송편 빚는 풍속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차례는 집에서 올리고, 오전 8시를 전후해서 부인, 손녀와 함께 1km 가량 떨어진 산소에서 성묘를 한다. 산소에 올라서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식보를 펴 제수를 진설한다. 성묘 시 제수는 삶은 닭고기와 보드카 정도로 간소하다. 우선 산소 위쪽에 올라 산신을 향해 한 번 배례한다. 이를 ‘후토제’라고 한다. 이어 항렬에 따라 잔에 술을 세 번씩 나누어 붓고 세 번씩 배례한다. 타쉬켄트주에서 고려인들은 한식, 단오, 추석에 가능한 일손을 멈추고 차례를 올린 후 성묘를 한다.

㉕ 추석차례 :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남보리스니콜라에비치는 추석을 기해 차례를 올린다. 우선 집에서 갖가지 제수를 진설하고 차례를 올린다. 차례 후를 올린 후에는 닭장국(달기장물)을 집안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 이후 산소에 올라 성묘를 하는데, 제수는 삶은 닭과 과일 등으로 간소하다. 오후에 아이들은 56학교에서 재기차기 등을 하며 논다.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7분야]	놀이	집단놀이	김병화콜호즈	추수후놀이
		개인놀이	타쉬켄트시	그네뛰기, 널뛰기
	김병화콜호즈		화투	
	축제	-	북쪽등대콜호즈	단오행사
		-	김병화콜호즈	단오행사

(7) - 1. 놀이

① 집단놀이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에서는 추수 후 날을 정해 마을 사람들이 종일토록 논다. 이를 일컫는 명칭은 없다. 그저 “노는 날”이라고 한다. 김병화가 소와 돼지를 잡고, 집집에서는 찰떡이나 토주를 내놓는다. 먹고 마시며 하루를 즐긴다.

② 개인놀이

타쉬켄트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알렉산드라는 어릴 적에 단오를 기해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네와 널을 뛰었다. 그네를 뒹 때 ‘그네뛰기노래’를 불렀는데, 사설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새 옷을 마련해 입히기도 했다. 한편 농한기인 겨울철에 여성들이 모여 화투나 카드를 친다. 화투는 민화투 방식이며, 카드는 숫자를 정렬하는 방식이다.

(7) - 2. 축제

타쉬켄트주 북쪽등대콜호즈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단오를 기해 한식 때와 마찬가지로 차례를 올린다. 오후에는 콜호즈에 있는 56학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네와 널을 뒀다. 예전에는 줄다리기, 씨름 등 민속놀이를 했다. 이때 줄다리기는 직업별로 팀을 나누어 경합을 벌였다. 예컨대 성인들은 농사팀, 건축팀, 기계팀 등으로 나누었고, 학생들은 A Class, B Class 등으로 나누었다. 오늘날은 학생들의 합창과 연극[소극]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저녁에는 나이트클럽과 같이 무대를 꾸미고 춤을 추며 흥을 한껏 돋운다.

또 타쉬켄트주 김병화콜호즈에서도 단오행사가 전승되고 있다. 김병화콜호즈 이외 인근 고려인들도 이곳에 모여 줄다리기, 씨름, 그네, 널, 북춤 등 민속놀이를 즐긴다. 증편, 찰떡, 시루떡 등을 미리 준비해서 어느 콜호즈의 것이 맛있는지, 어느 콜호즈 주민들의 한복이 예쁜지, 어느 콜호즈 주민들이 창가를 잘 하는지 경합을 벌인다. 1등을 하면 상장 및 부상으로 수건을 수여받는다. 점심으로 각종 떡과 국수를 먹는데, 김치, 콩나물 무침, 식초에 절인 민물고기 등 반찬을 곁들인다.

2.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

1) 조사 개요

(1) 기간 및 지역

2012년에, 연구팀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주 2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3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세부적인 현지조사 지역들은 <표 3>과 같다.

<표 3> 러시아 현지조사 지역

국가	현지조사지역	
	연해주	사할린주
러시아	우수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르츰	시네고르스크
	파르티잔스크	

(2) 제보자 현황

인터뷰에 응한 사할린주 한인과 연해주 고려인 제보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러시아 고려인(한인) 제보자 현황

성명	출생 년도	성별	거주지	성명	출생 년도	성별	거주지
러시아(사할린주)(10명)				김000	1931	여	우수리스크
박000	1942	남	유즈노사할린스크	김000	1931	여	우수리스크
김000	1945	여	유즈노사할린스크	최000	1933	여	우수리스크
장000	1945	여	유즈노사할린스크	허000	1936	여	우수리스크
전000	1933	남	유즈노사할린스크	나.강000	1939	여	우수리스크
허000	1936	남	유즈노사할린스크	이000	1949	여	우수리스크
우000	1925	여	유즈노사할린스크	윤000	1937	남	우수리스크
김000	1939	남	유즈노사할린스크	조000	1930	남	우수리스크
정000	1922	남	유즈노사할린스크	김000	1931	남	우수리스크
방000	1928	여	유즈노사할린스크	김000	1942	여	우수리스크
김000	1925	남	시네고르스크	텐000	1949	여	우수리스크
러시아(연해주)(20명)				고000	1943	남	우수리스크
김000	1947	여	아르츨름	윤000	1941	여	파르티잔스크
유000	1943	여	아르츨름	안000	1941	여	파르티잔스크
김000	1949	여	아르츨름	이000	1955	여	파르티잔스크
문000	1947	여	아르츨름	박000	1979	여	블라디보스톡

2) 조사 결과

■ 사할린주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공연 예술 [1분야]	연희	-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극단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951년에 예술극단이 결성되었다. 당시 한인을 중심으로 아 마추어 예술단원들이 예술극단을 결성하고 연습, 공연했다. 그러다가 소련 주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예술단을 창립했는데, 이때 예술극단 단원들이 대거 영입되었다. 1950년대 말까 지 정식 교육을 받고, ‘심청전’, ‘춘향전’, ‘흥부놀부전’ 등 소연극을 순회 공연했다. 이후 1963 년에 해체되었지만, 단원들이 악단을 조직해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등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가장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악단은 ‘윤복식 악단’이었는데, 이들은 후카이도를 통 해 전파가 들어오는 KBS 라디오를 몰래 청취하고 ‘보고 싶은 얼굴’,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한국 노래도 연습하여 불렀다.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2분야]	공예	-	유즈노사할린스크	되, 찻쟁반(차판, 오봉), 시리바지, 절구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어머니 때 사용하던 두 개의 되를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큰 되는 표면에는 “用液一升”이라는, 작은 되는 표면에는 “用液二合五匁”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 또한 어머니 때 사용하던 두 개의 찻 쟁반과 사리바지를 갖고 있다. 찻 쟁반은 흔히 ‘차판’ 또는 ‘오봉’이라고 한다. 시리바지는 불린 쌀을 갈 때 사용하는 음식용 도구로 안의 표면이 빗살무늬로 처리되어 있다. 때문에 손잡이 모양의 ‘갈개’로 어떤 음식물이든 갈 수 있다.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정양규는 손수 절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팔기도 했다. 활엽수인 큰 나무를 베어 50~60cm 가량 크기로 자른다. 세로로 세워놓고 동그랗게 선을 그린다. 선을 따라 손도끼로 파낸다. 어느 정도 판 다음 토치로 그 안을 검게 그을린다. 그런 다음 칼로 검뎁이를 긁어내면서 더욱 동그렇게 파낸다.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3분야]	의학 민간요법	식물요법	유즈노사할린스크	약쑥
	농업	경작	유즈노사할린스크	온실채소경작

(3) - 1. 의학[민간요법]

단오날 아침에 쑥을 뜯어다가 말린다. 이슬을 머금고 있는 어린 쑥만을 뜯어다가 말리는데, 이를 ‘약쑥’이라고 한다. 배앓이를 할 때나,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약쑥으로 뜸을 뜬다.

(3) - 2. 농업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들은 해방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자로 일자형 집을 짓고 여러 채가 함께 살았다. 한 채 당 가로 6m, 세로 4m 가량의 공간이었다. 그러다가 소련기에 접어서면서 너른 공간을 확보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 이때부터 텃밭에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다. 근간에는 온실을 지어 보다 많은 채소를 경작한다. 정양규의 온실은 나무판자에 유리창을 결합시킨 형태로 가로 12m, 세로 6m 가량의 크기이다. 온실에서 토마토, 오이, 양배추, 감자 등을 기른다. 토마토와 오이의 경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씨를 12

시간 물에 불렸다가 천에 싸서 3일간 보관한다. 그러면 싹이 나오는데, 그때 껌쪽에 흙을 담고 싹을 심는다. 보름이 지나면 2~3개 잎이 돋아난다. 그때 보다 너른 껌쪽에 5cm 간격으로 옮겨 심는다. 뿌리가 튼실해지면, 또 다시 땅에 옮겨 심는다. 1달 가량 키운 다음 줄기마다 꼬챙이를 박고 줄을 맨다. 꽃이 피기 전에 소독하고 비 온 후에도 소독한다. 양배추의 경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5~6m 크기의 긴 껌쪽에 흙을 담고 그 위에 씨를 뿌린다. 그리고 껌쪽을 비닐로 덮는다. 3일 후면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 보다 너른 껌쪽에 5cm 간격으로 옮겨 심는다. 보름이 지나 4~5개의 잎이 돋아나면 수확한다. 감자의 경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자를 습한 그늘에 보관하면 싹이 나는데, 그때 2~3개로 조각을 내어 땅에 심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 수확한다. 정양규는 온실에서 수확한 채소를 팔아 용돈을 번다.

(4) 구전전통 및 표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구전전통 및 표현 [4분야]	설화	민담	유즈노사할린스크	해와달이된오누이이야기, 한석봉 이야기
	민요	유희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리랑, 도라지
	판소리	-	유즈노사할린스크	심청가, 흥부가
	속담	-	유즈노사할린스크	

(4) - 1. 설화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라는 옛날이야기를 알고 있다. 인물과 관련해서는 ‘한석봉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옛날이야기를 달리 ‘옛말’이라고 한다.

(4) - 2. 민요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민요는 ‘아리랑’과 ‘도라지’이다. 사설은 한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4) - 3. 판소리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1950~1960년대 예술극단에서 활성화되었던 소연극을 통해서 ‘심청이 이야기’, ‘춘향이 이야기’, ‘흥부 놀부 이야기’,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 등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인 서사(敍事)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핵심적인 화소(話素)만 알고 있을 뿐이다.

(4) - 4. 속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승되고 있는 한인들의 속담[옛말]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먹지 마라. (2)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을 등에 업고 태어난다. (3) 여섯 살 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4) 애들 꿈은 개꿈이다. (5)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6) 동지 팔죽을 먹어야 한살 더 먹는다. (7)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8)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9) 똥 짠 놈이 방귀편 놈 나무란다. (1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1)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12) 자식 이긴 부모는 없다. (13) 조선 사람은 세 가지 체를 가지고 있다. 몰라도 아는 체, 없어도 있는 체, 못나도 잘난 체. (14)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15) 아니 뎌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난다. (16) 등불 밑이 어둡다. (17) 똥구멍으로 호박씨 깬다. (18) 티끌 모아 태산. (19) 바지 하나만 입어도 고향 간다. 이와 같은 속담을 달리 ‘옛말’이라고 한다.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5분야]	식생활	절시식	유즈노사할린스크	떡국, 오곡밥, 동지팔죽
		저장식품	유즈노사할린스크	사과통조림, 과일잼
	세시풍속	봄철	유즈노사할린스크	삼진날장담기
		여름철	유즈노사할린스크	복날약물
		겨울철	유즈노사할린스크	설빔, 달맞이

(5) - 1. 식생활

① 절시식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설날 아침에 떡국을 해온 가족과 함께 먹는다. 멥쌀을 불렸다가 찌고, 미지근한 물에서 반죽을 한 다음 솥에 다시 한 번 찜다. 꺼내어 방망이로 둥글게 만들고 칼로 썰어 떡침을 낸다. 소고기 삶은 물로 육수를 만들고 떡국이 다 되면 그 위에 달걀로 고명을 얹는다. 경우에 따라 대파, 묵, 두부, 청포 등을 고명으로 얹기도 한다.

대보름 전날에는 오곡밥을 해 가족과 함께 이르게 저녁식사를 한다. 오곡밥은 쌀, 콩, 대추, 보리, 조 등을 넣어 만든다. 지역의 여건상 나물 반찬은 하지 못한다.

동지에는 팔죽을 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하지만 붉은 팥이 귀해, 대신 완두콩이나 녹두를 푹 삶아 죽을 끓인다. 경우에 따라 붉은 울콩으로 죽을 끓이기도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팥으로 만든 팔죽은 아니지만, 동지팔죽과 같이 밀가루를 반죽해 새알심은 꼭 넣는다. “동지에 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도 전승되고 있다.

② 저장식품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김소자의 집에는 사과나무가 있다. ‘라넛까’라는 종으로 열매가 크지는 않지만 다닥다닥 붙어 날 만큼 매우 많이 열린다. 여름철에 사과를 따서 손질하고 끓는 물을 붓는다. 그러면 껍질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간다. 30여 분 후에 가마솥에 담아 끓인다. 이때 적당량의 설탕을 넣는다. 그 해 사과가 달면 설탕을 적게 넣고, 달지 않으면 설탕을 많이 넣는다. 3일간 발효시킨 후 시원하게 해서 마신다. 가능한 많은 양을 해 겨울까지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사과 이외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을 같이 넣으면 향이 더욱 좋다.

김소자는 산열매인 블루베리를 따서 와인을 만들기도 한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혈압에 좋다고 한다. 또한 사과를 따서 손질한 후 가마솥에 일정량의 물과 설탕을 넣고 끓인다. 1시간 정도 저어가면서 끓인 후 푹 불린다. 완전히 불리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끓이고 불린다. 사과 이외 능금, 자두, 살구, 복숭아 등도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단 능금, 자두, 살구의 경우에는 과일 1kg당 설탕 1kg을 섞으며, 자두는 과일 1kg당 설탕 1.5kg을 섞는다. 이 중 살구가 가장 맛있다.

(5) - 2. 세시풍속

① 봄철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들은 가능한 삼짇날에 장을 담근다. 이 날 장을 담가야 장 맛이 좋다고 여긴다. 삼짇날 장을 담지 못하면 말[馬]날에 장을 담근다.

② 여름철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복날(초복, 중복, 말복)이면 으레 물가에 가서 목욕을 한다. 이를 ‘약물한다’고 한다. 약물을 해야만 여름 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여긴다.

③ 겨울철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김원배는 크리스마스를 기해 손자들에게 설빔을 선물한다. 사할린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아니라, 1월 7일이다. 선달그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는데, 트리 밑에 양말이나 책 또는 약간의 돈을 설빔으로 놓아둔다.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의 가족은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기 전에 목욕재계한 후 달이 떠오르면 마당에 나와 달을 향해 비손하며 한 해 운수를 기원한다. 어떤 음식을 진설하거나 비손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6분야]	속신앙	-	유즈노사할린스크	속신, 대장군방, 귀신풀이
	개인신앙	삼신신앙	유즈노사할린스크	삼신신앙
		터주신앙	유즈노사할린스크	터주신앙
		성주신앙	유즈노사할린스크	성주신앙
		산신신앙	유즈노사할린스크	산신신앙
	무속신앙	-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림굿, 무당굿, 귀신풀이
	일생의례	산육속	유즈노사할린스크	태아감별, 백일잔치, 돌잔치, 수유
		혼례	유즈노사할린스크	결혼식
		환갑칠순	유즈노사할린스크	환갑잔치, 칠순잔치
장례		유즈노사할린스크	장례(60세이후/60세이전)	

		제례 차례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망제사, 설제사, 추석제사, 9일 차례
--	--	----------	----------	---------------------------

(6) - 1. 속신앙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승되고 있는 속신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와 갓난아이에게 한 달 동안 방문하지 않는다. (2) 임산부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 (3) 임산부는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4) 어떤 경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초상이나 기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목을 매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5) 산 사람의 밥상에는 밥을 왼쪽에, 국을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 (6) 밤에 머리 빗으면 귀신 나온다. (7)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8) 선달그믐에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 (9) 젖니가 빠지면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 (10) 어린아기가 불장난을 하면 자다가 오줌 싸다.

이외 집을 짓거나, 별채 또는 화장실을 짓거나 할 때 반드시 대장군방을 가린다. 해자축(亥子丑)년은 서쪽이, 인묘진(寅卯辰)년은 북쪽이, 사오미(巳午未)년은 동쪽이, 신유술(申酉戌)년은 남쪽이 대장군방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가급적 삼간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여긴다.

(6) - 2. 개인신앙

① 삼신신앙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삼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 김복수(85년도에 사망)가 특히 삼신을 신봉했다. 장순애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삼신상에 물 한 그릇, 쌀 한 그릇, 미역 한 다발을 진설하고 아이의 명과 복을 삼신에게 기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삼칠일[21일]이 지날 때까지 일 주일마다 한 번씩 기원했다. 한편 아이가 열 살을 넘길 때까지 생일날마다 수수팥떡을 먹인다. 그래야 아이에게 사기(邪氣)가 묻지 않는다고 여긴다.

② 터주신앙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정양규는 1950년도에 개인 주택을 지었다. 당시 정월 초하루에 아사모토[조선인]라고 불리었던 “잘 보는 사람[점치는 사람]”을 대동하고 집터를 정했다. “잘 보는 사람[점치는 사람]”은 정양규에게 ‘이 터가 앞산과 맞서 있다.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도 잘 클 것이다’고 했다. 또 길일을 택해 그 날 공사를 착수하게 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토주님에게 고사를 지냈다.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제물을 준비해 진설하고 배례했다. 그 후 1년에 한 번씩 그 날 밤을 기해 그 자리에서 고사를 지냈다. 오봉에 갖가지 제물과 술을 진설하고, 부인 박춘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몇 번이고 배례했다.

③ 성주신앙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정양규는 1950년도에 개인 주택을 지었다. 당

시 가족들이 손수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아사모토[조선인]라고 불리었던 “잘 보는 사람[점치는 사람]”을 모셔서 성주님을 봉안했다. “잘 보는 사람”은 여러 겹 접은 한지에 뽕씨를 넣고 북쪽 대들보 자락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이후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 성주님의 신체(神體)로 여기고 손을 대지 않았다. 또 토주님께 고사를 올리는 날, 성주님께도 오봉에 따로 제물과 술을 진설하고, 부인 박춘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몇 번이고 배례했다.

④ 산신신앙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산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산신을 마을 수호신으로서 산신이 아니라, 묘소가 있는 그곳 산의 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8월 15일 추석 당일에 별초를 하는데, 그에 앞서 산신에게 먼저 예를 올린다. 묘소 뒤편 너른 곳에 사과, 굴, 과자 등을 진설하고 술 한 잔 붓고 배례한다. 장순애의 조부모님들은 단오에도 산소에 올라 산신제 및 단오차례를 올렸다고 한다.

(6) - 3. 무속신앙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순애는 홈스크에서 한때 영험담이 자자했던 점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점치는 사람을 달리 ‘궁합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요컨대 다음과 같다. 어느 여인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후로 여인의 꿈에 남편이 계속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머리가 아팠고 온몸에 힘이 빠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인근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이 지폈다고 해서 내림굿을 이틀 간 했다. 그리고 점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급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40~50년대까지 많은 무당들이 활동했다. 색동옷을 입고, 짚으로 머리를 엮고,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공수를 내렸다. 무당굿이 열리는 날에는 인근 주민들이 구경을 하곤 했는데, 그들 중에서 대잡이를 선택했다. 또 무당들이 만세력이나 토정비결을 통해 길일을 택해주거나 한 해 운수를 점쳐주기도 했다.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우영자는 자식, 손자들이 아프면 “아는 사람”을 불러 귀신풀이를 했다. “아는 사람”이란 ‘점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된장국을 바가지에 풀어 아이의 몸에 돌려 귀신을 물려냈다. 아이가 경기를 하면 바늘로 따기도 했다.

(6) - 4. 일생의례

① 산육속

산모가 몸을 가볍게 놀리면 아들을 낳고, 그렇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고 여긴다. 또 산모의 배 모양이 둥그스름하면 아들을 낳고, 그렇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고 여긴다. 15년 전까지는 점치는 사람의 신점을 통해 감별하기도 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풍성한 음식을 차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백일잔치에는 떡(백설기)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백일잔치에 백 명의 사람들을 대접하면 아이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긴다. 돌잔치에는 지인들을 초대해 팔떡(시루떡), 세머리떡(팥, 포도, 찹쌀을 섞어서 만듦), 국수 등을 나누어 먹는다. 연필, 책, 실, 돈 등을 놓고 돌잡이를 한다. 아이가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여긴다. 한편 젓이 돌지 않을 때, 이웃 쌍둥이 엄마를 데려다 젓을 문지르게 한다.

② 혼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김원배는 25살 되던 1964년도에 중신애비의 중신으로 20살 처녀와 결혼했다. 택일은 중신애비와 함께 신랑집에서 결정하여 신부집으로 통보한다. 경우에 따라 공합도 확인할 겸, 점치는 사람에게 신랑, 신부의 사주를 건네주고 택일하기도 한다. 날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낸다. 함은 신랑과 신랑 친구, 또는 신랑과 형들이 가지고 가는데, 함 속에는 신랑의 사주 및 신부의 옷, 양말, 가락지 등을 넣는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향한다. 보통 혼자 가서 혼례를 치르지만, 형이나 누나가 따르기도 한다. 결혼식을 올린 후 이튿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다. 1960년도까지 신랑을 다루는 동상례가 있었다. 김원배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③ 환갑, 칠순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들은 웬만하면 환갑잔치를 한다. 형편이 넉넉하면 식당을 빌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흥을 낸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집에서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 소고기, 닭고기, 찰떡, 과일, 보드카 등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러나 '칠순잔치를 하면 명이 짧아진다'고 여겨 칠순잔치는 하지 않는다. 희수(77세), 미수(88세), 백수(99세) 때에도 같은 의미로 잔치를 하지 않는다.

④ 장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박승의 부친은 197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친이 숨을 거두려고 하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누였다. 휴지를 코에 대어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시신의 다리를 차렷 자세로 쪽뻥게 하고 손은 배 위에 X자 형태로 가지런히 놓였다. 이를 집안의 한 어르신께서 맡아 했다. 망자가 여성이면 여성이, 남성이면 남성이 하는 것이었지, 상주는 망자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 흰 천을 끈으로 삼아 어깨, 배, 다리, 발목 등을 묶었다. 끈이 풀어지면 망자가 귀신이 되어 후손들을 괴롭힌다고 여겨 촘촘히 묶었다. 또 수의 주머니에 망자의 손톱과 발톱, 동전, 평소 차던 시계를 넣었다. 그런 후 시신을 관에 넣었는데, 관 위에는 붉은 천을 덮었다. 붉은 천 위에는 치약을 물에 타서 그것을 붓에 묻혀 부친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런 후에 관뚜껑을 덮고 병풍 뒤에 안치시켰다. 병풍 앞에는 부친의 사진을 신위[위패] 대신 모셔놓고, 향, 과일, 과자 등 제물을 간단히 진설했다. 저승사자를 위해 사자밥을 문 앞에 차려 놓았다. 제물은 술 세 잔, 메 세 그릇(수저 꽂아놓음), 떡(수제비를 동그랗게 만듦) 한 그릇 등이었다. 최근에는 적삼과 신발을 사자상 옆에 걸어놓기도 한다. 당시에도 고축(告祝)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작장 동료들 중 대표가 서양식으로 부친의 공로나 인품, 망자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등을 토로하며 상주를 위로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아침에, 화물차 위에 붉은 천이나 카펫을 깔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고 고정시켰다. 영정 - 화환 - 상주 친구들 - 관을 실은 화물차 - 상주들 순으로 제1공동묘지로 이동했다. 이때 군악대 출신 4명이 북, 트럼펫, 탬버린, 트럼본으로 슬픈 곡조를 연주했다. 부친의 초상화를 비석에 새겨 넣고, 삶의 내력도 간단히 기록해 넣었다. 오늘날에는 모든 일을 장례사무소[리투알로예푸로]에서 대행한다. 한편 망자가 병원에서 죽거나 객사하여 그 시신을 집에 들여야 할 때, 대문으로 들였다가 나갈 때

는 창문으로 낸다고 한다.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오면 집안에 액운이 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편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인들은 사람의 일생에서 돌상, 혼례상, 환갑상, 장례상을 꼭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여 환갑상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경우, 환갑이 되는 해 생일날에 묘지에 가서 망자를 위해 환갑잔치를 한다.

⑤ 제례, 차례

㉞ 설제사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설차례’, ‘추석차례’를 ‘설제사’, ‘추석제사’라고 한다. 또 기제사를 ‘사망제사’ 또는 ‘돌아가신 날 제사’라고 한다. 설날 아침 7시에 설제사를 올리는데, 제수로서 소고기, 닭고기, 물고기, 떡, 두부, 과일, 보드카 등을 전날에 준비한다. 소고기는 칼집을 내고 두드려 기름에 굽는다. 닭고기는 통째로 삶는다. 물고기는 청어의 입과 머리를 끊어내고 굽는다. 떡은 감자떡, 찹떡, 시루떡을 찐다. 두부는 모두부를 생으로 준비한다. 과일은 사과, 귤, 배, 토마토, 오이 등을 홀수로 준비한다. 우선 촛불을 켜고 향을 지핀다. 장남부터 술잔에 술을 세 번씩 나누어 붓고 두 번씩 배례한다. 이어 항렬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배례한다. 한국과 거의 같은 방식이지만, 단 점심 식사를 하기 전까지 철상하지 않고 그제가 되어서야 음복한다. 또 지방 대신 사진을 봉안한다. 김원배는 여전히 음력 설을 고집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양력 설을 쇠고 있다.

㉟ 추석제사 : 사할린주에서는 망자가 운명한 지 10년 안에는 집에서, 지나면 산소에서 추석제사를 올린다. 집에서 추석제사를 올릴 때에는 설제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산에서 추석제사를 올릴 때에는 향초, 과일, 나물을 기본으로 평소 망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비석 제단 앞에 진설한 후 장남부터 술잔에 술을 세 번씩 나누어 붓고 두 번씩 배례한다. 이어 항렬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배례한다.

㊱ 9일차례 :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들은 선조들 중에서 사망한 날이 불분명할 경우, 음력 9월 9일에 차례를 올린다. 차례 방식은 한식, 단오 때와 다르지 않다.

㊲ 사망제사 : 사망제사는 망자가 사망한 전날 밤 자정을 전후해서 올린다. 부친의 사망제사를 올릴 때에도 모친의 사진을 함께 올린다. 모친의 사망제사를 올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수나 방식은 설제사와 동일하다. 고축(告祝)은 70년대 이후 사라졌다. 남성들만 양복을 갖춰 입고 사망제사에 참여하며, 여성들은 뒤에 앉아 있다. 사망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제물을 북쪽으로 진설하고, 초와 향에 불을 붙인다. 흑여 향이 없으면 연필을 깎아 수북이 쌓아놓고 불을 지핀다. 장자부터 항렬에 따라 술잔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고 두 번씩 배례한다. 장자가 첫 잔을 올린 후 메와 국을 진설하고 손가락을 꿸는다. 철상한 후 음복하는데, 퇴주잔에 있는 술은 모두 마셔야 좋다고 여겨 일체 나누어 마신다.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놀이	개인놀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썰매타기, 눈싸움, 이거리저거리
	축제	-	유즈노사할린스크	설행사, 들놀이, 광복절경축행사

[7분야]				
-------	--	--	--	--

(7) - 1. 놀이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어린이들은 썰매를 많이 탄다. 썰매는 나무판에 쇠 심지를 박아 만든다. 또 눈으로 성 만들기라든가, 눈싸움이라든가 하는 놀이를 많이 한다.

(7) - 2. 축제

㉞ 설행사 :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20년 전부터 시 한인회 주관으로 음력 설 전 일요일에 한국관 강당에서 설행사를 행한다. 떡국, 떡(한국인이 경영하는 떡집에서 사 들임), 보드카 등을 먹으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넨다. 사할린예술단 소속 단원들이 초빙되어 가야금을 연주하고, 부채춤, 북춤 등을 춘다.

㉟ 들놀이 :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15년 전부터 시 한인회 산하 시 노인회 주관으로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들놀이’를 행한다. 들놀이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들에서 놀이를 펼쳤지만, 근간에는 사할린스크 31중학교 운동장에서 놀이를 펼친다. 참여 인원은 200~300명 가량인데, 버스 3~4대를 대절하여 인근 지역에서 참여 인원을 태워 나른다. 들놀이는 오전 11시에 시 한인회 회장 및 시 노인회 회장의 개회식 선언과 축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래 콩쿠르와 줄다리기[줄대기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 콩쿠르에서는 ‘날좀보소’, ‘도라지’, ‘아리랑’, ‘노들강변’과 같은 전통민요, ‘금강산 일만이천봉’, ‘눈물 젖은 두만강’과 같은 가곡, ‘백마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과 같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경합한다. 심사는 전문 예술학교 졸업자가 맡는데, 1, 2, 3등까지 부상으로 그릇, 컵 등을 받는다. 또 춤 콩쿠르로서 10분간 모든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고, 그 가운데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줄다리기는 달리 ‘줄대기기’라고 한다. 20여 명의 남성팀과 30여 명의 여성팀으로 나누어 경합한다. 주로 여성팀이 이기는데, 부상으로 양말이나 비누 등 생필품을 받는다. 씨름은 톱밥을 뿌려 터를 만들고 20대, 30대, 40대 급을 나누어 경합한다. 씨름 최우승자는 냉장고를 부상으로 받는다. 이외 그네뛰기, 널뛰기, 60m 달리기, 발 묶고 달리기 등을 한다. 시 한인회에서 점심식사로 떡, 두부, 국수, 음료수 등을 준비해놓지만, 집집마다 음식을 풍성히 가져와 서로 나누어 먹는다. 오후 3~4시를 전후해서 막을 내린다. 예산은 시 한인회와 노인회에서 한국 경영자들에게 스폰을 받아 충당한다.

㊱ 광복절경축행사 :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양력 8월 15일 후 첫 일요일에 시립 공원 내 코스모스운동장에서 광복절경축행사를 행한다. 오전 10시에 영예기념광장(2차 세계대전 전사자들의 위령광장)에 시 한인회, 시 노인회, 주 대표들이 모여 헌화하고, 인근에 있는 코스모스운동장으로 이동한다. 때를 맞추어 200~300여 명의 한인들이 코스모스운동장에 집결한다. 주지사 - 시장 - 시 의회의원 - 주 한인회장 순으로 축사를 하고 광복절경축행사를 본격화한다. 행사는 초청가수 공연, 노래 콩쿠르, 씨름, 육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초청가수 공연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2~3명을 초청하는데, 이혜미, 김국환이 가장 인기가 있다. 노래 콩쿠르는 들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날좀보소’, ‘도라지’, ‘아리랑’, ‘노들강변’과 같은 전통민요, ‘금강산 일만이천봉’, ‘눈물 젖은 두만강’과 같은 가곡, ‘백마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과 같은 한국의 대중가요 등을 부르며 경합한다. 씨름은 매트 위

에서 하는데, 1등에게 부상으로 송아지, 냉장고, 대형TV 등을 준다. 육상은 아동부,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누는데, 아동부는 30m, 청소년부는 60m, 성인부는 100m를 달린다. 이외 병낙기 등을 한다. 한편 3년 전부터 광복절경축행사의 대미를 임금님 행차가 장식하고 있다. 시청 앞에서 광장까지 조선의 임금과 여왕을 실은 가마가 행렬하는데, 한인들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매우 좋아한다. 광복절경축행사는 오후 5~6시에 막을 내린다. 예산은 시 한인회와 노인회에서 한국 경영자들에게 스폰을 받아 충당한다.

■ 연해주

(1) 전통적 공연예술(연행)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공연 예술 [1분야]	음악 무용	-	아르쎈	칠성가무단, 조선가무단, 발말소리춤
			우수리스크	조선노래가무단, 고려가무단

① 칠성가무단

연해주 아르쎈에서는 1977년에 칠성가무단이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1977년 당시에 칠성가무단을 북조선 평양에서 온 부부가 지도했다. 남편은 극동 국립기술대학교 아르쎈 분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했고, 부인은 전공을 살려 칠성가무단원 중 아르쎈 분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채춤을 지도했다. 결과 1997년 12월 25일 극동 국립기술대학교 아르쎈 분교 대강당에서 7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연을 했다. 2012년도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2012년도 소수민족 문화포럼'에 칠성가무단이 초빙되어 북춤, 발말소리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② 조선가무단

연해주 아르쎈에서는 민족문화센터 산하에서 조선가무단이 활동하고 있다. 단장은 민족문화센터 회장인 김따찌아나이며, 단원들은 고려인 10대 여학생들 15명이다. 조선가무단은 김따찌아나에 의해 2005년에 본격적으로 결성, 활동하기 시작했다. 단원들은 지역의 문화행사에 공식적으로 초빙되어 공연하기도 하고, 환갑잔치 등에 개별적으로 초빙되어서 공연하기도 한다. 단원들은 북춤, 부채춤, 쟁강춤[방울춤], 칼춤 등을 구사한다. 북춤은 2011년에 중국 연길에서 북을 구매하고, 북한 예술대학 출신인 김옥순으로부터 한 달간 전수받았다. 결과 동년 4월, 10월에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부채춤은 2012년에 김옥순으로부터 전수를 받다가 어떤 알력이 생겨 완전히 전수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고려인 협회 회원들이 부채춤, 쟁강춤[방울춤], 칼춤은 물론 들장구까지 북한 예술대학 출신인 허금옥으로부터 전수받아 놓은 터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었다. 또 2005년도에 서울 ○○가무단에 의뢰하여 한 달간 한국의 부채춤, 검무, 장고춤을 전수받았다. 한편 한민족선교센터와 공조하여 조선가무단원들에게 한국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조선가무단원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에 부여, 경주, 남원, 부산 등지를 여행했다. 아르쎈의 지역적

현실상, 단원들은 대부분 타지로 대학을 간다.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각종 춤이나 악기를 구사하는 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전통풍습과 전통예절 등도 공부한다.

③ 발말소리춤

연해주 아르좁에서 활동하고 있는 칠성가무단은 2012년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2012년도 소수민족 문화포럼'에 초빙되어 북춤, 발말소리춤을 선보였다. 이 중 '발말소리춤'은 서사(敍事)를 갖추고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하느님에게 8명의 공주가 있었다. 공주들이 백두산 천지에 자주 내려와 놀았다. 멀리서 천지를 볼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올 때 말을 타고 내려왔으므로 공주들이 내려올 때마다 천지 인근에 말발굽 소리가 진동했다. 만약 인간이 한 명의 공주라도 보게 될 경우,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다." 발말소리춤은 이러한 서사를 춤으로 형상화했다.

④ 조선노래가무단

연해주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신문사,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노인단[노인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노인단[노인회]은 조선노래가무단과 모란봉가무단[고려가무단]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단[노인회]는 1956년에 장례식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회원이 300여 명이나 되었지만 흐지부지 운영되다가, 198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 조선노래가무단원은 남성 4명, 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전통 춤까지도 구사할 줄 안다. 예컨대 부채춤, 꽃춤, 북춤, 스카프춤 등인데, 현재 북한 예술인 김예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그 전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북한 예술인 김영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김영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소환을 당해 더 이상 지도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려인문화센터 명의로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술인 지원 요청을 해 김예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노래가무단원들이 생일잔치나 환갑잔치 등에 초빙되어 공연을 해주고 받은 돈을 모아, 김예나에게 일종의 연봉식으로 1년에 만 불을 지급한다. 또 조선노래가무단 회원들은 5년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주말을 이용해 2~3시간 씩 조선노래를 배운다. 지도자는 고 표도르(1943년생,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출생, 1995년에 우수리스크로 재이주)로서 우수리스크 문화예술학교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지휘 등을 교육 받은 재원이다. 고 표도르는 죽기 전에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아리랑을 고려인들에게 전수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조선노래가무단의 회원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일이고, 셋째는 홀로 사는 고려인 독거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이다. 금번 현지조사에서 김인근은 '사랑이 어찌 늙으랴'를, 김진주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나가이.강스베틀라나는 '고향생각'을, 허스베타는 '노들강변'을, 최옥순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이루드밀라는 '제비가'를, 최소망은 '그리운 고향'을, 김마리아는 '고국산천, '경치도 좋지 등을 저마다 불렀다. 또한 '밀양아리랑', '아리랑', '씨를 활활 뿌리자'

⑤ 고려가무단

연해주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신문사,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노인단[노인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노인단[노인회]은 조선노래가무단과 모란봉가무단[고려가무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고노들을 '조

선노래가무단'으로, 60대 이전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모란봉가무단'으로 분류시켰다. 모란봉가무단은 이후 고려가무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고려가무단은 2011년도 타슈켄트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였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여 조선노래가무단원들이 고려가무단원들에게 교육을 받기도 한다. 현재 고려가무단의 지도자는 리 엘레나 드미트리예브나이다.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제보를 들을 수 없었다. 차후 보다 집약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의학[민간요법],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3분야]	농업	재래 농기구	파르티잔스크	도리깨, 키, 맷돌
		농경속	우수리스크	농사기원제

(3) - 1. 재래농기구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운소피아는 30년 전까지 도리깨를 사용했다. 맷돌을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또 오늘날까지도 키로 곡물을 까불고 있다.

(3) - 2. 농경속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은 1960~1970년대까지 3월에 길일을 택해 농사기원제를 올렸다. 부녀자가 부엌 부뚜막에 정안수를 떠 놓고 조왕(寵王)에게 비손하며 풍농을 기원했다. 조왕을 '부엌의 신', '집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달리 '도모보이'라고도 한다. 이어 대들보에 정안수, 증편 등을 진설하고 부처(붓다)에게 비손하며 풍농을 기원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은 기둥 아래 대들보에 부처가 늘 좌정하고 있다고 여긴다. 한편 꿈자리가 사나워도 대들보에 좌정하고 있는 부처에게 액풀이 기원을 하곤 했다.

(4) 구전전통 및 표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구전전통 및 표현 [4분야]	설화	신화	아르쎈	단군신화
	민요	유희요	우수리스크	아리랑, 도라지, 사랑이어찌늘으 라, 고향생각, 노들강변, 노세노 세젊어서노세, 제비가, 그리운고 향, 고국산천

(4) - 1. 설화

연해주 아르쎌 고려인들은 단군신화를 칠성(七星)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1977년 칠성가무단을 결성할 당시에 이 이러한 이유로 ‘칠성’이라는 용어를 붙였던 것이다. 칠성은 7개 별로서 큰 곰자리인데, 그 큰 곰자리의 별들로부터 환인(桓因)이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딸인 웅녀와 결혼해 단군을 낳았다고 여긴다.

(4) - 2. 민요

연해주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한 내력을 갖고 있다. 이들 모두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노세노세줍어서노세’ 등과 같은 민요를 알고 있고 저마다 한 소절씩은 부를 줄 안다. 또 ‘나의 살던 고향은’과 같은 동요도 부를 줄 알고 있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눈물 젖은 두만강’, ‘떠나가는 배’ 등 대중가요도 부를 줄 알고 있다.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5분야]	식생활	일상음식	파르티잔스크	고추된장볶음
		별식	파르티잔스크	두부
		절시식	우수리스크	오곡밥, 오그랑죽
		저장식품	아르쎌	김장김치
	파르티잔스크		된장, 간장, 고추장, 김장김치, 가자미식혜, 연어식혜, 토마토절임, 오이절임, 양배추절임	
	주생활	기타시설	파르티잔스크	우물
	세시풍속	봄철	아르쎌	단오행사, 어버이날행사
		가을철	아르쎌	추석행사, 회상의날기념행사
		겨울철	아르쎌	설, 설행사
			우수리스크	설, 대보름

(5) - 1. 식생활

① 일상음식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안레나는 일상 반찬으로 고추된장볶음을 한다. 금번 현지조사 과정 중 8월 13일에 안레나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반찬으로 나온 고추된장볶음이 매우 맛이 있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콩기름에 양파를 넣고 볶다가 된장과 물을 넣고 끓인다. 부글부글 끓면, 그때 뒷밭에서 재배한 고추를 넣는다. 여름철에 듬뿍 마련해서 유리병에 보관해두었다가 겨울철까지 먹는다.

② 별식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윤소피아는 옛 고려인 방식대로 두부를 만든다. 두부를 흔히 ‘디비’라고 한다. 두부의 주재료는 노란콩으로 사촌이 농사를 지어 싹 값에 대준다.

우선 저녁나절에 노란콩을 큰 말통에 넣고 물어 부어 두세 번 씻고 밤새 불린다. 이튿날 아침에 콩을 건져내 메쓰루까(러시아식 고기 같이 기계)에 넣고 돌린다. 그러면 콩이 고기처럼 갈려 나온다. 가마솥에 물을 끓인 후 조금 식혔다가 간 콩을 넣고 큰 주걱으로 휘휘 젓는다. 그런 다음 포대에 넣고 콩물만을 짜내어 체에 받는다. 이 콩물을 가마솥에 끓이는데, 큰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펄펄 끓을 때마다 냉수를 붓는다. 이 과정을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큰 다라에 콩물을 퍼내고 신 김치 국물과 소금을 넣는다. 콩물 3kg 당 5리터 정도의 신 김치 국물을 넣는다. 그러면 콩물이 덩이 지면서 서서히 두부로 변한다. 두부의 색은 노르스름하다. 봄과 겨울에는 신 김치 국물을 넣고, 여름과 가을에는 바닷물을 넣는다. 두부가 다 되면 모로 썰어 냉장고에 넣어둔다. 찬물에 보관할 경우에는 찬물을 계속 갈아주어 신선도를 유지한다. 윤소피아는 가족 생일이나 환갑잔치 때마다 손수 두부를 만든다. 삶아 먹기도 하고, 지저 먹기도 하며, 시락장물, 매기장물[미역국], 무장물 등에 넣어 먹기도 한다.

③ 절시식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은 대보름 아침에 오곡밥을 먹는다. 오곡밥을 달리 ‘오가지밥’이라고 한다. 멥쌀, 기장, 수수, 메밀 등을 넣고 오곡밥을 한다. “이 밥을 먹어야 한 해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 가능한 오곡밥을 먹는다.

동지에는 오그랑죽을 먹는다. 오그랑죽을 달리 ‘동지죽’이라고 한다. 멥쌀로 죽을 쑨 다음 팔을 갈아 넣어 만든다. 찹쌀 가루를 동그랗게 비벼 말아 새알심을 넣기도 한다. 오그랑죽을 먹기 전에, 대문에 한 그릇을 놓아둔다. 또 사방을 향해 조금씩 뿌린다. 그래야 재액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 윤스타니슬라프는 이러한 액막이를 큰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④ 저장식품

연해주 아르좁에 거주하고 있는 유엘라는 인근에서 음식 솜씨가 좋기로 평판이 자자하다. 11월 중에 김장김치를 하는데, 이에 반드시 연어나 청어를 김치 속에 넣는다. 연어는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는데, 머리도 통째로 넣는다. 2011년도에는 연어 대신 청어를 넣었는데, 청어 통조림에서 청어를 꺼낸 후 그 통조림통에 소금물을 붓고 그 물로 배추를 절이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한다. 또한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윤소피아는 11월 중에 김장김치를 담근다. 배추를 네 쪽으로 쪼갠 후 소금물에 하루 간 재운다. 이를 꺼내어 양념 속을 채우는데, 속은 고춧가루, 마늘, 향채, 무채, 새우젓 등으로 만든다. 경우에 따라 연어 대가리를 넣기도 한다. 통에 넣고 겨우내 지하에 보관한다.

이외 된장과 고추장도 옛 방식대로 만들어 먹는다. 다만 간장만 오늘날 사먹는다. 토마토, 오이, 양배추 등을 절여 겨우내 반찬으로 먹으며, 가재미와 연어를 듬성듬성 썰어 소금에 절여 겨우내 먹는다.

(5) - 2. 주생활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안레나 집에 우물이 남아 있다. 6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5) - 3. 세시풍속

① 봄철

연해주 아르쎌에서는 2006년부터 음력 5월 5일이 지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오행사를 한다. 인근에 있는 ‘가족휴식공원’에서 행사를 갖는다. ‘가족휴식공원’ 사장이 고려인(김블라지미르)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원 내 방갈로를 임대해 주기 때문이다. 공원 방갈로에 수십 여 고려인들이 모여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종일토록 논다. 2011년도에는 단오행사에서 ‘민속축제 페스티벌’을 벌이기도 했다. 고려인 이외 다른 민족도 참여하여 각 민족의 전통춤을 선보였다. 그때 고려인들은 전통혼례식을 올렸고, 부채춤, 종각춤, 북춤을 선보였다.

또 1998년부터 설행사를, 2006년부터 단오행사를 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고려인들이 단합을 하게 되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전수시킬 수 있어 그에 대한 호응이 좋다. 이에 김따찌아나(아르쎌 민족문화센터 회장)를 중심으로 ‘아버이날’을 기해서도 행사를 갖자고 움직이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아버지날 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② 가을철

연해주 아르쎌에서는 2000년도 초.중반부터 음력 8월 15일 후 토요일에 아르쎌 민족문화센터에서 추석 의료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 주로 한의사들이 고려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노인들에게 침이나 뜸 따 치료한다. 북한에서도 의료진들이 와 의료봉사를 한다. 2010년도에는 한국에서 무려 32명의 의료진이 대대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또 10월 30일을 ‘회상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고려인은 물론 유대인, 체첸족, 러시아 정교회 등이 정오를 기해 아르쎌 시청 인근에 있는 ‘무덤 기념탑’에 모여 스탈린 정권 하에서 강제이주 당해 주검이 된 분들에게 헌화하고 묵념한다.

③ 겨울철

연해주 아르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한 내력을 갖고 있다. 그곳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설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를 올리고, 웃어른께 세배도 했다고 한다. 또 친척들이 오면 찰떡, 증편, 가주리, 콩나물 무침 등을 함께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해주로 재이주하면서부터 설 풍속이 단절되었다. 오늘날 아르쎌에 있는 고려인 3~4세대 아이들은 설이 무엇인지, 세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런데 김따찌아나가 고려인 협회 활동을 하면서 고려인의 전통 풍속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995년부터 세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려인 협회는 소련소비에트고려인협회 → 러시아고려인협회 → 고려인자치민족문화센터로 변모했는데, 김따찌아나는 2005년부터 아르쎌 민족문화센터 회장을 맡고 있다. 아르쎌에는 현재 1만 5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은 양력 1월 1일에는 러시아식으로 설을 지내고, 음력 1월 1일에는 고려인식으로 설을 지낸다. 음력 설 저녁에, 대부분 친정[여성 측]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우선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건네고, 세배를 한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먹는다. 이때 물뱅세이를 꼭 먹는다. 물뱅세이는 물만두로 속에 저민 돼지고기, 파, 마늘 등을 넣어 만든다. 단 하나의 물뱅세이에 동전을 넣어 빚는데, 이를 먹는 사람은 한 해 운수가 매우 좋다고 여긴다. 또 찰떡, 시루떡, 절편 등도 먹는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대보름 새벽에 우물에서 용알을 떴다. 이를 ‘용알뜨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연을 날렸는데, 연줄에 아스팔트의 콜타르 같은 것을 묻혀 연싸움을 하기도 했다. 한 해의 바람을 연에 적어 날려보내기도 했다. 저녁에는 달을 보며 집안 구성원의 건강 및 풍작 등을 기원했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6분야]	속신앙	-	아르쑸	기자속신		
			우수리스크	속신		
			파르티잔스크	초상집재액물림		
	무속신앙	-	아르쑸	방토, 부적, 제웅, 병긋		
			산육속	아르쑸	산모금기, 수유, 배냇저고리, 영산가루, 백일잔치, 돌잔치	
				혼례	아르쑸	결혼식(임신상)
				장례	파르티잔스크	장례
			제례 차례	아르쑸	한식차례	
				우수리스크	한식차례, 단오차례, 추석차례, 3년제사	
				파르티잔스크	3년제사	

(6) - 1. 속신앙

연해주 아르쑸에 거주하고 있는 유엘라는 5남매 중 장녀이다. 1965년에 남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시댁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어머니가 밥 안에 계란을 삶아 넣어주었다. 어머니는 이 밥을 다 먹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말 없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들 형제를 낳았다.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속신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이가 구들장 밑에서 죽으면 집안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죽는다. (2) 개가 사람 우는 소리를 하며 울면 노인이 죽는다. (3) 흰 쥐가 집에 들어오면 큰 복이 들어올 것이다. (4) 쥐가 한 길로 계속 오락가락하면 그 해 흉수가 난다.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윤소피아는 초상집에 문상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아궁이나 난로에 불을 지펴 그 불을 한참 동안 지켜본다. 그래야 재액이 따라붙지 않는다고 여긴다.

(6) - 2. 무속신앙

연해주 아르쑸에 거주하고 있는 유엘라의 시어머니는 1985년에 돌아가셨다. 당시 둘째 아들이 16살이었는데, 장례를 치른 후 웬일인지 집 밖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점치는 유명한 할아버지에게 의뢰해서 방토를 했다. 우선 아들의 베개 아래에 부엌칼을 놓아두고 잠들게 했다. 그리고 쌀가루를 반죽해서 새알심 마냥 세 개를 만들었다. 자정을 기해 유명한 할아버지와 함께 삼거리로 나가 버들가지 세 가지를 작은 꽃 모양으로 만들고, 새알심 반죽을 그 중간에 놓아 장식했다. 그 아래에는 부적을 깔아 놓았다. 이튿날 아침 7시 경에 그곳을 가보니 부

적 등이 사라졌다. 점치는 유명한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무서움증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의 무서움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유엘라는 1990년대까지 새 해를 맞이하기 전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 가족들의 한 해 운수를 점쳤다. 혹여 누군가 삼재가 들었다거나 운수가 나쁠 것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부적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 부적을 속주머니에 넣게 했다. 점치는 사람이 ‘부적은 심장 근처에 있어야 더욱 효험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연해주 아르좁에 거주하고 있는 김따찌아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결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당시 시어머니는 새 해를 맞이하기 전에 점치는 사람[하락시]을 찾아 가족들의 한 해 운수를 점쳤다. 혹여 누군가 삼재가 들었다거나 운수가 나쁠 것이라는 점괘가 나오면 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1967년에 손자의 운수가 매우 불길하다는 점괘가 나와 점치는 사람[하락시]이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40~50cm 가량 크기의 제용이었는데, 옷도 그렇듯 하게 해서 입히고 그 속에 부적을 넣은 형태였다. 이를 받아와 한 밤중에 다리 위에 올라 강물에 던져 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자의 재액이 제용에게 전이되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13살 되던 해, 할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갖가지 병원 처방을 해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에 할아버지가 점치는 사람[하락시]를 모셔와 굿을 했다. 김따찌아나는 어릴 적에 겪었던 일이라,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점치는 사람[하락시]이 흰 장단을 잡아 그것을 죽였다는 것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가 마구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대수대명(代數代命)을 행한 것이 아닌 듯 싶다.

(6) -3. 일생의례

① 산육속

연해주 아르좁에서 산모 금기가 전승되고 있다. 임신 중에 닭고기를 먹으면 태아의 발가락이 네 개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여겨 먹지 않는다. 또 개고를 먹으면 아기가 귀머거리가 된다고 여겨 먹지 않는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 여성들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여겨 아들 낳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산모가 젖이 잘 돌도록 미역국을 먹는다. 하지만 지금도 미역이 귀해 웬만해서는 먹지 못 한다. 그래서 대신 시락장물을 먹는다. 또 젖이 돌지 않으면 족발 삶은 물을 마신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붉은 색 영산가루에 젖을 섞어 아기의 이마에 바르기도 했다.

연해주 아르좁에 거주하고 있는 김따찌아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결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의 백일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백일잔치를 하지 못했지만, 주변 많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딸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두 딸의 백일잔치를 하지 못했지만, 돌잔치는 빛을 내어서라도 성대하게 했다. 주변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증편, 찰떡, 감주, 보드카 등을 나누어 먹었다. 쌀, 팥, 찰떡, 책, 공책, 돈, 실 등을 놓고 돌잡이도 했다. 쌀이나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팥을 잡으면 건강할 것이라고, 책이나 공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실을 잡으면 장수할 것이라고 여겼다. 한편 이외에도 딸일 경우에는 가위나 실을 놓기도 하며, 아들일 경우에는 총이나 칼을 놓기도 한다.

② 혼례

연해주에서는 결혼 전에 신부가 임신했을 경우, 신랑.신부가 올라앉는 단상 아래 작은 상

을 차린다. 이를 ‘임신상’이라고 하는데, 뱃속의 태아를 위한 것으로 여긴다. 작은 상 위에는 밥, 고기 등을 조금씩 놓는다.

③ 장례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윤소피아의 남편[리알료샤알렉세이]은 17년간 중풍을 앓다가 2009년 10월에 운명했다. 당시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대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이 숨을 거두려고 하자, “해주는 사람”이 따로 와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누였다. 또 휴지를 코에 대어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윤소피아는 남편이 평소 즐겨 입던 옷을 가지고 문밖에서 동쪽을 향해 혼부르기를 했다. “하느님 우리 남편 리알료샤알렉세이를 모셔가세요!”라고 세 번 외쳤다. 만약 객사를 하면 발코니에서 혼부르기를 한다고 한다. 수의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환갑잔치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삼았다. 그리고 시신을 여러 겹 묶고 입 관했다. 관 안에 쌀, 돈 그리고 평소에 즐겨 했던 화투, 담배 등도 함께 넣었다. 관 위에는 붉은 천으로 영정을 썼다. 입관 후에 상주들은, 남성은 양복을 입고 왼 팔에 완장을 둘러고, 여성은 흰 수건을 머리에 둘러고, 입관 전에는 한 번 배례했지만, 입관 후에는 세 번 배례를 했다. 저승사자를 위해서도 사자장을 문 앞에 차려놓았다. 제물은 메 한 그릇 정도로 간소했다. 3일간 아침, 점심, 저녁상을 갈아놓았는데, 제수는 밥, 국, 물, 닭고기, 생선 정도였다. 관을 문 밖으로 낼 때 관을 내려뜨려 접시를 깬다. 꽃을 으깨기도 한다. 그래야 산 사람들이 무탈하다고 여긴다. 관을 실은 차가 공동묘지로 향할 때 다리를 지나야 했는데, 이때 망자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설했던 밥을 봉지에 넣었다가 던졌다.

④ 제례, 차례

㉞ 3년제사 : 연해주 우수리스크 윤스타니슬라프(1937년생, 고려인문화센터 노인단 회장)는 3년간만 제사를 올린다. 오전에 산소에 올라 제수를 진설하고, 정오를 기해 제사를 올린다. 이때 친척들, 지인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집에서 자정을 기해 제사를 올린다. 그 이후에는 한식, 단오, 추석을 기해 차례를 올리는 것으로써 대신한다. 또한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윤소피아는 2009년 10월 24일에 남편[리알료샤알렉세이]가 운명했다. 그 후 2010년 10월 23일, 2011년 20월 23일에 제사를 올렸다. 파르티잔스크 고려인들은 보통 3년간만 제사를 올린다. 제수로서는 반드시 떡메를 쳐 빛은 찰떡을 올린다.

㉟ 한식차례 : 연해주 아르쎌 고려인들은 한식[양력 4월 5일로 고정]을 기해 산소에서 차례를 올린다. 주로 점심나절에 가능한 가족 모두가 산소에 올라 차례를 올리는데, 제수로 삶은 닭고기, 구운 생선, 지짐, 사과, 오렌지, 과자, 술, 메 등을 준비한다. 또 평소 망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산소에 올라서는 우선 별초를 하는 등 주변을 정리한다. 이어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붓고 배례한다. 제물 중 닭다리와 메 일부를 떼어 산소에 올려놓고 음복한다. 사정상, 한식에 차례를 올리지 못하면 추석에 차례를 올린다. 아르쎌 고려인들은 대체로 한식차례와 추석차례를 동시에 올리지는 않는다.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도 한식[양력 4월 5일로 고정]을 기해 집에서 한식제사를 올린 후 산소에 올라 성묘한다. 그리고 오후에 고려인문화센터에 모여 술을 마시며 논다.

㊱ 단오차례 : 연해주 우수리스크 윤스타니슬라프(1937년생, 고려인문화센터 노인단 회장)는 한식차례, 단오차례, 추석차례 등 일 년에 세 번에 걸쳐 차례를 올린다. 우선 집에서 차례를 올린다. 제수로 삶은 돼지고기, 삶은 닭, 구운 생선, 지름굽이, 사과, 배, 포도, 밥[진지], 물,

사탕, 초콜릿, 부추채, 콩나물채, 감자채 등을 준비한다. 제물을 진설하고, 초에 불을 켜고 향을 지핀다. 술잔을 올리고 배례하는데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예컨대 할아버지를 위한 차례이면 살아 있는 할머니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배례하며, 할머니를 위한 차례이면 살아 있는 할아버지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배례한다. 이후 향렬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배례한다. 배례를 마치면, '진지밥'을 물에 떠놓고 젓가락을 제수 위에 올려놓는다. 물에 떠 놓은 진지밥을 '갱물밥'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제수와 함께 이를 또 산소로 가져가 진설하고 배례한다.

㉔ 추석차례 :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들은 음력 8월 15일을 기해 아침 나절에 집에서 추석제사를 올린 후 산소에 올라 성묘한다. 그리고 밤 늦도록 고려인문화센터에 모여 술을 마시며 논다.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전승 지역	현지조사 내용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7분야]	놀이	개인놀이	아르쭙	연날리기
	축제	-	아르쭙	설행사
			우수리스크	단오행사, 광복절행사

(7) - 1. 놀이

연해주 아르쭙에서는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에 연을 날린다. 1996년에 김따찌아나가 고려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드좌릴 가쉬노바가 발행한 자료를 참고해 제안했다. 이때부터 3년간 국립 극동기술대학교 아르쭙 분교에서 교회 학생들이 참여해 연을 날렸다. 연은 꼬리연이었으며, 각기 종이에 본인의 소원을 적어 붙이고 연줄을 끊어 날려버렸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7) - 2. 축제

연해주 아르쭙에서는 1998년부터 음력 1월 1일이 지난 후 일요일 저녁에 고려인 설행사를 한다. 주로 호텔이나 규모가 큰 식당을 빌려 설행사를 하는데, 대략 80~1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참여한다. 이때 고려노래 콩쿠르, 고려춤 콩쿠르를 벌여 흥을 한껏 돋운다. 고려노래는, 젊은이들은 '마지막 약속', '언젠가는' 등 신세대 노래를 주로 부르고, 노인들은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엔 난 몰라' 등 심수봉 노래를 주로 부른다. 1등에게는 인형, 장난감, 학용품 등 부상을 수여한다. 또 이때 김따찌아나[아르쭙 민족문화센터 회장]가 젊은이들에게 세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가 어렵다고 하여, 그때부터 젊은이들의 설행사, 노인들의 설행사를 나누어 한다. 근간에는 젊은이들의 설행사에서 커플이 만들어져 결혼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기해 단오행사를 한다. 광복절행사의 행사장이기도 한 수이푼강변에서 해왔는데, 근간에는 아르쭙 고려인문화센터 광장에서 행한다. 수백 여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줄다리기, 씨름, 널뛰기, 들돌들기 등을 한다. 줄다리기는 남성팀과 여

성팀으로 나누어 하는데, 여성팀이 이길 수 있도록 남성팀이 봐준다고 한다. 씨름 우승자에게는 송아지를 부상으로 준다. 또한 양력 8월 15일에 수이푼강변에서 조선인민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행사를 한다. 총영사관, 지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회사, 축사를 한다. 이어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혁명가’를 합창한다. 그리고 ‘그리운 고향’, ‘눈물 젖은 두만강’,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고려인 고유의 노래를 부르며 논다.

Ⅲ.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계승 방안 및 제언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및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들은 각기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삶의 근간에 공히 한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물론 삶의 공간으로서 기후나 지리, 어떤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이 변형 또는 단절되었지만, 그 기억을 좇다보면 결국 100여 년 전에 우리 땅에서 전승되었던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 하여, 이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저 먼 땅에 고려인과 한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근간에 남아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실제 파악 및 보존과 계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금번 현지 조사를 통해 피부로 느낀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방안을 거칠게나마 제시한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한인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인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7개 하위 범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현지조사 및 자료정리(현장실태 조사카드, 자료 조사카드)에 활용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7개 하위 범주는 유네스코에서 범주화한 것으로 “[1분야] 전통적 공연 예술, [2분야]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3분야] 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4분야] 구전전통 및 표현, [5분야]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6분야]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7분야]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

예컨대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운덕은 1925년에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태어나 1943년에 아버지를 대신해 시네고르스크 탄광촌으로 강제 징용, 1982년까지 그곳에서 광부로 일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김운덕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왜 징용되었는지, 갱일을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갱 근처 식당에서 젊은 여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을 제보 받을 수 있었지만, 현 체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넣을 공간이 없다. 탄광촌 금기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을 6분야 중분류 “속신”에 넣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속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매일매일 갱일만 했던 지라 금기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물론 ‘탄광촌 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무형문화유산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할린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삶의 내력으로서 탄광촌 생활과 관련 내용은 한민족의 한 역사와 문화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⁴⁾

둘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나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

4) 한편 “세시풍속”은 5분야에, “일생의례”는 6분야에 넣어 정리하기로 문화재청 담당자와 협의하기도 했다.

형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다. 금번 현지조사 과정에서 현지 코디들의 주선으로 그러한 지식인들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한계가 있다. 너희들만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관계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결코 아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정통 법식을 전수받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 주도로 그러한 문화적 전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복한 예술인들이 담당해왔다.

예컨대 칠성가무단(러시아 연해주 아르썬)은 1977년에 결성되었는데, 당시 북한에서 온 어느 부부로부터 부채춤을 전수받았다. 결과 1997년 12월 25일 극동 국립기술대학교 아르썬 분교 대강당에서 7명의 고려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연을 했다. 2012년도에는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린 ‘2012년도 소수민족 문화포럼’에 칠성가무단이 초빙되어 북춤, 발말소리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조선가무단(러시아 연해주 아르썬)은 2005년에 결성되었는데, 2011년에 중국 연길에서 북을 구매하여 북한 예술대학 출신인 김옥순으로부터 한 달간 북춤을 전수받았다. 결과 동년 4월, 10월에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노래가무단(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은 1989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 예술인 김영희로부터 부채춤, 꽃춤, 북춤, 스카프춤 등을 전수받았다. 현재는 북한 예술인 김예나로부터 전수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현재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정리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관 주도의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라는 사업의 콘셉트와 일치할 수 있도록, 즉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을 적극 섭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웹사이트에서는, ‘무형유산 아카이빙’을 “무형유산과 관련한 기록물의 영구보관 또는 향후 검색, 재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록물의 수집, 분류, 정리, 보관에 관한 모든 작업 행위를 통칭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나아가 해외 한민족 사회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수조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정리 성과는 한편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그것과 사뭇 다르다. 산발적으로 수집, 정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집, 정리하는 작업은 금번 사업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금번 사업도 예산상의 문제로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을 섭외할 수 없었다. 비근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을 모두 섭외하여 집약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해외 한민족 무형문화유산이 수집, 정리될 것은 자명하다.

이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방안에 대해 거칠게 제한했다. 금번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의 결과물이 고려인과 한인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현지조사 체계의 선행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미래지향적 아카이브 구축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